

부 록

부록 1.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부록 3. 시민의견조사 결과

부록 4. 설문지 결과

1. 주요 국적별 외국출신주민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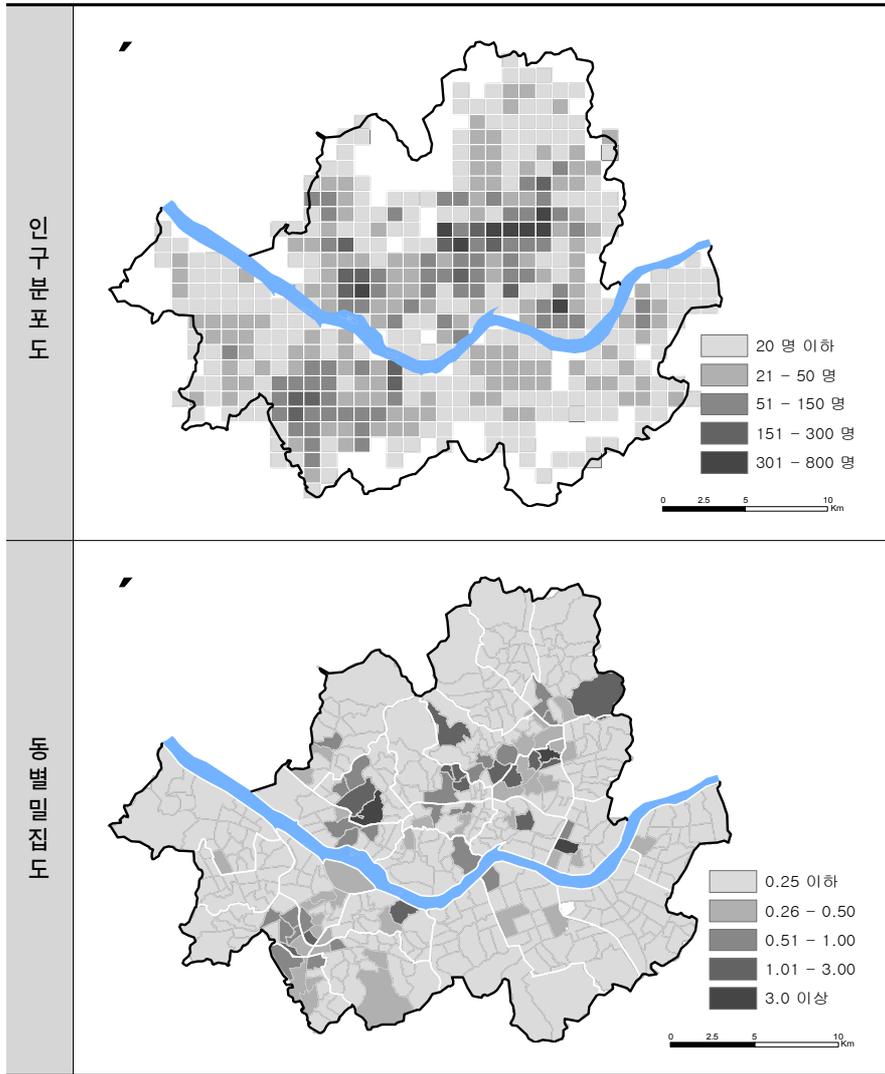
2009년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총 258,075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외국출신주민이 거주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GIS상의 주소와 결합한 결과 238,086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었다.⁶⁵⁾

공간 분포 현황은 인구분포도와 동별 밀집도 두 종류의 지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분포도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서울 전체 지역을 1km × 1km의 그리드(Grid)로 구분한 다음 그룹에 따라 나타나는 분포패턴을 통하여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활용하였다. 둘째, 동별 밀집도를 통하여 그룹별 밀집현황을 행정구역(동) 단위로 나타내어 특정 지역의 밀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도면 현황 분석을 통하여 향후 패턴 변화의 기준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책적 목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68.5%를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의 서남권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을 중심으로 2~5 사이의 높은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어 구로공단 인근지역에의 편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5) 서울시의 201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출신주민을 제외한 서울에 등록된 외국출신주민 총수는 총 255,501명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정책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258,075명으로 2,574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19,989명의 주소가 누락되어 총 238,086명의 분포 현황이 조사되었다.

〈그림 1〉 중국인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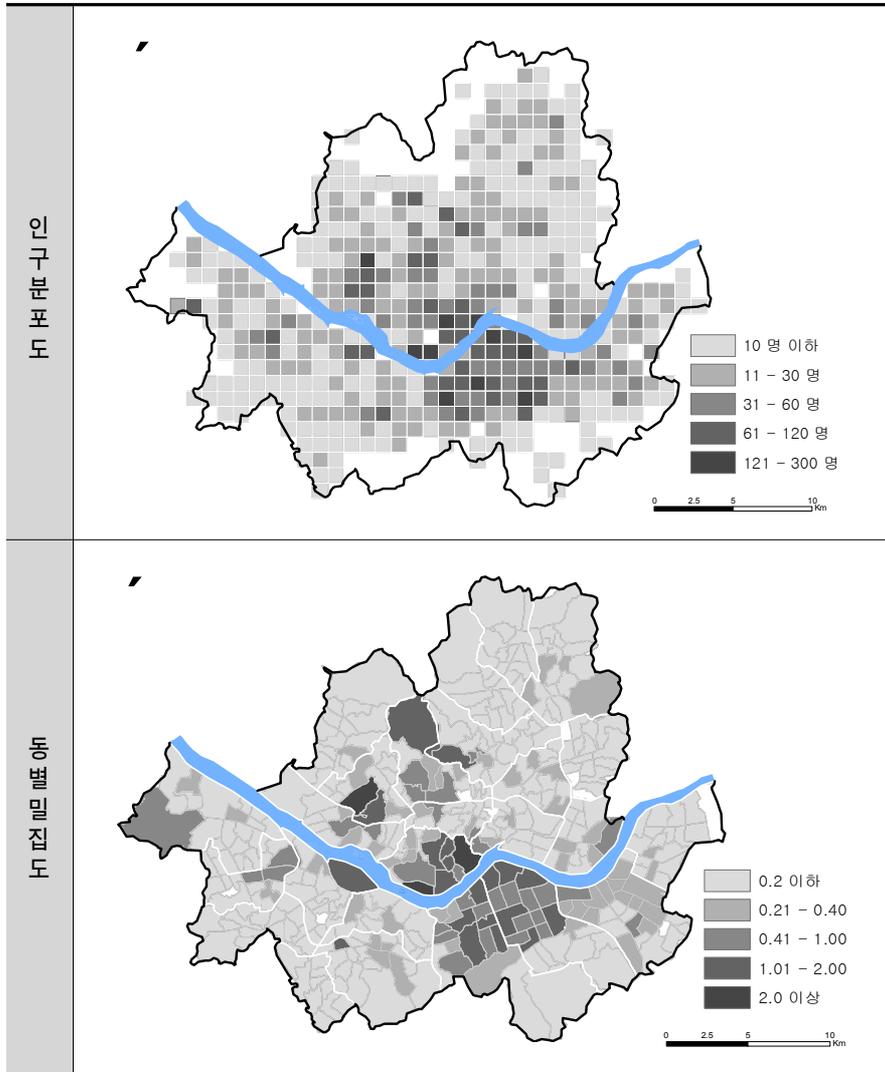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제외)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동북권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종로구 혜화동과 명륜3가동에서 7 이

상, 안암동과 신촌동에서 역시 2~3 이상의 밀집도를 보여주어 대학가 인근 저렴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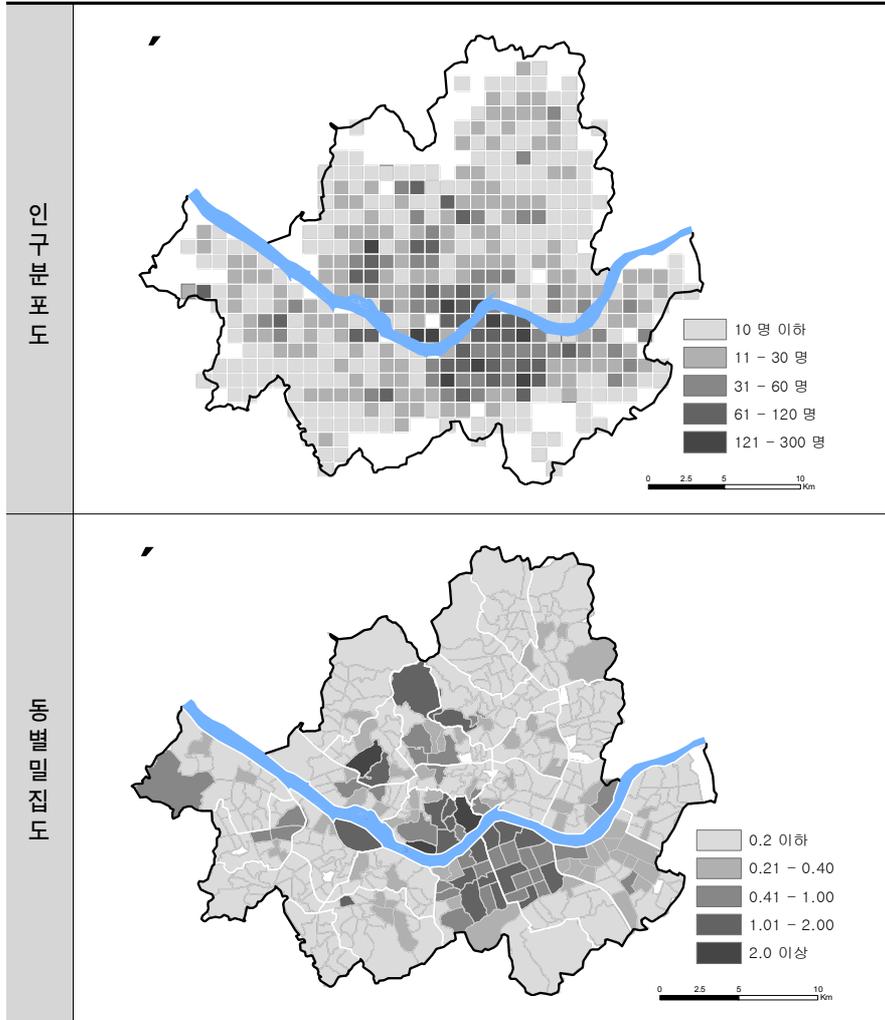
〈그림 2〉 미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4.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은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강남구와 용산구, 그리고 대학가 인근인 서대문구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밀집도 역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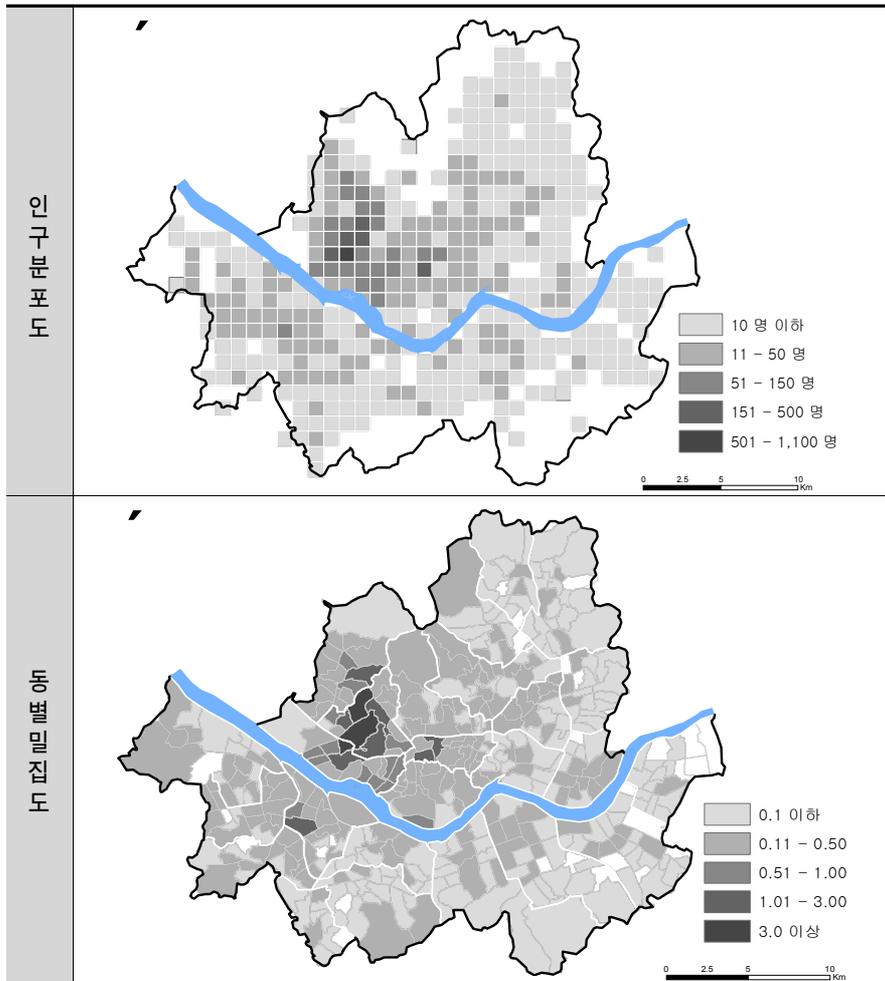
〈그림 3〉 미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3.3%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인은 연희 차이나타운이 있는 서북권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 중구 회현동, 영등포구 문래동 등 화교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밀집도가 5 이상으로 화교시설과 주거의 관련이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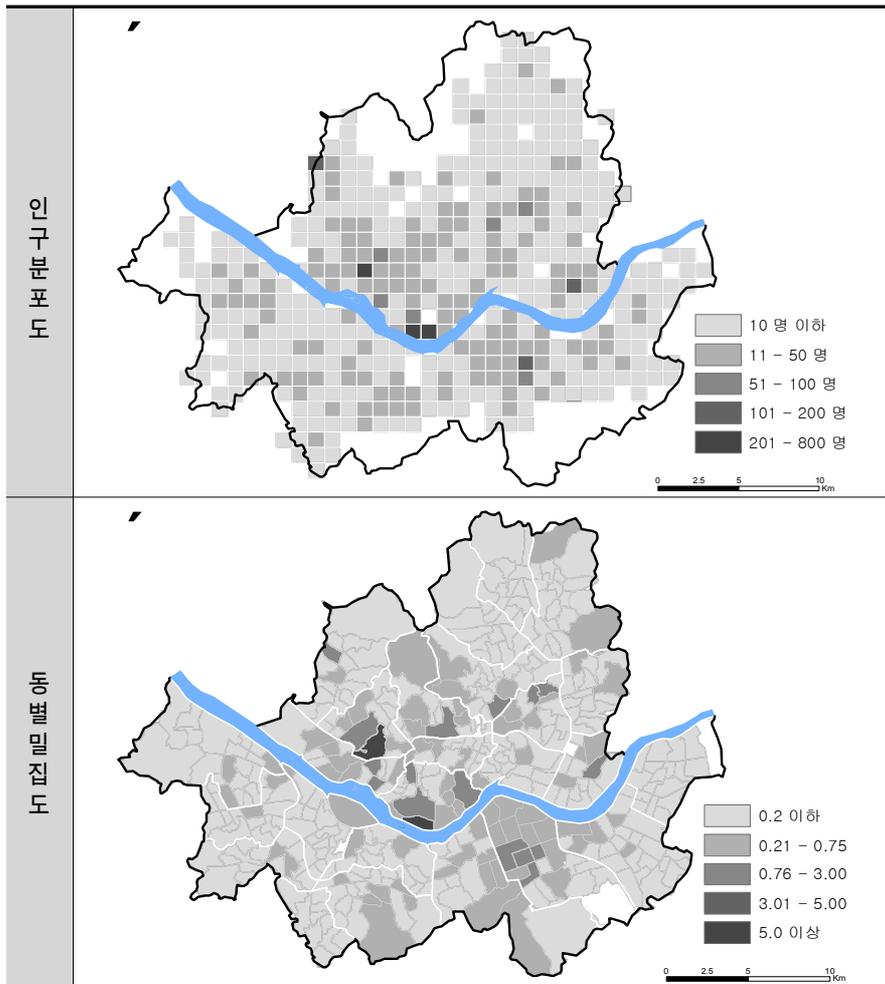
〈그림 4〉 대만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은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와 마포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몰려있다. 특히 용산구 이촌동의 경우 밀집도가 15에 이르러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자국 커뮤니티인 리틀도쿄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신촌동에도 5.83의 높은 수치를 보여 유학생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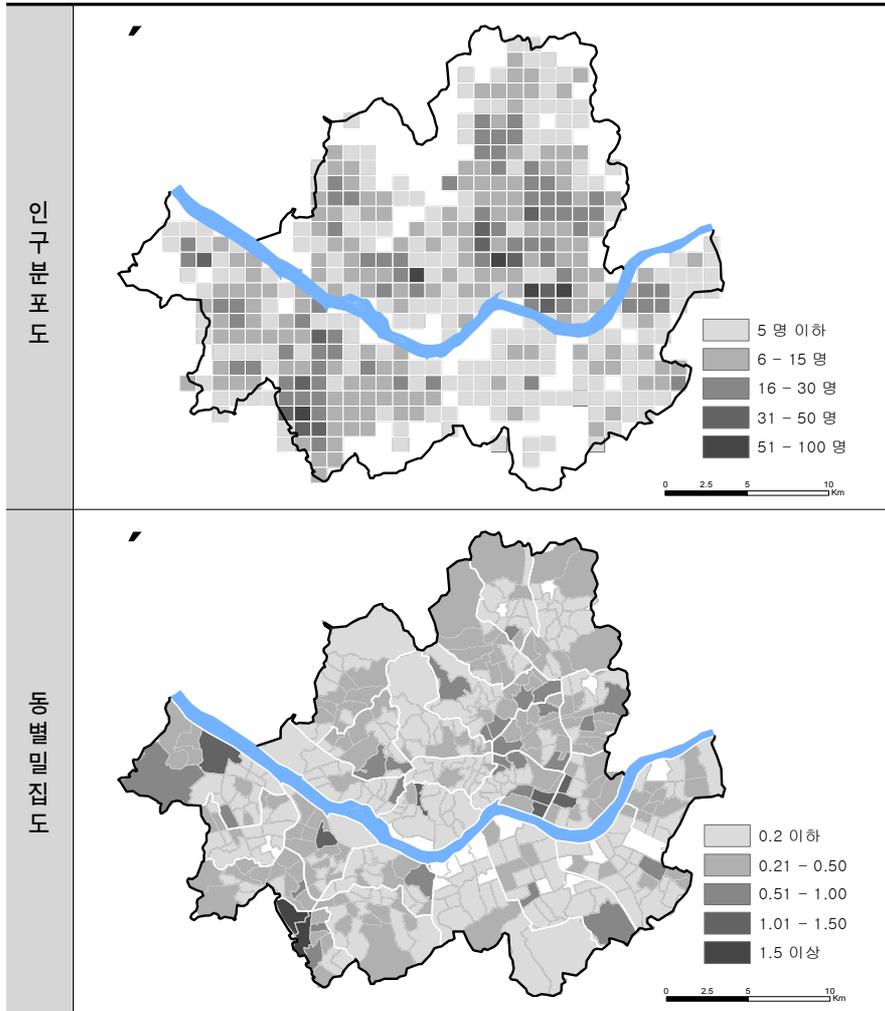
〈그림 5〉 일본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9%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공단과 성동구의 성수공단에 밀집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천구를 중심으로 1.5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 공장 지역 인근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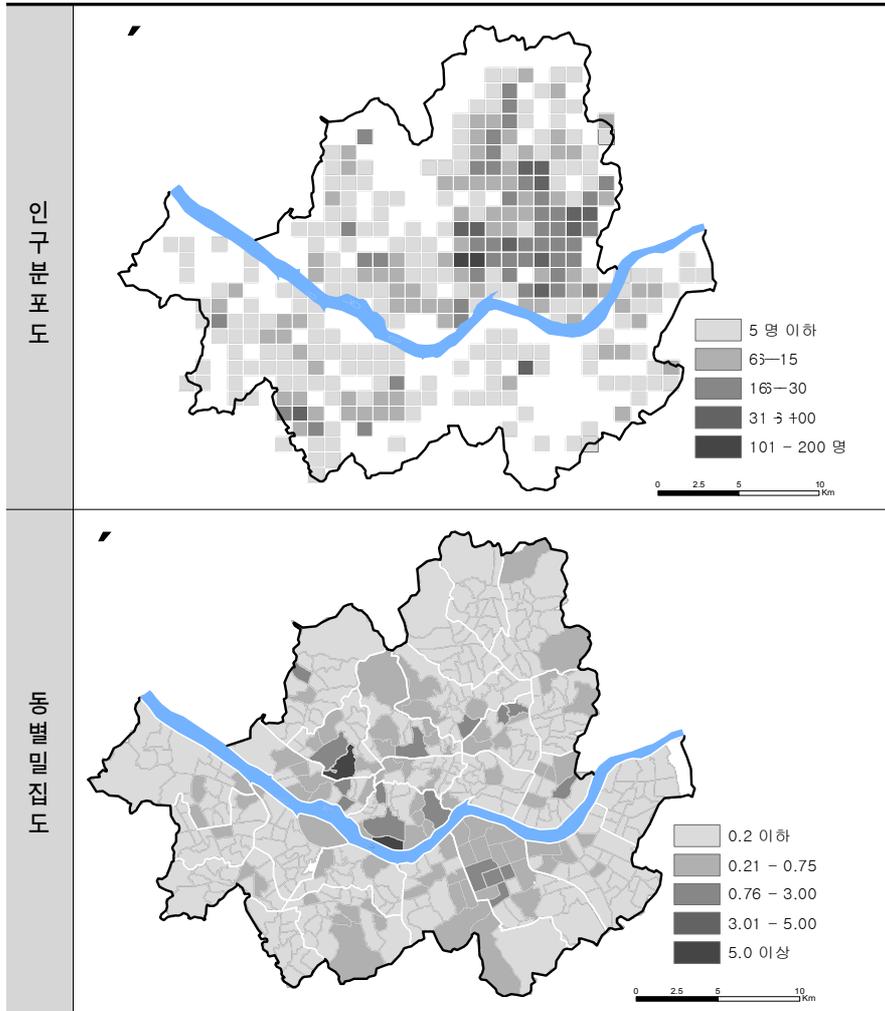
〈그림 6〉 베트남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3%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은 중국인과 비슷하게 동북권 집중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구 광희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3 이상의 밀집도를 보이면서 몽골타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주거지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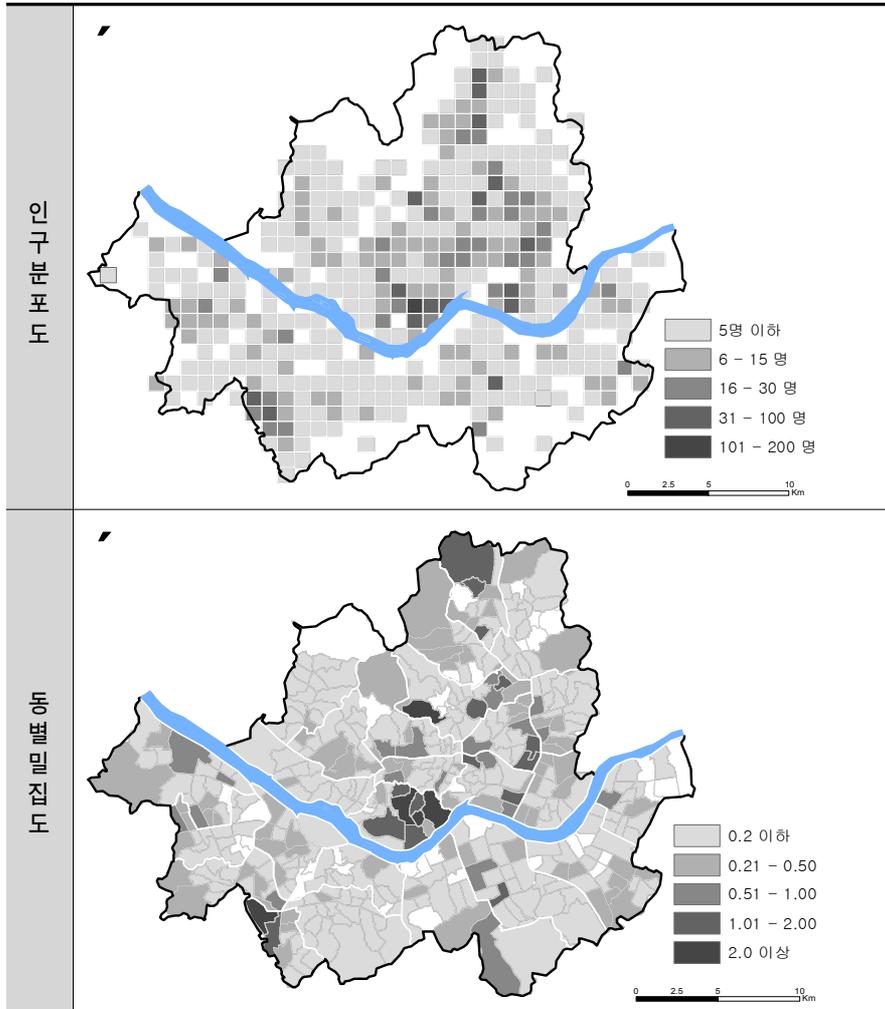
〈그림 7〉 몽골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3%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구 광희동에 13, 장충동에 5 이상의 밀집도를 보여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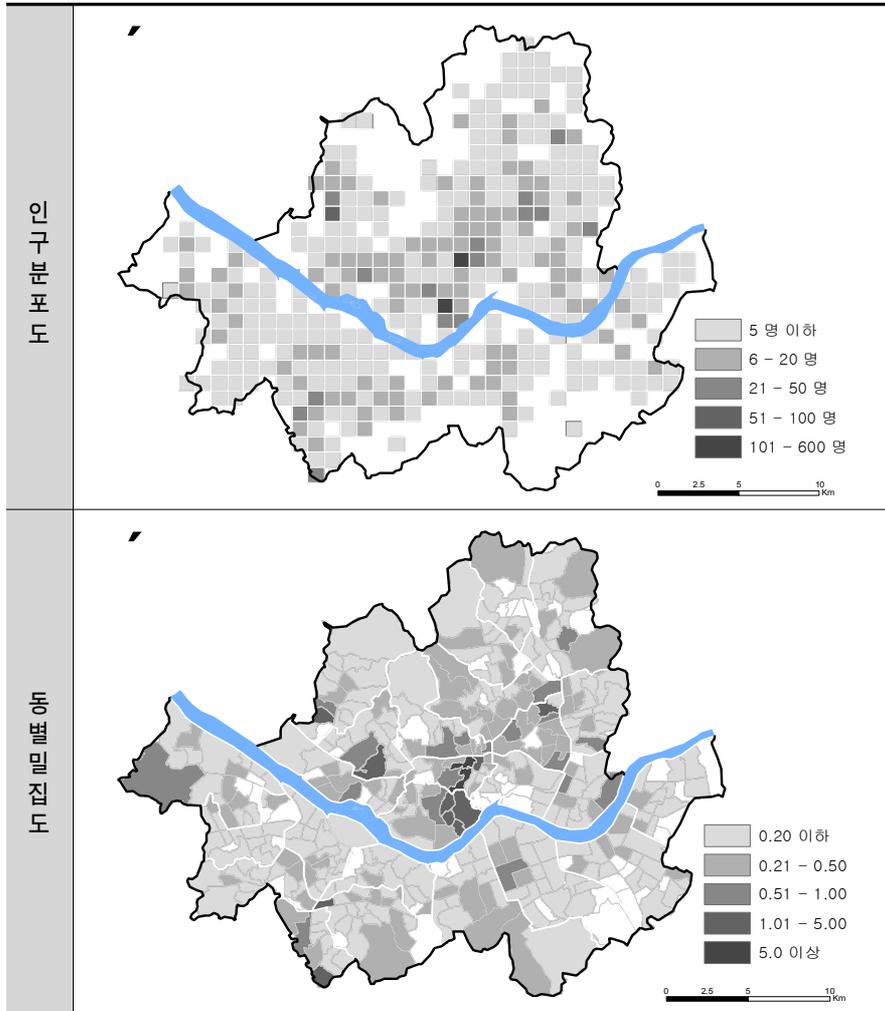
〈그림 8〉 필리핀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2%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인은 대부분 구소련 연방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인 중앙아시아촌이 위치하고 있는 광희동에서 13.34, 장충동에서 5.45의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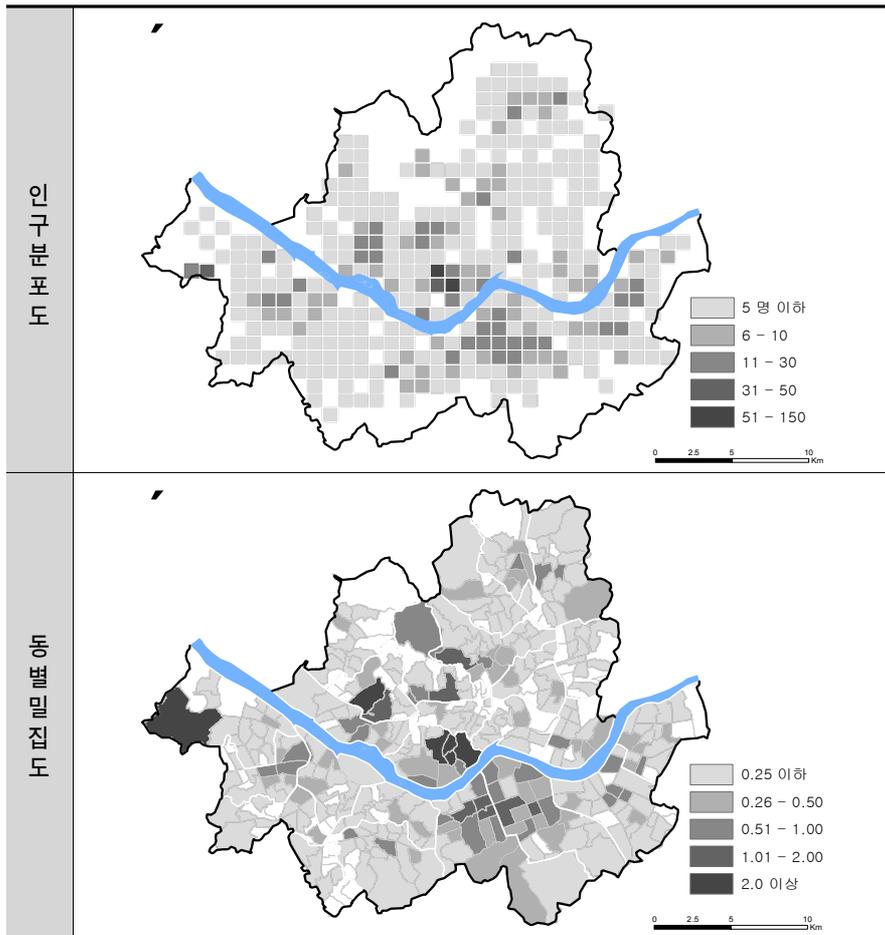
〈그림 9〉 중앙아시아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8%를 차지하는 캐나다인은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2.0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특정지역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강서구 공항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타난 51명의 주소가 대부분 김포공항으로 되어 있어 입국기록카드에 기록된 주거 자료의 진정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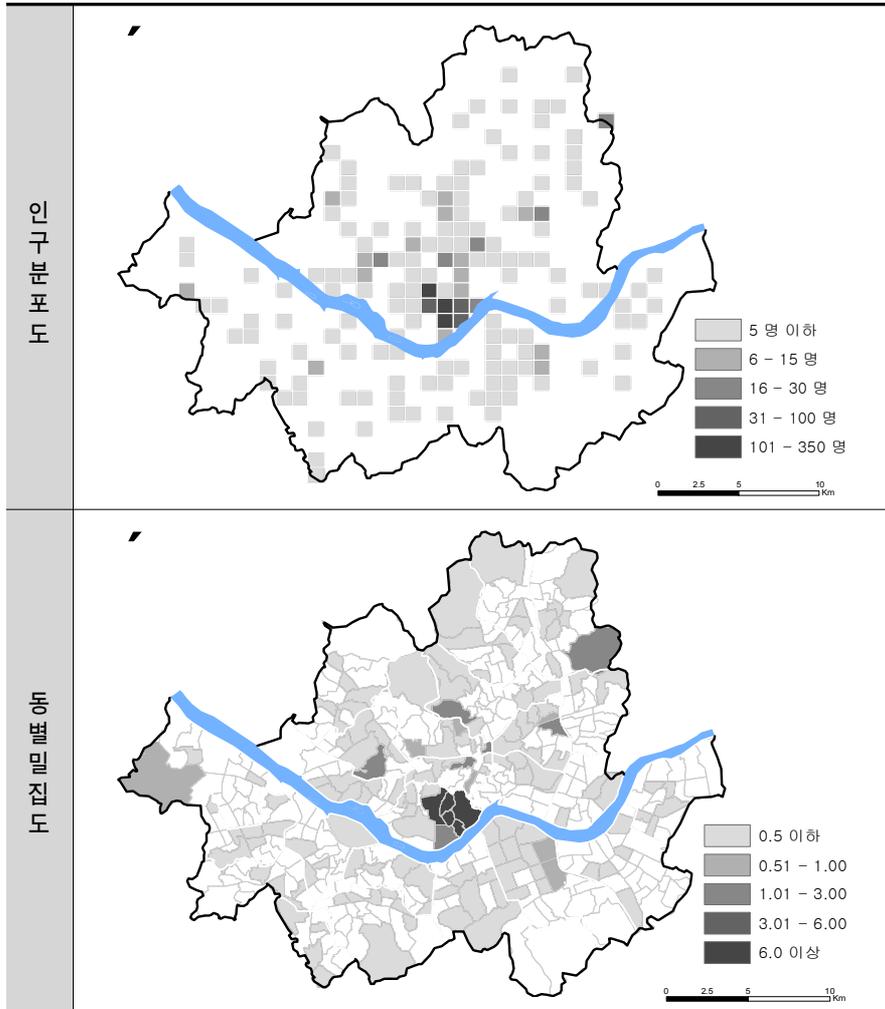
〈그림 10〉 캐나다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6%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대륙 출신의 외국출신주민은 용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도 역시 용산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인근지역인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모두 밀집도 10 이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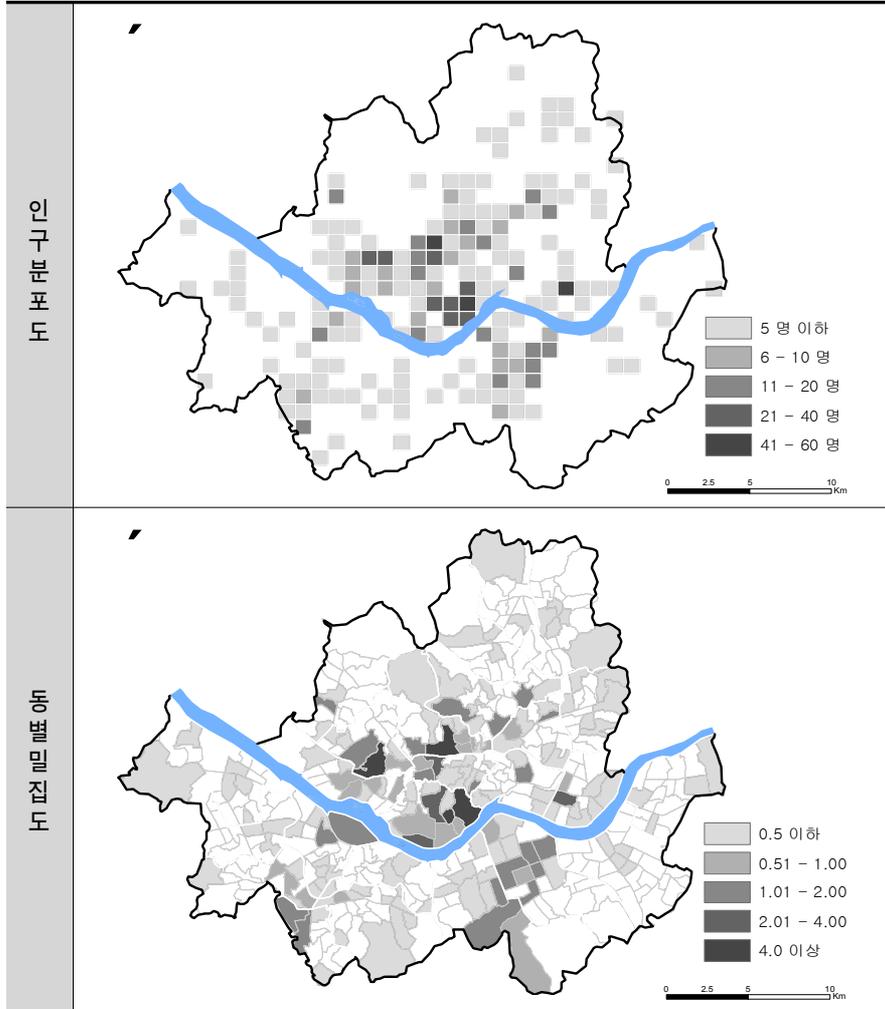
〈그림 11〉 아프리카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은 도심지역과 용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도 역시 동일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동 7.92, 이태원1동 4.43 등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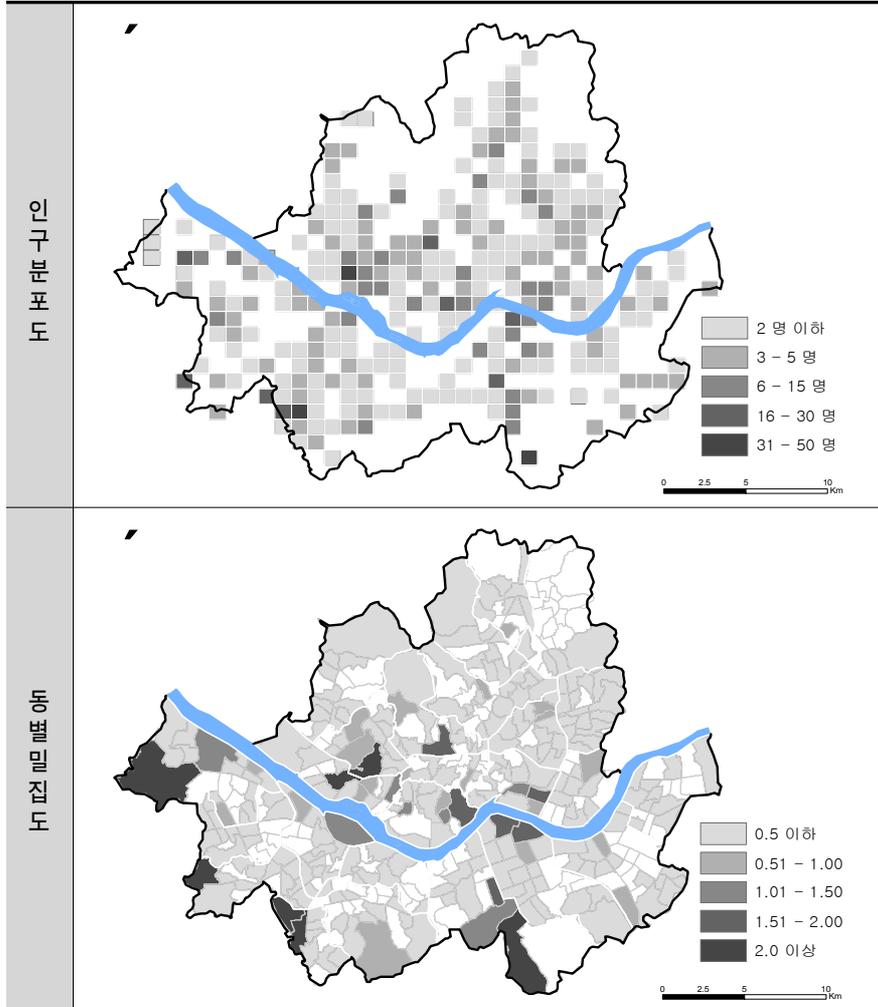
〈그림 12〉 인도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5%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인은 인구분포도에서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밀집도 측면에서 금천구 가산동과 독산1동에서 각각 5.3과 2.58, 서초구 양재2동에서 4.7을 보여 도심보다는 외곽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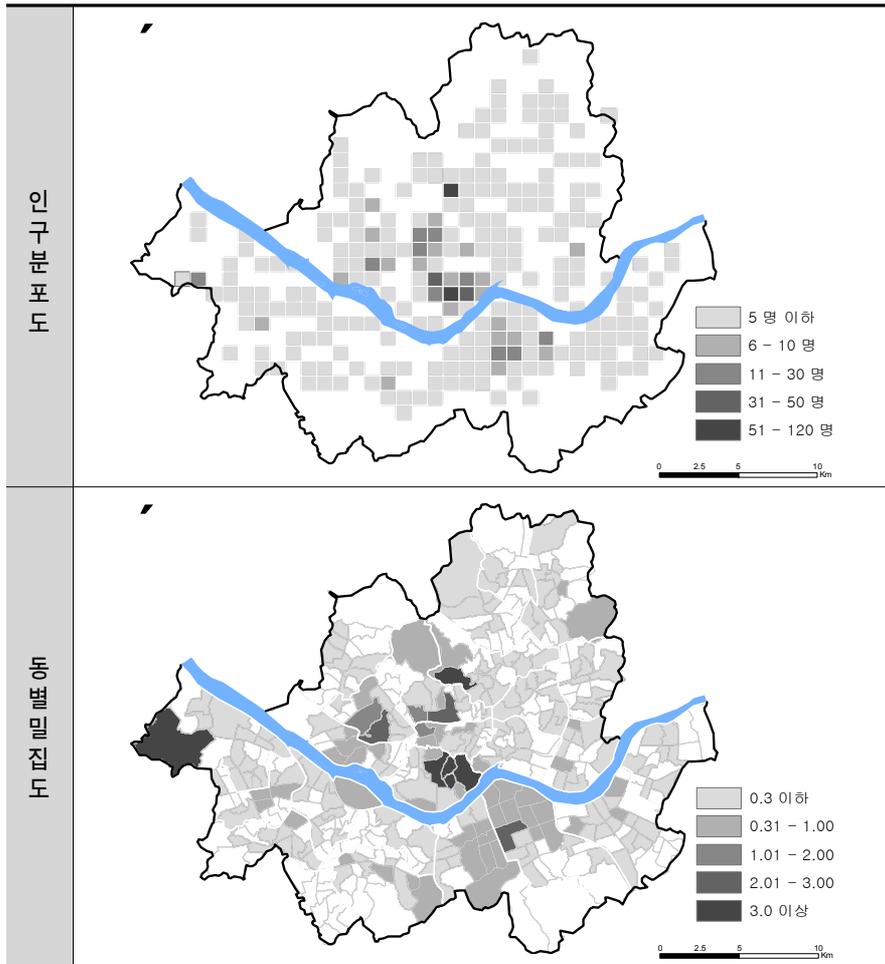
〈그림 13〉 태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4%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인은 용산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지역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동 등을 중심으로 5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캐나다인과 비슷하게 강서구 공항동으로 등록된 영국인 상당수가 공항으로 주소지를 기재하여 자료의 진정성 측면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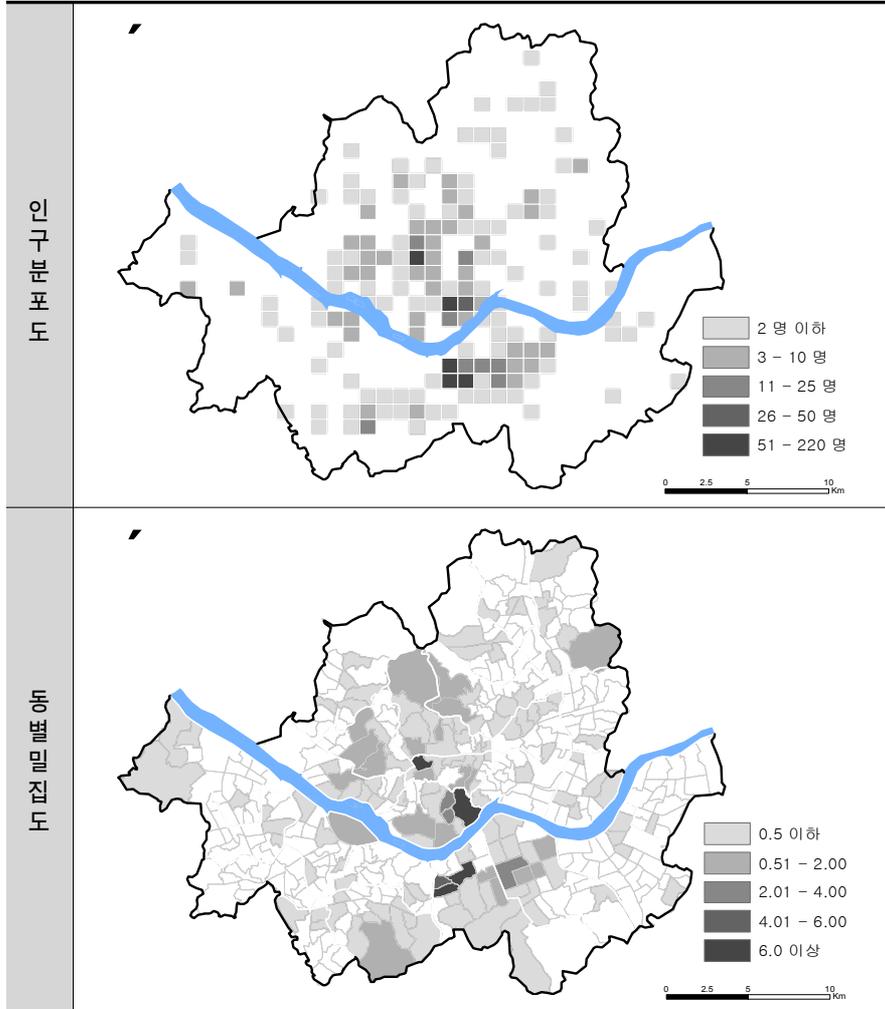
〈그림 14〉 영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프랑스인은 서울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4%로 서초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는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반포4동과 방배4동에서 12가 넘는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어 커뮤니티 중심의 밀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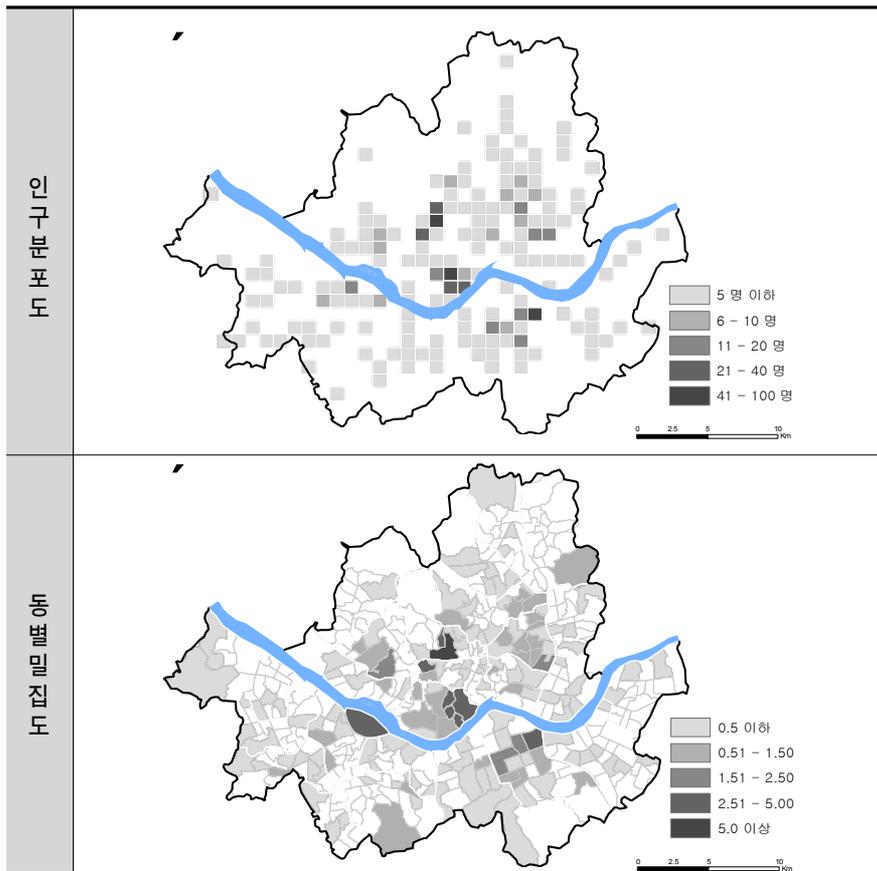
〈그림 15〉 프랑스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중동국가 출신⁶⁶⁾ 외국출신주민은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적 중심지인 이태원보다는 종로구 등 도심과 용산구, 강남구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종로구 종로1~4가동에서 11.6, 인근 소공동에서 4.7의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강남구 삼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동 등에서도 4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중동국가 출신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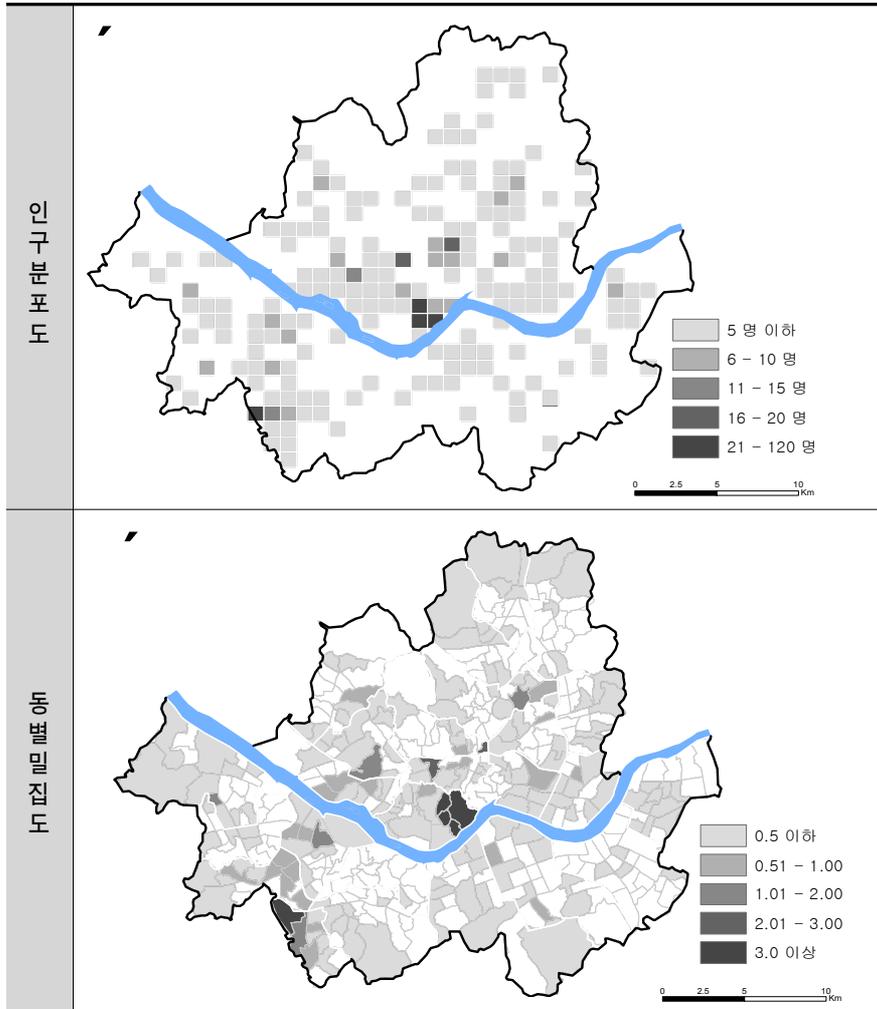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66) 터키, 이란,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이슬람 국가 출신

파키스탄인은 서울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일지역인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동을 중심으로 밀집도 1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이슬람성원이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과 주거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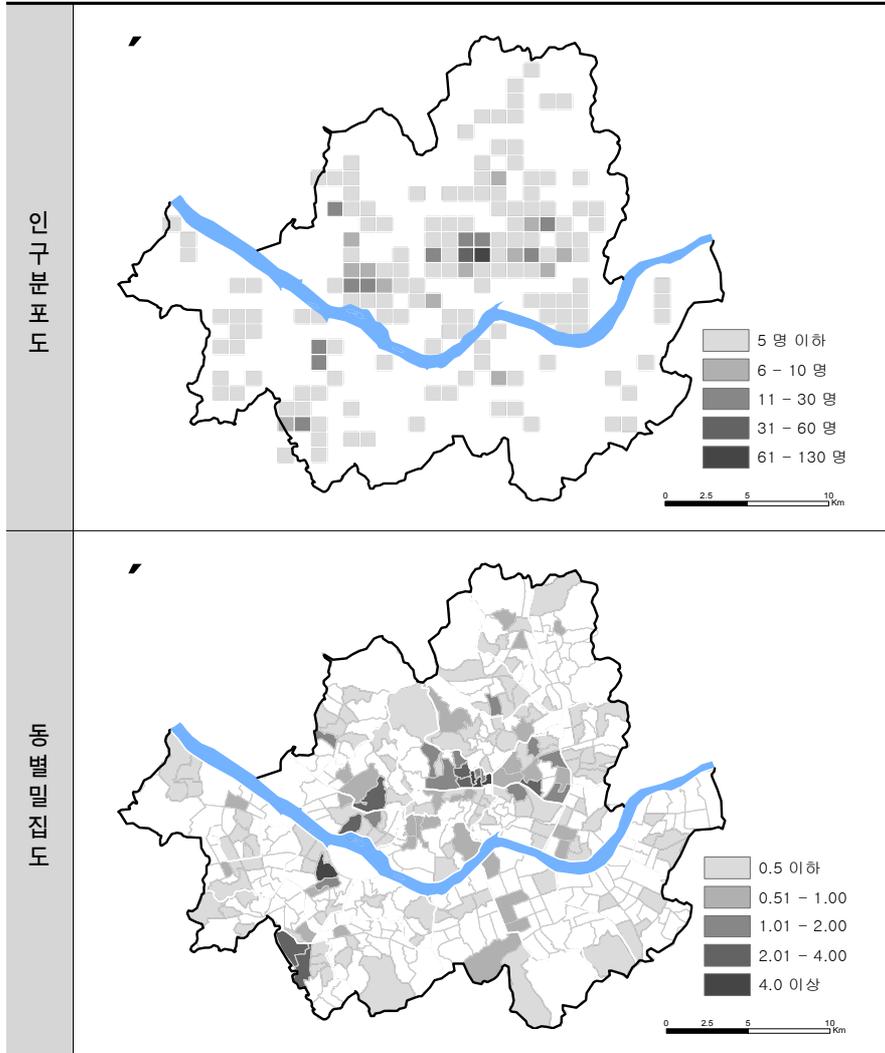
〈그림 17〉 파키스탄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네팔인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 등 도심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종로구 창신1동에 9.5, 송인동에 4.59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어 커뮤니티와 주거지와의 상관관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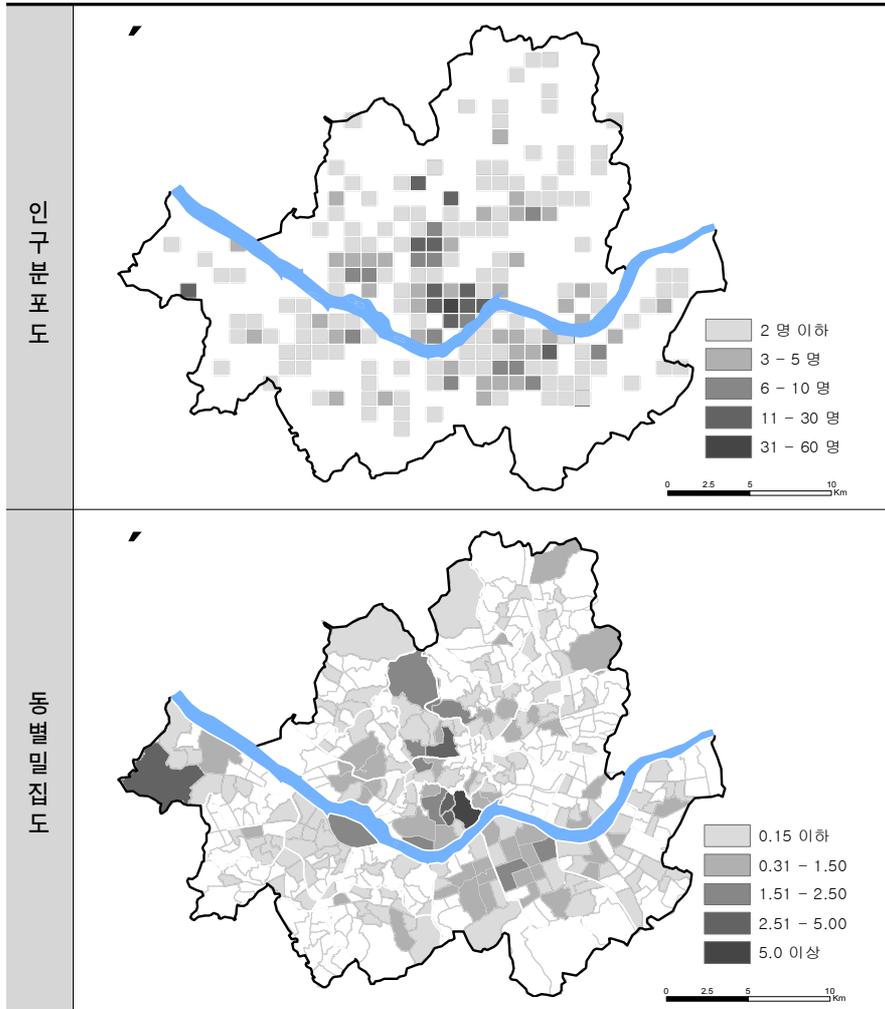
〈그림 18〉 네팔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호주인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 등 도심지역과 용산구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에서 27.7, 이태원2동에서 7.8 등 OECD 국가출신이 몰려 있는 용산구를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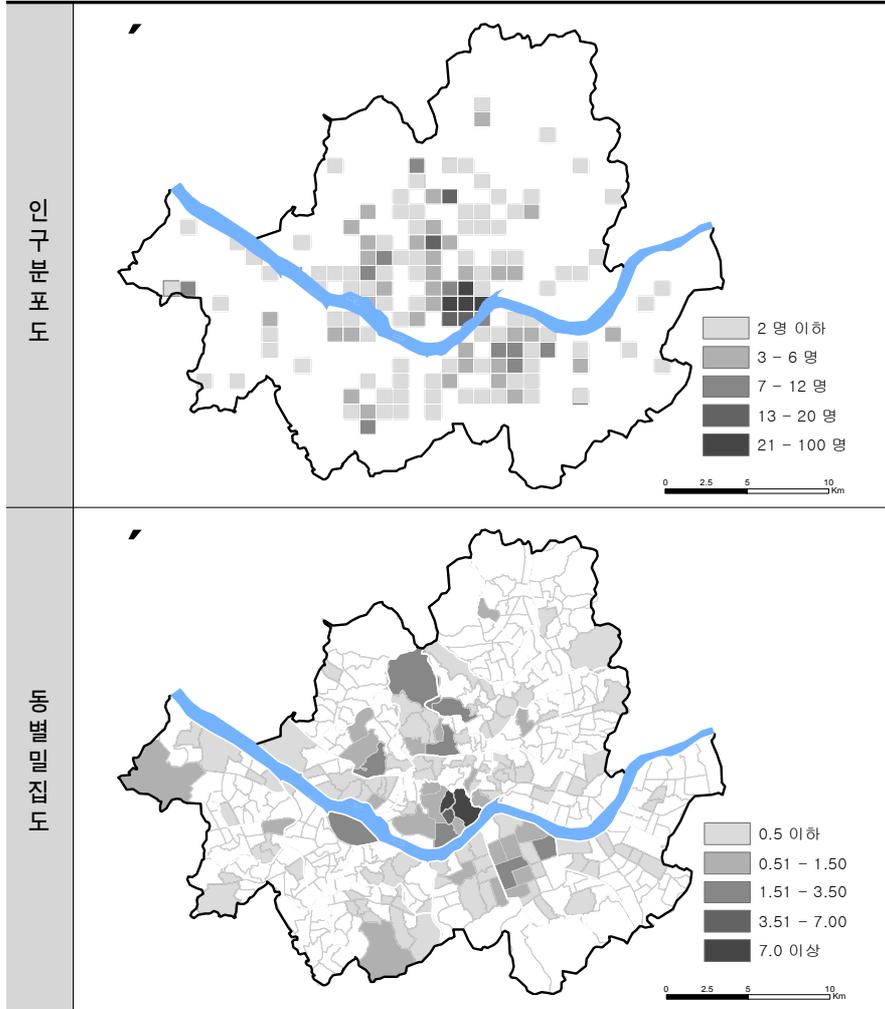
〈그림 19〉 호주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독일인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에서 26.71, 이태원동에서 7.77 등의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커뮤니티 중심과 주거가 일치하고 있다.

〈그림 20〉 독일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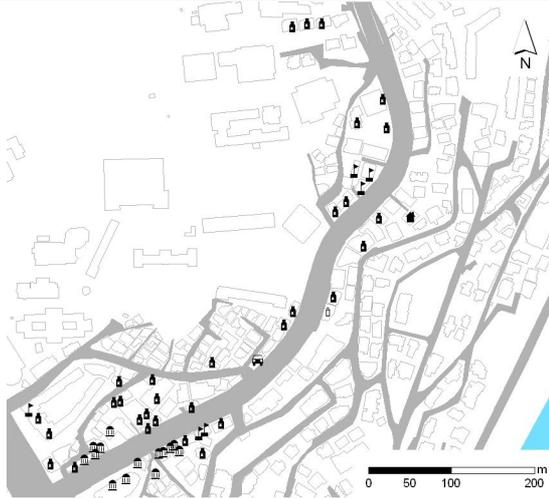
2. 지역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1) 용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로 이태원동, 한남동, 이촌동, 용산동 등 4개동에 모두 7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1)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구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 커뮤니티는 1960년대 이후 형성된 외국출신주민 고급 주거지인 한남 4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독일 커뮤니티는 ‘서울독일학교’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에 독일 관련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탈리아 커뮤니티는 이탈리아 대사관과 문화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 한남동 ‘국제성당’을 중심으로 ‘클럽 이탈리아’라는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다.



	공공		무역		여가		제조
	교육		수리		운송		소매 판매
	근린생활		식음료		전문판매		정보제공
	금융						



이 지역은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어 ‘외무 및 국방행정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음식점업’보다는 음료점업인 ‘주점 및 비알코올업’이 발달해 있다.

〈표 1〉 한남동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외무 및 국방행정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	합계
한남동	31.5	25.9	22.2	20.4	100
전체평균	37	3.5	13.7	45.8	100
특화도	0.85	7.40	1.62	-	-

(2) 이태원동

한남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태원동에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음식거리’, ‘아프리카인 거리’, ‘이슬람 거리’ 등 3개의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미국인을 위한 공동체가 있던 자리였으나 미군기지 이전으로 커뮤니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커뮤니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첫 번째 커뮤니티인 다국적 음식거리는 이태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해밀턴호텔 뒷편 250m정도 되는 골목길로 ‘이태원 맛길’로 불리는 지역이다. 이곳은 특정 국가 출신들이 모여 주거지 등을 형성한 장소가 아니라 국적과 문화권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특히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중에 ‘주점 및 비알코올업’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발달되어 있다.

〈표 2〉 이태원 음식거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금융지원 서비스	기타	합계
이태원음식거리	55.6	36.1	2.8	5.5	100
전체평균	13.7	37	2.2	47.1	100
특화도	4.06	0.98	1.27	-	-



두 번째 커뮤니티인 아프리카 타운은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50m 지점에 위치한 이화시장 내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아프리카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식료품점, 잡화점, 옷가게 등이 밀집되어 있다.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물품을 판매하는 잡화상 등 ‘종합 소매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커뮤니티가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인들의 전용 용품을 공급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이태원 아프리카 타운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기타	합계
아프리카 타운	28,1	21,9	15,6	34,4	100
전체평균	13,7	37	0,3	49	100
특화도	2,05	0,59	52,00	-	-



이태원동의 또 다른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한 보광 초등학교에서 이슬람 사원까지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무슬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중동국가 출신보다는 동남아시아 출신인 방글라데시인이나 파키스탄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⁷⁾ 주요거리 조사결과 ‘음식점업’보다 ‘섬유의복 및 신발소매업’과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표 4〉 이태원 이슬람 거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섬유의복 및 신발소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기타	합계
이슬람거리	27.8	11.1	11.1	50	100
전체평균	37	5	4.4	53.6	100
특화도	0.75	2.22	2.52	-	-

67) 외국출신주민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제공한 출입국자료 분석결과, 이슬람권 중동국가 출신의 외국출신주민 보다는 동남아시아권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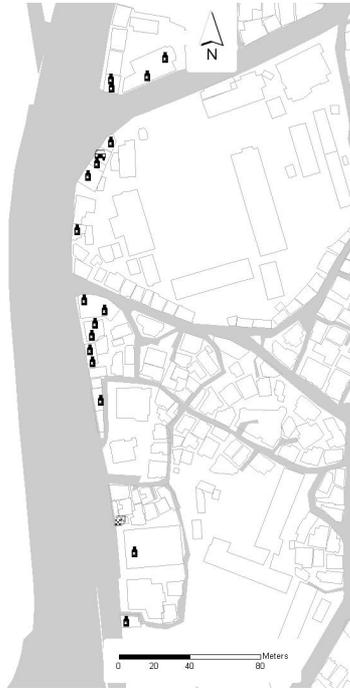
(3) 용산동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남산터널 방향으로 300m 정도 이동하면 ‘해방촌’이라 불리는 달동네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45년 광복과 함께 귀환한 해외동포, 월남 동포들이 정착한 마을로서 인근에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상업형 커뮤니티인 해방촌 음식거리와 종교형인 인도 커뮤니티 등 2개의 커뮤니티가 있다.

해방촌 음식거리는 녹사평역 2번 출구에서 남산터널 방향으로 반포로이다. 이곳은 이국적 식당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 뒤편의 구릉지에 배후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업 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용산동 해방촌 음식거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해방촌	47.4	36.8	5.3	10.5	100
전체평균	37	13.7	4.4	44.9	100
특화도	1.28	2.69	1.20	-	-



- | | | | |
|--------|-------|--------|---------|
| ☰ 공공 | ☰ 무역 | ☰ 여가 | ☰ 제조 |
| ☰ 교육 | ☰ 수리 | ☰ 운송 | ☰ 소매 판매 |
| ☰ 근린생활 | ☰ 식음료 | ☰ 전문판매 | |
| ☰ 금융 | | ☰ 정보제공 | |

인도 커뮤니티는 해방촌 음식거리와 500m 떨어진 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2008년 6월 서울에 사는 인도인들이 종교적 행사와 정보 교환을 위하여⁶⁸⁾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힌두교 사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그

68)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027.html

러나 역사가 짧고 신도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인근에 인도전문식당 1개를 제외하고는 외향적인 커뮤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거리 시설 조사를 통한 커뮤니티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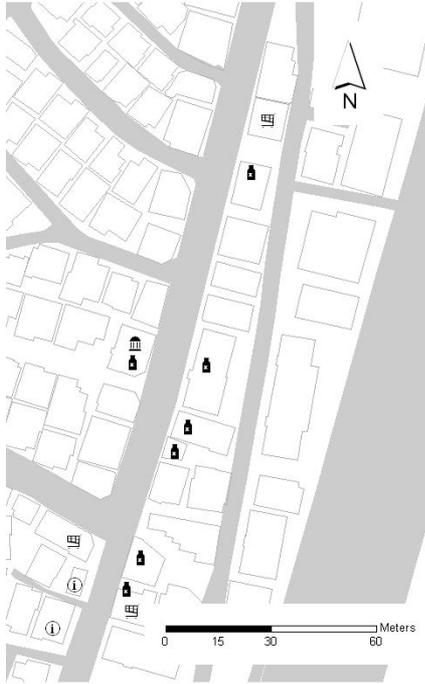
출처 : ISKCON 한국 공동체 (Hare Krishna Korea) <<http://www.krishnakorea.com>>

〈그림 21〉 '하레 크리슈나' 힌두사원

이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은 힌두교 사원 1개와 인도전문식당을 제외하면 주로 미군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특화도는 왜곡된 면이 있다.

〈표 6〉 이태원 인도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판매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기타	합계
이태원 인도거리	53.8	23.1	15.4	7.7	100
전체평균	37	0.3	0.2	62.5	100
특화도	1.45	77.00	77.00	-	-



Ⓜ	공공	Ⓜ	무역	Ⓜ	여가	Ⓜ	제조
Ⓜ	교육	Ⓜ	수리	Ⓜ	운송	Ⓜ	소매 판매
Ⓜ	근린생활	Ⓜ	식음료	Ⓜ	전문판매		
Ⓜ	금융			Ⓜ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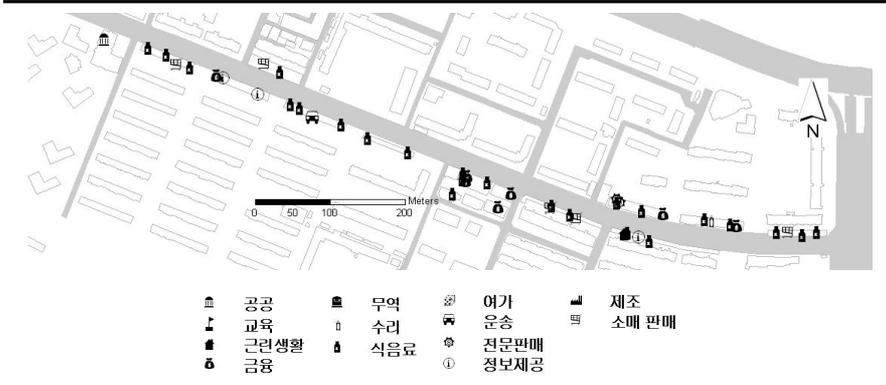
(4) 이촌동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이촌동길을 중심으로 ‘리틀도쿄’라고 불리는 일본인 커뮤니티가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생겨난 마을⁶⁹⁾로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주요거리 조사결과, 특정한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업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9) 노정연, <동네이야기> 박물관 구경하고 ‘리틀도쿄’ 즐겨볼까... 이촌동 나들이, 레이디경향, 2009년 6월호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10&artid=12587>>

〈표 7〉 이태원 인도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합계
이태원일본	37.8	27	10.8	24.4	100
전체평균	37	13.7	0.5	48.8	100
특화도	1.02	1.97	21.60	-	-



2) 중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서울의 도심인 중구에는 명동의 중국인 거리, 광희동의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촌 등 3개의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1) 명동

명동의 중국인 거리는 서울 도심부 남대문로 인근에 위치한 우편집중국 뒤편의 '명동서길'로 구 중국대사관 중심으로 하는 400m 정도의 T자형 거리이다. 이곳은 과거 대만대사관과 한성 소학교 등 화교 관련시설들이 위치한 화교의

중심지였으나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인들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2006년 중국 대사관이 안국동으로 이전하면서 구심점이 약해져 현재는 중국인 거리로서 그 역할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표 8〉 명동 중국인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금융지원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음식점업	기타	합계
명동 중국인 커뮤니티	26.1	26.1	21.7	26.1	100
전체평균	2.2	4.4	37	56.4	100
특화도	11.86	5.93	0.59	-	-

(2) 광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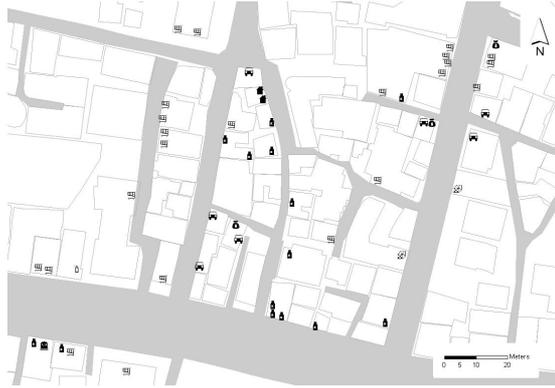
동대문 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광희동에는 몽골인들을 위한 ‘몽골타운’과 구조련연방 출신 중앙아시아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촌’ 등 2개의 커뮤니티가 인접하고 있다.

몽골타운은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1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별우물길’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대문에 몽골 및 러시아 상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⁷⁰⁾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뉴급호타워라는 상가건물은 ‘몽골타워’라 불리며 미용실, 식료품, 화장품 전문점, 운송업체, 환전가게, 사설 송금업체 등 70여 개의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다.



중앙아시아촌은 몽골타운의 주가로인 별우물길 일부와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7번 출구 인근의 마른내길에 이르는 200여 m의 길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보따리상들이 동대문 일대 의류시장을 오가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은 1990년대까지도 매우 활성화되었으나 현재는 상권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다.

70) 동아일보, <수도권> 우리 동네 작은 외국 <4> 광화문 몽골타운, 2007.9.17



- | | | | |
|------|-----|------|-------|
| 공공 | 무역 | 여가 | 제조 |
| 교육 | 숙박 | 운송 | 소매 판매 |
| 근린생활 | 음식점 | 전문판매 | |
| 금융 | | 정보제공 | |



3) 종로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1) 혜화동

혜화동 ‘마닐라 거리’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 혜화동 성당 앞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열리는 장터 형태의 커뮤니티이다. 이곳은 1995년 필리핀인들이 종교적 행사를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매주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관례)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도 혜화동 성당 앞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필리핀인들을 위한 작은 시장이 열린다.

(2) 창신동

창신동에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을 중심으로 네पाल인 거리와 중국인 거리 두 개의 커뮤니티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네पाल거리는 2000년 경 네पाल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네पाल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71) 중앙일보, 서울 속의 ‘작은 외국들’, 이국적 장소에 가다, 2010. 6. 17

모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며 음식점·잡화점 등이 추가적으로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네팔인들에게 식당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공간⁷²⁾으로 거의 모든 커뮤니티 내 활동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개인주의적이고 인터넷 등 정보활용과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네팔인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강한 결속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표 9〉 창신동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합계
창신동	66.7	27.8	5.6	-0.1	100
전체평균	37	3.7	0.3	59	100
특화도	1.80	7.51	18.67	-	-



72) 오경석 외,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2007 p.195

또 다른 커뮤니티인 중국인 거리는 창신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 10여 개의 상점들이 한국 상점 사이에 드문드문 위치하고 있는 신생 커뮤니티로 보인다. 이들은 외부인과의 대화를 매우 꺼리고 경계하는 태도가 강해서 다른 중국 커뮤니티보다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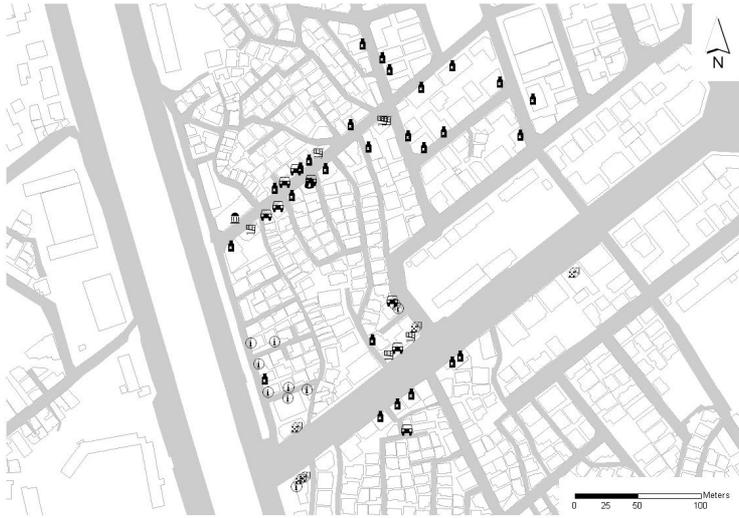
영등포구에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림 차이나타운과 이곳에서 분리되어 새로 형성된 신길 중국인 거리 등 2개가 형성되어 있다.

(1) 대림동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2호선 대림역과 대림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가리봉동 엔벤거리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확산·분화된 재중동포 커뮤니티이다. 이곳의 중국인 관련 시설은 가리봉동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음식점 수가 월등히 많고 정보제공업이 발달한 반면, 노래방 등의 수가 현저히 적다. 즉, 소비와 유희 중심의 상업시설보다는 생활 및 취업관련 상업시설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대림동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대림동 커뮤니티	69.8	15.1	3.8	11.3	100
전체평균	37	3.1	4.4	55.5	100
특화도	1.89	4.87	0.86	-	-



- | | | | | | | | |
|----|------|----|------|---|------|---|-------|
| Ⓜ | 공공 | Ⓜ | 무역 | 🚗 | 여가 | 🏭 | 제조 |
| 🎓 | 교육 | 🏠 | 수리 | 🚗 | 운송 | 🏪 | 소매 판매 |
| 🍽️ | 근린생활 | 🍽️ | 식음료 | 📄 | 전문판매 | | |
| 🏠 | 금융 | ① | 정보제공 | | | | |



(2) 신길동

신길동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재중동포 중심의 커뮤니티로 7호선 신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림동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 나간 성격의 커뮤니티로 아직 신생지역이므로 소수의 식당만 분포하고 있으며, 배후주거지와 상업시설을 연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확장되면 신길동의 재중동포 커뮤니티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는 아직 중국 관련 업소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반 한국인을 상대하는 수리업이나 부동산업이 발달해 있다.

〈표 11〉 신길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기타	합계
신길동	53.8	15.4	7.7	23.1	100
전체평균	37	3.7	0.3	59	100
특화도	1.45	4.16	25.6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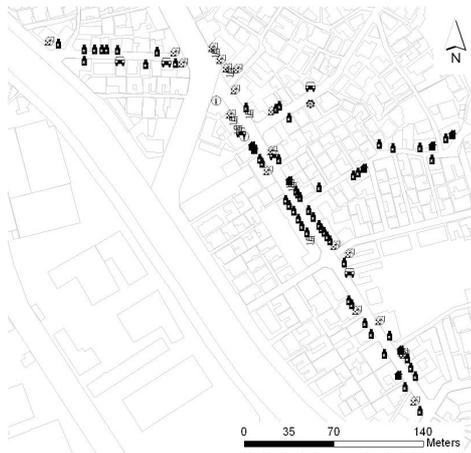
5) 구로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가리봉 ‘엔벤거리’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의 가리봉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주요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로 성장하였다. 커뮤니티 구성원인 한국계 중국인들은 주로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단순한 노무직 취업을 위해 입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일정기간 거주하였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커

뮤니티 내에서 서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⁷³⁾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로 인하여 해체될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지역인 독산동, 대림동, 신길동 등으로 커뮤니티가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거리 조사결과 커뮤니티가 주거 목적의 정주성을 가지기보다는 같은 동포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락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독산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전자계임장 운영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	합계
가리봉 커뮤니티	43.3	16.5	10.3	29.9	100
전체평균	37	3.1	13.7	46.2	100
특화도	1.17	5.32	0.75	-	-



- ☰ 공공
- ☰ 무역
- ☰ 여가
- ☰ 제조
- ☰ 교육
- ☰ 수리
- ☰ 운송
- ☰ 소매 판매
- ☰ 근린생활
- ☰ 식음료
- ☰ 전문판매
- ① 정보제공
-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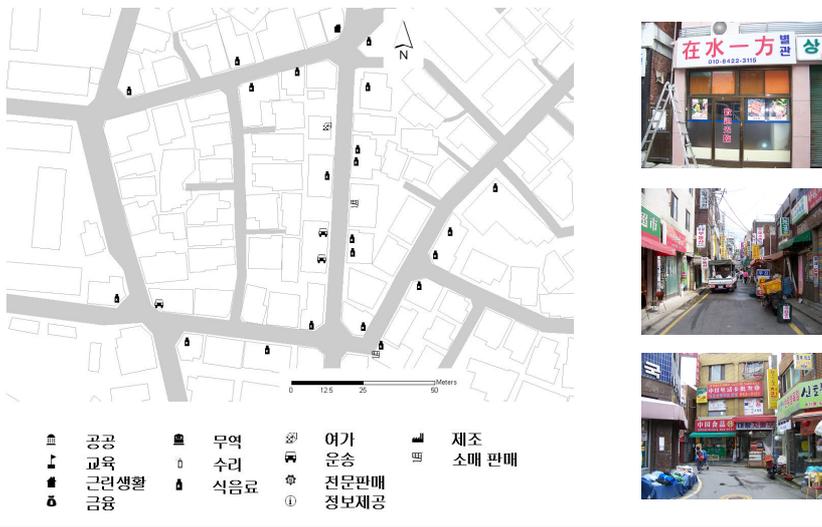
73) 박세훈 외 3인, op., cit., p.141

6) 금천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는 독산동 남문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리봉동 엔벤티거리 및 대림 차이나타운의 수용력 부족으로 일부 재중동포들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아직 인근의 엔벤티거리나 대림 차이나타운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다. 주요거리 조사 결과 음식점업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독산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기타	합계
독산동 커뮤니티	67.9	7.1	7.1	17.9	100
전체평균	37	13.7	3.7	45.6	100
특화도	1.84	0.52	1.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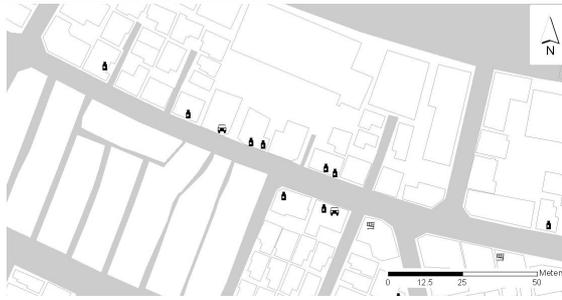
7) 관악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봉천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의 봉

천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리봉동 엔벤티거리나 대림 차이나타운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게 되자, 일부 재중동포들이 인근지역으로 분리되어 나온 형태로서 커뮤니티 형성의 초기 단계이다. 거리는 아직까지 중국식 상점들과 한국 상점이 혼재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계 커뮤니티의 특성상 음식점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소매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4〉 봉천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봉천동 커뮤니티	60	20	13.3	6.7	100
전체평균	37	3.7	4.4	54.9	100
특화도	1.62	5.41	3.02	-	-



- [Icon] 공공 교육
- [Icon] 무역
- [Icon] 여가 운송
- [Icon] 제조
- [Icon] 근린생활 금융
- [Icon] 수리
- [Icon] 전문판매
- [Icon] 소매 판매
- [Icon] 음식점
- [Icon]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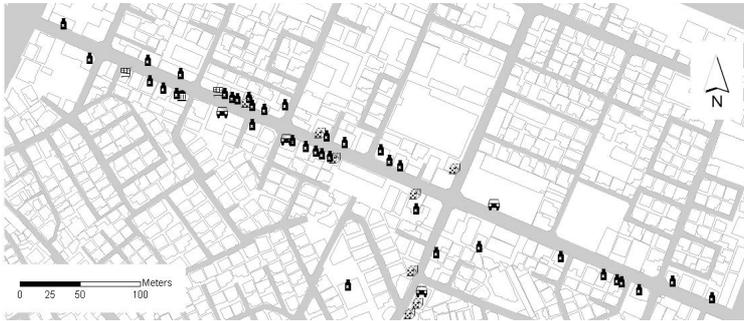
8) 광진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광진구 노유동에 위치한 노유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100m 거리인 노른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강남 및 도심에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거리 조사 결과 음식점 등의 분포가 높은 가운데 전자게임장 운영업 등이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매우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5〉 노유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노유동	69.8	15.1	3.8	11.3	100
전체평균	37	3.1	4.4	55.5	100
특화도	1.89	4.87	0.86	-	-



- ☰ 공공 교육
- ☰ 근린생활 금융
- ☰ 무역 수리
- ☰ 음식점
- ☰ 여가 운송
- ☰ 전문판매 정보제공
- ☰ 제조
- ☰ 소매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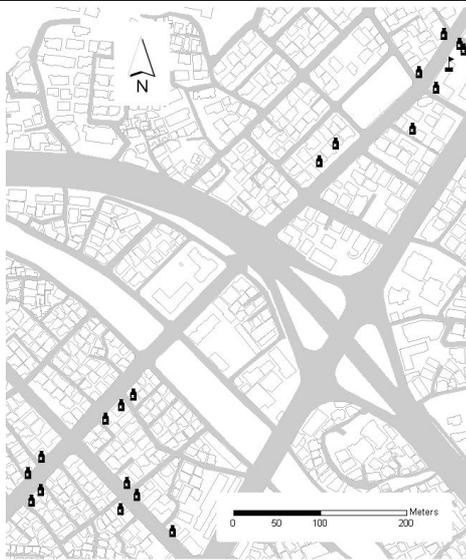
9) 서대문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 등 2개 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연희 차이나타운은 화교계 중고등학교인 ‘한성화교 중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형성된

커뮤니티로 화교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국 식 거리로 변하였다⁷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출신 서울시민들은 정착 역사가 오래되어 대부분 한국 사회에 깊이 동화되어 있으므로 그들만을 위한 시설들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⁵⁾ 주요거리 조사결과 음식점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식당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연희동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음식료업 및 담배소매업	일반교습 학원	기타	합계
연희동	90	5	5	0	100
전체평균	37	2	0,6	60,4	100
특화도	2,43	2,50	8,33	-	-



- ☰ 공공
- ☰ 무역
- ☰ 여가
- ☰ 제조
- ☰ 교육
- ☰ 수리
- ☰ 운송
- ☰ 소매 판매
- ☰ 근린생활
- ☰ 식음료
- ☰ 전문판매
- ☰ 정보제공
- ☰ 금융

74) 홍석기 외, 서울시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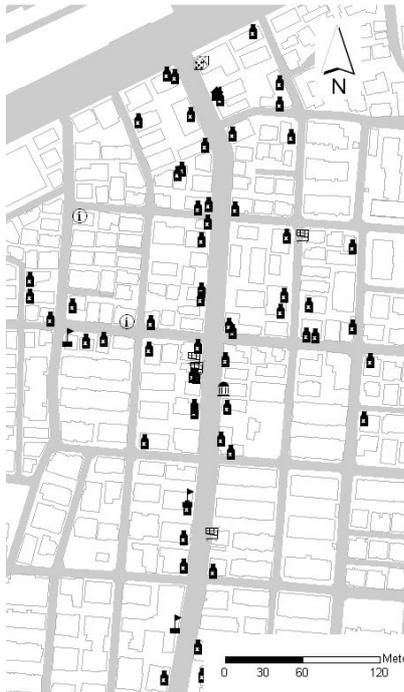
75) 홍석기 외, 서울시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115

10) 서초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인 밀집지역인 서래마을은 반포4동과 방배본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84년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프랑스 학교가 이전하면서 형성된 커뮤니티로 주한 프랑스 기업의 직원과 가족, 대사관 직원

〈표 17〉 방배동 프랑스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기타 교육기관	기타	합계
서래마을	45.7	34.3	4.3	15.7	100
전체평균	13.7	37	0.8	48.5	100
특화도	3.34	0.93	5.38	-	-



- ☰ 공공
- ☰ 무역
- ☰ 여가
- ☰ 제조
- ☰ 교육
- ☰ 수리
- ☰ 운송
- ☰ 소매 판매
- ☰ 근린생활
- ☰ 식음료
- ☰ 전문판매
- ☰ 금융
- ① 정보제공

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시설 70개가 주가로인 서래로를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6%가 식음료와 관련되어 있다. 주가로에 분포하고 있는 시설을 분석하면 특정 업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음식점업이 음료점업에 비하여 3배 정도 높게 특화되어 있으며, 이곳이 내국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적 명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11)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성동구는 성수공단이라는 공장 밀집지역으로 비OECD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600여 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동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는 인근 공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인근에 위치한 식료품점과 식당을



중심으로 베트남인들이 모여 산다. 베트남인은 몽골인이나 중국인들과 달리 집단 거주지나 상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는다.⁷⁶⁾ 따라서 이 지역의 주요거리 조사 결과 베트남 관련 시설들이 밀집하는 특성을 찾을 수는 없다.

12)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5km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들과는 다른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일대는 1960년대까지도 숲이 울창한 지역이었으나, 1970년 초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이 대사관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⁷⁷⁾ 대사관저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었다. 외국출신주민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OECD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이므로 조사되었다. 지역 자체가 상류층 거주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커뮤니티보다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류나 소비생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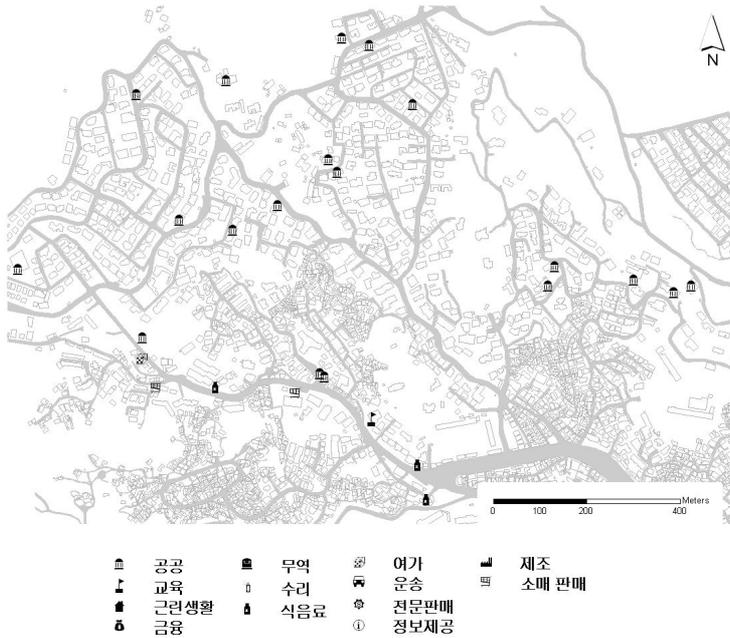
커뮤니티 내 주요거리 조사결과 대사관저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외무 및 국방행정’과 ‘공공기관’이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성북동 다국적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외무 및 국방행정	공공기관	음식점업	기타	합계
성북동	61.5	11.5	7.7	19.3	100
전체평균	3.5	1.3	37	58.2	100
특화도	17.57	8.85	0.21	-	-

76) 오경석 외,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2007, p.157

77) 조성관 외, <서울>성북동 ; 600년 역사 숨쉬는 서울의 ‘베버리힐스’, 주간조선, 2003. 2. 20



13) 강남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강남구에는 많은 외국출신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특정한 지역에 외국관련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밀집하고 있다거나 밀집된 주거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단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한 역삼빌리지센터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빌리지센터 인근에도 특정한 외국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커뮤니티는 이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1. 서울특별시 외국출신주민지원 전체 125개 사업

(1) 2010년 서울시 공통사업 (국비·지방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2009	2010	비고
적극적인 개방(2)	188.18	28.34	
새주소도로명판 외국어 표기	158.00		전년도 예산 이월국비 50%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30.18	28.34	국비 70%
질 높은 사회통합(10)			
외국출신주민 거주실태조사 실시			비예산 사업
결혼이민자 및 외국출신주민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0.05	0.05	국비 73%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및 우리 문화 역사 체험	0.31	0.34	국비 100%
성인·외국출신주민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0.64	0.71	국비 1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80	11.70	국비 50%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4	2.22	송파구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그램	0.15	0.85	용산구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정서지원	0.05	0.50	국비 5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실시(아동양육지원)	11.46	20.30	국비 50%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0.22	0.28	국비 50%
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1)	13.91	16.22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3.91	16.22	국비 50%
합계(13)	219.21	81.51	

출처 :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 2010년 서울시 자체사업(지방비 100%)

〈단위 : 억 원〉

사업명	2009	2010	비고
적극적인 개방(40개)	1,741.07	302.29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 지원	15.20	12.96	
외국출신주민 유학생 인턴십 운영	0.47	0.86	
몽골학교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0.01	0.02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건강검진	0.04	0.04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사업	0.09	0.12	
외국출신주민근로자 무료진료	0.41	0.25	
외국출신주민근로자센터 운영 지원	8.19	20.20	
eFM 방송제작 제공 확대(TBS 교통방송 라디오국)	29.07	28.58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운영	8.42	8.50	
다문화 빌리지센터 설치	7.67	4.06	
서울 문화교류 관광정보센터 운영	3.36	4.80	
서울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2.73	2.82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1.00	1.10	
영문 월간지 SEOUL 발행	1.00	1.00	
외국어 생활고지서 확대 추진(영·중·불·일어)			
외국출신주민 감동프로젝트(서울시)		1.00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0.25	0.25	
외국출신주민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운영	0.01	0.01	
중문 월간지 ‘你好’,首尔니하오 서울 발행	1.50	1.50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0.12	0.13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0.08	0.11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1.40	1.40	
서울글로벌센터 설치 및 운영	30.91	28.01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강서구)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0.06	0.67	
다문화빌리지센터 보건사업(영등포구보건소)		0.04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서울 문화체험	1.80	1.80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도봉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노원구)			
외국출신주민 조성 및 인프라 구축(노원구)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관리지원 사업	0.01	0.01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2.39	2.57	

사업명	2009	2010	비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10월)	0,20	0,20	
외국출신주민 의료서비스 향상	0,06	0,52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관리	0,08	0,08	
외국출신주민 관광택시 도입	14,00	15,86	
서래로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10,00	
서울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46,00	106,00	
외국출신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4,19	4,19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교역환경 개선(외국출신주민학교)	1,560,35	42,63	20개교
질 높은 사회통합(72개)			
다문화이해교육	0,01	0,02	영등포구
한국문화 이해 특강	0,01	0,01	영등포구
지역생활 안내 책자 제작·발간	0,09	0,09	양천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0,20	0,43	강서구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0,08	0,10	강동구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0,12	0,20	용산구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0,02	0,03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0,58	0,58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0,07	0,07	양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0,01	0,01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워크숍	0,05	0,05	영등포구
2010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0,19	0,24	중랑구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0,02	종로구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 캠프'	0,05		성북구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0,01	0,01	성북구
다문화가정 축제	0,20	0,20	광진구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실시	0,22	0,15	관악구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0,12	문화체험행사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축제	0,10	0,14	노원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0,02	0,06	양천구
다문화가족 문화교실(금천구)		0,10	'10년 신규사업
외국출신주민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0,14	0,14	구로구
세계인의 날 다문화 행사 지원	0,20	0,32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한국문화체험 지원	0,05	0,05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참여활동	0,01	0,01	영등포구
자조집단 모임 육성 및 지원			비에산사업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0,03	0,03	강북구

사업명	2009	2010	비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0.20	은평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실 운영	0.01	0.02	강북구
다문화 음식 축제	1.50	1.29	성북구
한국 전통문화 체험	0.04	0.04	양천구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	0.11	0.11	동대문구
한국전통문화 체험행사	0.05	0.05	영등포구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최	0.15	0.20	서초구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0.09	0.15	광진구
지구촌 한마당 행사	5.00	5.00	서울시민의날
외국출신주민 생활가이드북 제작	0.10	0.08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0.45	0.62	중구
결혼이민자가정 친정엄마 되어주기	0.02	0.02	구로구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다문화가족지원사업)	1.40	1.40	양천구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사업	0.04	0.05	노원구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0.42	0.42	강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개최	0.02	0.02	구로구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0.08	0.08	중구
다문화가정지원사업	0.05	0.06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0.34	0.16	성동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0.10	0.10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주민 지역사회 적응 교육(구로구)		0.02	'10년 신규사업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구로구)			비에산사업
한국어교실 운영(다문화가정 멘토링 운영 등)	0.01	0.01	용산구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0.03	0.05	금천구
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대상프로그램	0.05	0.05	금천구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0.04	0.04	도봉구
다문화가족 한마음캠프	0.10	0.10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광진구			비에산사업
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운영	0.07	0.12	광진구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광진구		0.06	'10년 신규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0.10	0.10	마포구
외국출신주민 거주자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	0.24	0.44	강동구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0.17	0.22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0.17	0.27	서대문구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1.50	2.30	4개구 설치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서울시)	0.55	0.35	멘토사업

사업명	2009	2010	비고
결혼이민자여성 취업교실 운영(구로구)	0,00	0,14	'10년 신규사업
다문화가족 여성 취업지원 프로젝트	0,30	0,05	서울시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0,07	0,07	도봉구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 문화 조성(서울시)			비에산사업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0,25	0,30	광진구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0,50	0,50	광진구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코디네이터 지원사업	0,92	1,00	용산구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0,05	0,05	관악구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사업	0,14	0,14	동대문구
합계(112개)	1,758,76	321,92	

출처 :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 서울시 구별 시행 프로그램 명칭

구	과	프로그램명
강남구	자치행정과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강동구	가정복지과	제6기 결혼이민 이신전심 행복 프로젝트
	자치행정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강북구	의약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의료서비스)
	자치행정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교실 운영
강서구	보건소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평생교육팀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관악구	가정복지과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실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한국어 과정 운영(간국대 언어교육원 위탁교육) 성인, 외국출신주민 문해 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다문화가정 축제 다문화가정 한국어과정 운영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보건의료과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검진
	자치행정과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운영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문화체육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구	과	프로그램명
구로구	주민생활 지원과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단체 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
	가족복지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가정 친정엄마 되어주기 구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회의 개최
	건강관리과	외국출신주민근로자 무료진료
	클린도시과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금천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문화교실(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치행정과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노원구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한국어교실)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의약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가정복지과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도봉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보건소 의약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도봉구 보건소)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희망한마당 캠프)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한국문화의 이해확대(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
마포구	교육지원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한글교실)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학습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서초구	문화행정과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최
성동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북구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각 동 자치회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가정복지과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한국문화 이해확대(성북구청, 성북문화원)
	행정국 대외 협력 지원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환경 개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보건소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송파구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구	과	프로그램명
양천구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전통문화 체험)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활성화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국제지원과	다문화이해증진(다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한국문화 이해특강)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한국문화 이해증진(외국출신주민 한문화체험 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생활가이드북 제작) 다문화이해교육강화(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외국출신주민지원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정복지과	다문화이해증진(자조집단 모임 육성 지원) 다문화가족 워크숍 한국문화 이해증진(한국 전통문화 체험)
용산구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적응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
	가정복지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한국어·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결혼이민자 행복 찾기 프로젝트)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 서울생활 지원센터 운영(용산 글로벌빌리지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은평구	주민자치과 (자치사업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보건지도과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조동 주민생활 지원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가정복지과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중구	보건소 의약과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건강검진
	보건소 지역보건과	결혼이민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 문화탐방기회 제공
	주민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 지원)
	주민생활 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 사업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중랑구	자치행정과	2010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개설)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취업지원)

출처 :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3. 구별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2010년 구 단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 실시계획이 없는 동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 구에서 실시하는 96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⁷⁸⁾

(1) 강남구

강남구는 약 1.3만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1.1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8위에 해당한다.

〈표 19〉 강남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2,832	3.8%	구 1	1.10 (23구 중) 8위

① 운영체계

강남구 자치행정과는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선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행정 및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해줄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표 20〉 강남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행정 및 각종 생활불편 해소창구 마련과 유관기관 연계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어 강좌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한국인주민 대상 외국어(영어)강좌 •전통음식 만들기·한지공예·사물놀이·탈춤·태권도·떡 만들기 등 각종 전통문화체험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2010년 신규 계획 : 한글강좌 확대,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발간, 외국출신주민 범죄예방 민원센터 운영

78) 전체 125개 사업 목록은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1을 참고. 서울시 96개 프로그램은 부록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2를 참고

또한, 지역사회에의 빠른 정착을 위한 한국어 강좌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각종 전통문화체험 및 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진행한다. 2010년에는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며 범죄예방 민원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표 21〉 강남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상담, 멘토링, 취·창업지원 •합동결혼식

② 추진체계

강남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표 22〉 강남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강남구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중앙정부	
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울시</div> 시비 100%
구	↓
수행기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div>

(2) 강동구

강동구는 7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4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13위에 해당한다.

〈표 23〉 강동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강동구 주민등록 인구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7,035	2.1%	구 2	0.54 (23구 중) 13위

① 운영체계

강동구 가정복지과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거주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한다.

〈표 24〉 강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제공(이화·강동아카데미 혹은 현장체험학습) •한국문화 쉽게 익히기 : 한국예절, 음식, 우리고장 알기 등 •가족화합 : 남편 기 살려주는 음식, 아이를 집으로 부르는 음식 만들기 등 •우리가족 건강 지키기 : 건강검진, 생활 속 요가배우기 등 •수혜인원 : 2010년 기준 60명/총 교육 횟수 22회
자치행정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 •암사1동 외 3개동 자치회관에서 한국어 강좌(암사1동, 성내2동, 천호1동, 길동) •역사, 문화체험 등으로 한국어교육 범위 확대 •수혜인원 : 1개월 당 100명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강동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는 지역 내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와 결혼이민여성의 안정된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봉사단을 조직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 강동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동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8	•강동구 및 인근지역의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결혼이민여성 등 체류외국출신주민의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 지원
강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9	•다문화가족 봉사단 조직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사회 이해교육 및 정보제공 •맞춤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지원 •외국출신주민노동자 및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결혼식 지원

② 추진체계

강동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는 구비 100%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프로그램 역시 구비 100%로 집행되고 있다.

〈표 26〉 강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중앙정부 시		
구	강동구 가정복지과 직영 구비 100%	강동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수행기관		↓ 강동구 내 4개 동 자치회관

(3) 강북구

강북구는 약 5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7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11위에 해당한다.

〈표 27〉 강북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강북구 주민등록 인구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5,099	1.5%	구 3	0.57 (23구 중) 11위

① 운영체계

의약과 건강검진팀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쓴다. 현재 26개인 외국출신주민 진료기관 수를 50개소로 확대하며, 동역서비스와 함께 외국어로 된 진료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한다. 자치행정과는 거주 외국 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행사를 연 1회 진행하며,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8〉 강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의약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진료기관 활성화(현 26⇒50개소로 확대) •보건소, 의·약국 이용 외국출신주민 대상 동시통역 서비스 실시 •외국어로 의료기관 및 진료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자치행정과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하반기에 강북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문화탐방 및 전통음식 체험 •관내문화재, 순국선열 묘역 견학 및 문화공연 관람 •수혜인원 : 50명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예절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석명절을 맞이해 한국의 전통예절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이해와 적응을 돕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주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도록 일조 •강북문화원 전임강사의 지도로 추석 차례상차리기, 송편 만들기, 한복 입는 법, 다도, 다식, 전통 절 등 예절교실 운영 •수혜인원 : 30명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생활 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9〉 강북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언어발달 진단 및 한글교육 •방문서비스(한국어, 아동양육, 임신 출산지원) •센터사업(한글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컴퓨터교육, 매월 3번째 수요일에 패밀리 데이 행사, 상담 등)

② 추진체계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모든 예산이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강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의약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체험 한마당)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예절교실 운영
중앙정부 시			
구	강북구 의약과 검진팀 구비 100%	강북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강북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4) 강서구

강서구는 9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85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8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강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9,090	2.7%	구 3	0.85 (23구 중) 8위

① 운영체계

강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여성 이민자가 검진팀 건강검진실에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2010년부터는 여성이민자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검사 항목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마스 같은 화합 축제를 지원한다.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서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강좌와 생활요리교실, 박물관 견학 등 교육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표 32〉 강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보건소 의약과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위한 건강검진 실시 • 혈압측정 및 체위검사(혈압, 신장, 체중, 시력, 비만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 '09년 사업의 개선할 부분 : 대상자 자료 불충분, 적극적 홍보부족, 일반적인 검진으로 정확한 질병측정 미흡 • '10년 추가된 부분 : 자녀에게도 검진 확대, 검사항목 추가(골밀도, 동맥경화 협착증 검사 등)
가정 복지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화합축제 및 민간단체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 강사양성 교육, 경제교실 운영 • 화합축제(아름다운 동행, 크리스마스 축제) • 수혜인원 : 300명
교육 지원과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강좌 5개 반 연중운영 • 생활요리교실 연 2회 운영 • 박물관 견학 및 지역축제 참여 • 수혜인원 : 140명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출신주민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다문화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표 33〉 강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방문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다문화 인식 개선

② 추진체계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은 모든 예산이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강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보건소 의약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검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예절교실 운영
중앙정부			
시			
구	구 단독/비 예산 사업 (건강검진, 구 의료비에서 포괄집행)	강서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강서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5) 관악구

관악구는 2.2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41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관악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22,201	4.2%	구 3	3.41 (23구 중) 3위

① 운영체계

관악구 가정복지과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6〉 관악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급 단계별 한국어과정(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위탁)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한국문화체험이 없는 20가정을 대상으로 고궁이나 남산 등 문화체험)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30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서울대 학생과 1:1로 연결하여 정서지원, 생활지도)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취학 전 유아 기본 학습능력 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지도 전문기관에 위탁(2010.2월 관악구 홈페이지, 다문화사업 추진기관, 관악새소식 등을 통해 홍보, 모집) •독서지도사가 주1회 미취학 아동의 가정 방문 후 독서지도 •수혜인원 : 아동 13명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다문화 축제 : 2010년 6월 다문화음식 체험 및 공연 •문화체험 : 고궁이나 남산 등 문화체험

관악구 외국인지원기관인 남부교육센터는 교육, 관악구 건강지원센터는 건강과 체험학습,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 및 지역공동체사업, 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 여성 교육과 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37〉 관악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남부 교육센터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문해)학교 : 지역성인 기초 한글교실 •이주여성학교(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노래배우기) •여성학교 '오름' : 기초인문학, 기초외국어 과정
관악구 건강 가정 지원센터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4회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국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전통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명절음식 및 김장김치 만들기, 도예마을
봉천 종합 사회복지관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네트워크 통합 지원 사업 '아름다운 동행' •한국어교육, 자조모임(생활 나눔 및 육아정보 교환), 멘토링(한국인과 1:1결연), 긴급지원 등 •지역공동체 '신나는 지역여성자원봉사단' 조직
선의 관악 종합 사회복지관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가정 여성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② 추진체계

관악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중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지원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구비 자체조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관악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취학 전 유아 학습지원)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축제 개최)
중앙정부	중앙정부 국비 50%		
시	서울시 시비 50%		
구	↓ ↓ ↓	관악구 가정복지과 구비 (여성발전기금) 100%	관악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서울대 언어교육원 100%		

(6) 광진구

광진구에는 1.4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며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다. 구 운영 프로그램은 10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2.4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4번째로 많다.

〈표 39〉 광진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4,747	4.4%	구 10	2.40 (23구 중) 4위

① 운영체계

광진구는 5개 과에서 다문화 지원 사업을 분담한다. 우선 교육지원과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교육 강화, 성인·외국출신주민 문화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자치행정과는 다문화가족 여성 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프로그

〈표 40〉 광진구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지원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및 우리문화 역사체험 •건국대 언어교육원 위탁, 한글강좌,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강의(6개반) •수혜인원 : 90명
	성인, 외국출신주민 문해 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기초 문자해독 교육을 실시.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와 정체성 확립을 도움 •동부 밀거름학교 외 7개 기관에서 수행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 (다문화가정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2010년에는 10월) 광진 구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 축제 •거리퍼레이드, 다문화전시관 및 체험, 노래자랑, 고국에 사랑의 편지보내기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동 및 구의1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한글·문화교육 •수혜인원 : 광진구 결혼이주자 1,205명 •비 예산 사업(공공근로자 사용)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한 몽골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환경개선 및 면학 분위기 조성 •급식시설 및 기숙사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비품 구입
보건 의과과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외국출신주민 재한 몽골학교 학생,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실시 •수혜인원 : 2010년 281명
자치 행정과	자치회관 (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동 자치회관(지양4동, 화양동, 능동, 구의1동)에서 레벨테스트를 통한 초급, 중급별 한글교육 및 문화교육 •2010년 계획 : 역사·문화체험 등 교육범위 확대,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내실화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교류 공간이 없는 다문화 가족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정 보를 서로 공유하여 조기적응 향상 •다문화가족의 친목도모, 공동체문화 조성 •수혜인원 : 월 355명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1식 3,500원) (66명 X 3,500 X 20일 X 12개월)
문화 체육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 : 한국 나담 축제(몽골의 가장 큰 전통축제를 한국에서 재현), 몽골 문화 한마당 •지구촌 한가족 운동본부 : 외국출신주민 국토문화탐방, 국제학생 봉사사업, 외국출신주민 문화예술 축제

램을 운영하고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족 컴퓨터운영과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과는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는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담당한다.

광진구의 세종교육센터는 내·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동부 밑거름학교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한글강좌, 그리고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몽골학교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 광진구 외국인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세종 교육센터	2007	•일반시민, 결혼이민자, 이주근로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7개 과정 운영
동부 밑거름학교	1968	•이주여성 한국어교실(1년 과정) •공동체 및 문화 활동 •상담
건국대 언어교육원	1990	•한글강좌, 한국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 (광진구 교육지원과 → 건국대 위탁)
광진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몽골학교 예절교육 외 가족지원 프로그램

광진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 종교관련 기관은 나섬공동체 내 단체들로, 교육 및 선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몽골문화원, 나섬다문화생태마을, 나섬어린이집 운영)

〈표 42〉 광진구 종교단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종교단체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1999	•몽골 학제를 따라 초·중·고 12학년제로 몽골어, 몽골역사 외 기타 영어, 한국어 등을 수업함
나섬공동체 (나섬다문화학교)	2006	•한국거주 이주민들이 강사가 되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의 문화 소개
나섬공동체 (서울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선교회)	1996	•한국에 온 외국출신주민 근로자들을 선교하여 자국으로 역 파송하는 선교회
나섬공동체 (나섬교회)	1996	•국가별 언어로 예배·각종 행사

② 추진체계

광진구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사업 가운데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이해,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등 3개 프로그램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관이나 전문교육기관인 대학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광진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1

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보건의료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자치회관(주민 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중앙정부			
시			
구	광진구 교육지원과 구비 100%	보건소 보건의료과 구비 100%	광진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
수행기관			4개 동 자치회관 100%

〈표 44〉 광진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취학 전 유아 학습지원)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축제 개최)
중앙정부		중앙정부 국비 100%	
시		↓	
구	광진구 교육지원과 구비 100% ↓	↓ ↓ ↓	광진구 교육지원과 구비 100%
수행기관	건국대 언어교육원 100%	동부 밀거름학교 외 6개 기관 100%	

〈표 45〉 광진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3

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심터운영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중앙정부 시			
구	광진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광진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광진구 문화체육과 구비 100% ↓ ↓
수행기관			몽골 올림바타르 문화진흥원 지구촌 한마음 운동본부

(7) 구로구

구로구는 3.4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0.2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구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34,408	10.29%	구 7	0.57 (23구 중) 11위

① 운영체계

주민생활지원과는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단체 문화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며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도 실시한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 및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보건소 주관 하에 구로사랑봉사대와 구로의료기관 등과 공동 전개한다. 방식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수시 진료이다.

클린도시과는 무단투기 단속자 중 70% 이상을 외국출신주민으로 구성하여 가리봉동, 구로동 등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47〉 구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주민 생활 지원과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 •참여인원 : 10,000명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배출요령 교육 •외국출신주민이 간과하기 쉬운 불법행위, 범죄예방 대책 교육 •방문취업제도, 사회통합 이수제 교육 •수혜인원 : 500명
가족 복지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교실 운영(컴퓨터, 미용, 조리 등)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결혼이민자 가정 여성의 친정엄마가 되어 함께 외로움 극복 돕기, 전통문화 체험
	구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사책 자문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또는 필요시 회의 개최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지원 사항 논의
건강 관리과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무료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한 무료진료 수시 실시 •보건소 주관 하에 구로사랑봉사대와 구로의료기관 등과 공동 전개 •수혜인원 : 2010년 330명
클린 도시과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및 중국어로 된 쓰레기 배출 홍보물, 안내테이프 배부 •3개 국어로 된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부착 •무단투기 집중 계도 및 단속

구로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총 5개로 주로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 및 간식 제공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표 48〉 구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한국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센터	2004	•상담, 교육, 각종행사, 무료진료 •미디어(이주민방송 MNTV, 다국어뉴스레터 Migrant OK, 이주민 실무자 네트워크 Migrant.kr, 소식지 무지개)
구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가족단위 교육, 상담, 가족 친화문화 조성사업
화원 종합사회복지관	2005	•센터 내 '꿈이 있는 국제가족지원센터' 운영 •상담, 교육, 사회적응, 자녀교육 및 양육, 자조모임, 자원 •봉사단 조직, 인식개선 문화제 및 캠페인 실시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전용 의원	2004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 차원을 넘어서 치료 제공 •일반외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이비인 후과, 한의학과 및 주말진료
(사) 한국 이주노동자 복지회	-	•푸드뱅크 사업(제빵 제과 등 식품회사의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간식 및 부식 전달) •상담, 한국어, 컴퓨터교육, 무료강좌(수족요법, 뜸 등)

구로구에 있는 종교단체 가운데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는 개신교 교단으로 종교와 상담, 그리고 한국 적응을 위한 기본 교양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49〉 구로구 종교단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종교단체	설립연도	프로그램
서울 조선족 교회	1999	•예배, 조선족 커뮤니티, 한방 및 치과진료, 미용봉사, 쉼터 •인권상담(결혼이민자, 국적, 영주권, 산재, 임금체불)
한중 사랑 교회	2001	•예배, 성경공부, 무료진료, 민원상담(법률, 출입국 등)
서울 중국인 교회	-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 우리 전통문화 전수

② 추진체계

클린도시과의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정복지과의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사업의 경우만 구로구 가족복지과에서 수행기관인 여성단체연합회로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다.

〈표 50〉 구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가족복지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구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회의 개최
중앙정부 시			
구	가족복지과 구비 100%	가족복지과 ↓ 구비 100%	가족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구로구 여성단체 연합회	

〈표 51〉 구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주민생활 지원과		건강관리과	클린도시과
프로그램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단체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무료진료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중앙정부 시				
구	주민생활 지원과 구비 100%	주민생활 지원과 구비 100%	건강관리과 구비 100%	비예산 사업
수행기관				

(8) 금천구

금천구는 2.2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6.7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2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9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표 52〉 금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22,534	6.73%	구 3	0.20 (23구 중) 19위

① 운영체계

금천구 가정복지과는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가족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자치행정과는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연 2회 실시한다. 또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관련 교육을 수행한다. 2010년부터는 외국출신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표 53〉 금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교육 실천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심점 마련 •한국어교실, 개인·가족 상담, 이중 언어교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결혼 이민자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자치행정과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가족 문화체험학습('10년 2회, 80명 참가) •외국출신주민에게 우리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제공 •체험 참가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효과 증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대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연 12회) •주민과 외국출신주민이 함께하는 한글교실(자원봉사자 이용) •'10년 보완된 부분 : 외국출신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참여 유도, 외국출신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과 연계학습 실시 •수혜인원 : 2010년 100명

금천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총 4개로 주로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 자원봉사센터 등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는 협력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 금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금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컴퓨터 교실 •상담, 의료지원, 한국문화탐방, 김치나누기 •다문화도서관(다양한 나라의 도서 배치)
금천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진행
다문화 복지센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어린이마을(만3세~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및 다국어교육, 특기교육 실시)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초등학생 이상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방과 후 및 방학 중 학습지도와 문화프로그램 실시) •이주여성 지원센터(영화로 배우는 한국어교육 등)

② 추진체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은 구비 자체조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금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대상 프로그램)
중앙정부	중앙정부 국비 50%		
시	↓ 서울시 시비 50%		
구	↓ ↓	금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금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수행기관	금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00%		

(9) 노원구

노원구는 6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44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5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노원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6,592	1.97%	구 5	0.44 (23구 중) 15위

① 운영체계

노원구 자치행정과는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과 같은 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의약과 건강검진팀은 노원구 보건소의 건강검진실과 의약과 의무팀을 통해 진료편의를 제공한다. 건강검진실에서는 거주 외국출신주민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의약과 의무팀에서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진료에 어려운 환자는 지역사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를 확립한다.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결혼이민여성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표 57〉 노원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 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한국어교실(총 5개 민간기관 연계 위탁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자조모임 동아리 활성화 •수혜인원 : 250명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원구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다문화주간행사 실시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행사 : 노원 거리 Art Festival, 각종 축제 프로그램에 거주 외국출신주민 초청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축제 : 난타공연, 유공자 표창, 다문화 의상체험, 다문화 홍보 등 •거주 외국출신주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의약과 건강 검진팀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공공의료 제공 •혈압 및 체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실시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환경 조성(외국어매뉴얼 개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 확립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관내 종합병원에 진료 연계
가정 복지과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여성과 자원봉사자의 1:1 멘토링 추진 •수혜인원 : 22명

노원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총 3개로 주로 교육 및 상담, 그리고 한국 문화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58〉 노원구 외국출신 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교육사업,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실 '우리말나무' 개강(초급) •컴퓨터교실 '다문화월드' 개강 - IT서포터즈 후원 •한국어교실 '우리말나무' 중급 TOPIK 대비반 개설
월계 종합 사회 복지관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주부 20명에게 한글교육 •문화체험(봄, 가을 나들이)
중계 종합 사회복지관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교육 및 체험지원(한국어 초·중급, 한국요리교실, 한국문화 체험 교실 'Love Korea!') •부부교육 및 상담, 가족나들이, 법률 상담 교육 •다문화 강사양성 '문화알리미' 교육

② 추진체계

비예산 사업인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노원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중앙정부			
시			
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노원구 자치행정과</div> 구비 100%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동 주민센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노원구 자치행정과</div> 구비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노원구 가정복지과</div> 구비 100%
수행기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총 5개 민간기관</div>		

〈표 60〉 노원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의약과 건강검진팀	
프로그램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행정안전부</div> ↓	
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서울시</div> ↓	
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노원구 보건소 의약과</div> 비 예산 사업	구 단독/비 예산 사업
수행기관		

(10) 도봉구

도봉구는 4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11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22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 도봉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4,090	1.22%	구 3	0.11 (23구 중) 22위

① 운영체계

도봉구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프로그램은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된다. 의약과 건강검진팀은 도봉구 보건소를 통해 외국출신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한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출신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전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의 효과가 기대되며, 일반주민 무료검진 지원비용에 포함되므로 비예산 사업이다.

〈표 62〉 도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미용교육 및 취·창업 지원(네일 아티스트 양성과정, 메이크업 전문 아티스트 양성과정), 수혜인원 : 250명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초·중·고급 수준별 수업) •배우자, 시부모 등 동반가족에 대한 교육사업 실시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멘토 & 멘티사업 실시 •수혜인원 : 2,500명
보건소 의약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비적용 외국출신주민에게 건강 검진 제공 •외국출신주민 진료 안내 및 교육 : 보건소, 의료기관, 다국어 안내 시스템 이용법, 전염병 예방교육 등, 수혜인원 : 68명

② 추진체계

비예산 사업인 보건소 의약과의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구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 도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의약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중앙정부 시			
구	도봉구 가정복지과 ↓ 구비 100%	도봉구 가정복지과 ↓ 구비 100%	비 예산 사업
수행기관	민간기관 위탁추진	도봉구 건강지원센터	

(11)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1.4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2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35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6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4,381	4.29%	구 3	0.35 (23구 중) 16위

① 운영체계

동대문구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국문화의 이해 등 확대 프로그램 2건, 다문화가족의 생활기반 조성확대 프로그램 1건 등 총 3건의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한국문화 이해 확대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희망하마당 캠프로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한다. 추진 주체는 동대문구로 매해 8월 캠프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핸드페인팅, 천연염색, 허브비누 만들기)과 가족장기자랑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한국문화 이해 확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사업으로 유적지 등 한국문화 탐방기회 제공으로 가족 간 친화력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이질감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였다. 장소는 관내 유적지이다. 다문화가족의 생활기반 조성 확대 프로그램은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함으로써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표 65〉 동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희망한마당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캠프개최 •전통문화 체험(핸드페인팅, 천연염색, 허브비누 만들기) •가족한마당(가족 장기자랑) •수혜인원 : 80명
	한국문화의 이해 확대 (다문화가족 꿈나무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적지 등 한국문화 탐방의 기회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수혜인원 : 80명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1,000부 제작 •주거, 교통 등 일반생활정보, 건강·의료서비스 정보 수록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담 및 봉사 그리고 지역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66〉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국가에서 온 26명의 주부로 구성된 '우리동네 행복 메아리' 합창단 창설(음악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각종 공연과 봉사활동) •'다문화 해피콜센터'(8개국 출신 코디네이터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

② 추진체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3개 사업 모두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동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희망한마당 캠프)	한국문화의 이해 확대 (다문화가족 꿈나무양성)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중앙정부			
시			
구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12) 마포구

마포구는 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15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21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 마포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0,882	3.25%	구 2	0.15 (23구 중) 21위

① 운영체계

마포구 교육지원과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한국어 일대일 맞춤교육과 6개월 단위의 지속적인 집중교육, 외국출신주민에게 맞게 제작된 전문교재를 사용한다. 마포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 이해를 증진시켜 적응을 돕는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맺기, 치료놀이, 마포 투어, 방과 후 교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표 69〉 마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지원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및 외국출신주민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단계별 일대일 맞춤 교육, 외국출신주민에 맞게 제작된 전문교재 사용, 6개월 단위의 지속적인 집중교육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의 세분화된 영역 •수혜인원 : 40명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여가기회 제공, 한국문화 이해증진 •결혼 이민여성 친정부모 맺기, 시부모·남편 교육 •다문화가족자녀 방과 후 교실 운영 •서울·마포구 투어 •수혜인원 : 350명

마포구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기관은 대부분 취업 및 적응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70〉 마포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여성자원 금고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수강료 2만 원) •아시아 노동교실(취업교육, 적응교육, 문화 체험)
전국 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정책 전달체계로서 전국 159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기관 네트워크 협력
중부 여성 발전센터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전문 직업 교육기관

② 추진체계

마포구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국비 73%, 구비 23%로 구성되며, 가정복지과 사업의 경우 국비가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 마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총괄) 국비 73%	보건복지부 국비 100%
시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구	마포구 (사업시행주체) 구비 27%	↓ 마포구 100%
수행기관	여성자원금고 100%	

(13)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1.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9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 서대문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1,539	3.45%	구 3	0.59 (23구 중) 10위

① 운영체계

서대문구 주민생활 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측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로서 문화유적 답사,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학습은 고궁·박물관·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은 서대문구청이 서대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73〉 서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 정 복 지 과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1박 2일 캠프 운영 •문화유적 답사, 건강가정 강좌, 레크리에이션 등 제공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연 2회 고궁·박물관·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참가인원 : 200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서대문구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연 2기 운영 •초·중·예비반 각 주2회 4시간

서대문구의 민관협력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적응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74〉 서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다문화가족 초기적응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의 두 분야)

② 추진체계

서대문구청에서 실시되는 3개 프로그램은 모두 구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표 75〉 서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중앙정부 시			
구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14) 서초구

서초구는 9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1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1.6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6〉 서초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9,425	2.81%	구 2	1.60 (23구 중) 6위

① 운영체계

서초구 문화행정과에서는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서울거주 프랑스인을 비롯한 외국출신주민, 지역주민 및 예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프랑스 문화원과 프랑스 학교, 서초구 반포4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한불축제 추진위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추진한다. 이 음악축제는 전국 불문과 대학생들의 상송대회, 야외공연, 뮤직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표 77〉 서초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문화 행정과	서래 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의 국내생활 조기정착 도모 및 지역커뮤니티 구성 •민원 행정서비스, 생활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지원 •수혜인원 : 2010년 5,000명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축제 개최(아외공연, 뮤직퍼레이드 등) •프랑스어권 상송대회 지원(전국 불문과 상송대회 지원) •참가인원 : 2010년 5,000명

② 추진체계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시비로 100% 조달되며, 이외의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등은 구비 자체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서초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문화행정과	
프로그램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반포 서래 한불 음악축제
중앙정부		
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div> 시비 100%	
	↓	
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초구 문화행정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초구 문화행정과</div> 구비 100%
수행기관		

(15) 성동구

성동구는 1.1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2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16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20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9〉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0,940	3.27%	구 1	0.16 (23구 중) 20위

① 운영체계

성동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Family 캠프, 수요음악회,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선콘서트, 한국명절 음식 만들기 등이 있다.

〈표 80〉 성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Family 캠프(한국문화체험, 자연체험) •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하는 한국명절 100배 즐기기 •다문화가족 한국어 및 요리교실 •수혜인원 : 2010년 230명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성동 건강복지센터는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언어 및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81〉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성동 건강복지 센터	2002	•매주 일요일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국어, 컴퓨터교실 운영

② 추진체계

성동구청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추진은 구 단독(구비 100%)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82〉 성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앙정부	
시	
구	성동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16) 성북구

성북구는 9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9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1.58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3〉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9,860	2.94%	구 7	1.58 (23구 중) 7위

① 운영체계

성북구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성북 다문화벨리센터를 통해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담당한다. 자치행정과 내 자치운영팀에서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를 위해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가정복지과 다출산장려팀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간의 친밀감 조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한다.

대외협력지원단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성북

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성북구 홍보, 한국 전통음식 시식 및 각종 문화공연 관람지원, 생활불편사항 접수 등을 실시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010년에는 성북구 삼청각에 거주 외국출신주민 100여명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언어 및 환경적응이 어려워 산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결혼이민자 임산부들에게 출산준비 및 분만과정, 신생아 돌보기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표 84〉 성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자치 운영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2개소 동 자치회관(성북동 주민센터,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한글기초 및 말하기, 쓰기 등 무료교육
자치행정과 자치 행정팀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성북 다문화 빌리지센터)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언어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강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어린이 놀이방 등 제공(이용 인원 : 300명)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성북 다문화 빌리지센터)	•서울거주 외국출신주민의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관내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참가 인원 : 100명)
가정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09년 1박 2일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 도모 •'10년에는 사업계획 없음
	한국문화 이해 확대 (다문화 음식축제)	•세계인의 날 전후 일요일 1일간 30개국 이상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한마당 개최, 전통 문화 체험(행사 참여인원 : 15,000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결혼이민자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 제공 •이미 출산을 경험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도 교육확대 예정(수혜인원 : 120명)
대외 협력 지원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환경 개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북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을 도모 •성북구 홍보, 각종 문화공연 관람, 생활불편사항 접수 등(수혜인원 : 100명)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대부분 취업 및 적응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표 85〉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3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동 합숙기관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보육자로 24시간 상주
성북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6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북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9	•상담, 의료, 교육, 문화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② 추진체계

2009년 이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를 제외한 성북구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구 단독(구비 100%)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86〉 성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1

과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중앙정부			
시			
구	성북구 자치운영팀 구비 100%	성북구 자치행정팀 구비 100%	성북구 자치행정팀 구비 100%
수행기관			

〈표 87〉 성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가정복지과		건강관리과	행정국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한국문화 이해 확대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환경 개선
중앙정부				
시				
구	성북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성북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성북구 건강관리과 구비 100%	성북구 행정국 구비 100%
수행기관				

(17) 송파구

송파구는 1.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4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2.22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8〉 송파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1,456	3.42%	구 1	2.22 (23구 중) 5위

① 운영체계

송파구청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어·다문화이해 교육 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한글 및 컴퓨터 교육, 취업·창업지원, 자녀의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가족통합프로그램, 사물놀이, 건강검진과 상담 등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족 축제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도 운영된다.

〈표 89〉 송파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교육(한글, 컴퓨터, 취업교육 및 2세 교육) •가족통합프로그램(다문화사회 이해, 가족교육, 캠프 등) •기타 프로그램(건강검진, 사물교실,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결연 사업(다문화 가족과 관내 교회 및 어린이집 원장을 결연하여 학습 지도 및 아동 양육 지원)

송파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90〉 송파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송파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5.04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등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

② 추진체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국비 17%, 시비 17%, 구비 69%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1〉 송파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송파구 여성가족과
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앙정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중앙정부</div> 국비 17%
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울시</div> 시비 17%
구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송파구 여성가족과</div> ↓ 구비 66%
수행기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다문화가족 지원센터</div> 100%

(18) 양천구

양천구는 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6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2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8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 양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7,749	2.31%	구 6 민관기관 5	0.27 (23구 중) 18위

① 운영체계

양천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주체는 양천구이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사회의로 구성된다.

지역생활 안내 책자인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추진된다. 사업내용은 각 나라의 전통의상·음식 전시 및 체험, 퍼레이드, 풍물 베틀극시장, 외국출신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를 위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 차원에서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다.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지역주민의 접근이 자연스럽게 누

〈표 93〉 양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연 2회 회의를 개최해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마련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한국어의 5개 언어로 2,000부 제작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각 나라 전통의상, 음식, 전시 및 체험) •외국출신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스티커 부착 설문, 격려메시지 남기기 등 실시 (참가인원 : 1,000명)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전통문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양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체험행사 개최(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고궁 및 박물관 탐방) •참가인원 : 90명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주민센터의 접근성을 살려 목4동, 신월7동, 신정7동 주민센터를 교육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글교실, 자조모임 동아리 활성화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한국어, 컴퓨터, 한국 요리교실) •복지지원(상담/정보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제공) •문화지원(한국문화나들이, 사랑방운영, 멘토링) •다문화지원(다문화 요리교실, 다문화가족문화사절단, 김장나누기 등) •통합지원(다문화축제, 인식개선캠페인, 홍보출판사업) •수혜인원 : 5,200명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거점화하여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 간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양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대부분 취업 및 적응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94〉 양천구 민관협력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양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8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배우기(국악교실 등), 방문지도, 초등학생을 위한 뮤지컬 교실 등 공연 프로그램
양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9	•교육프로그램(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한국요리교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양천 신목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신목 종합 사회복지관	1997	•교육지원, 상담 외 행사 프로그램 실시(다문화 축제, 다문화 요리 배우기 & 나누기 등)
신월 종합 사회복지관	1990	•양천구 다문화가족 DB구축, 문화이해교육, 인식개선교육, 통합문화 체험활동, 멘토링 사업, 자녀양육교육, 취미교실
신정 종합 사회복지관	1996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학습 멘토, 야외활동, 일반아동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학교교사 대상으로 세미나 교육)

② 추진체계

〈표 95〉 양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 배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중앙정부 시			
구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수행기관			

〈표 96〉 양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2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전통문화 체험)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앙정부			
시			서울시 시비 100% ↓
구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 ↓
수행기관			서울시립 신목동사회복지관 양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의 외국출신주민 거주 인구는 4.4만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인 13.3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관련 구 운영 프로그램은 12개가 있으며, 0.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가운데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44,677	13.34%	구 12	0.67 (23구 중) 9위

① 운영체계

이주노동자 집중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영등포구청 국제지원과는 총 7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를 지속성과 행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4종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과 한국문화 이해 특강을 실시하는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출신주민에게 한국문화 체

협의 기회를 지원하는 한국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에선 사물놀이, 도자기 만들기, 예절배우기 등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 외국출신주민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 프로그램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도 있다.

횟수를 정해 이벤트성으로 치러지는 프로그램은 3종이 있는데 먼저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좌가 있다. 외국출신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참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연 2~4회(2009년 4회, 2010년 2회)에 걸쳐 외국출신주민 밀집거리 청소 및 자율방범, 일일봉사 등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호이해증진과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세계인 주간 및 다문화행사주간에 다문화체험마당,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행사 지원이다.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는 3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족 워크숍은 연 1-2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내용으로 한 강연 혹은 영화감상, 멘토링, 단체 레크리에이션, 부부대화법 강의 등을 실시한다. 그 외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와 자조집단 모임 및 육성지원을 실시한다.

영등포 보건소는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다문화멀리저센터 보건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내용은 테마별 건강교실 운영, 순회 진료 및 고위험군 환자 조기발견 연계관리, 무료건강검진 실시 등이다.

〈표 98〉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영등포 보건소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보건사업 •찾아가는 테마별 건강교실 운영(매월 1회 영등포 다문화 빌리지센터에서 질병예방, 영양, 운동교육 등을 실시) •찾아가는 순회 진료(매월 1회 센터이용 외국출신주민 관리 및 고위험군 환자 발견 연계 관리) •무료건강검진(보건소 1층 건강증진센터) •진료가이드 북 및 홍보물 30종 비치
	다문화 이해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이해교육 •연 2회 외국출신주민이 밀집한 신길5동, 대림1·2·3동 지역주민에게 타문화 이해교육 실시
국제 지원과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 이해특강 •연 2회 관내거주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특강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인의 날 다문화 행사 지원(다문화체험마당, 다문화 음식체험마당,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 등)
	한국문화 이해증진 (외국출신주민 한국문화 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10월 중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사물놀이, 도자기 만들기, 예절배우기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수혜대상 : 80명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참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관내거주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청소 및 자율방범, 복지시설 일일봉사 등)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 (생활가이드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및 우리 구 소개, 입출국관련 정보, 일반생활정보, 민원서비스, 교통/주차, 부동산/지적, 의료 등 외국출신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 800부 제작·배포(한국어, 중국어, 영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세계문화 체험 일일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학교(초·중·고교 7개교)를 찾아가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세계 전통문화 체험(노래 및 악기배우기)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연 2회 회의를 거쳐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 심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가정 복지과	다문화 이해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집단 모집 육성지원 •결혼이민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정보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도록 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원
	다문화가족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워크숍 개최 •다문화가족을 내용으로 한 강연 혹은 영화감상 •가족 단체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가족화합 도모 •1:1 멘토링 '친정엄마 되어주기' 서비스 •수혜대상 : 30~40가족
	한국문화 이해증진 (한국 전통문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체험행사 제공 •전통음식 만들기(떡 만들기, 장 담그기 체험 등) •전통문화체험(한국역사체험 및 역사유물관람, 전통혼례식 체험행사) •수혜대상 : 40~60명

〈표 99〉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영등포 종합사회 복지관	1985	•한국어 교실, 생활적응훈련, 재밌는 교실, 동아리모임, 가족나들이, 가정방문서비스, 네트워크체계구축 등의 프로그램
하차센터 하마방	1999	•센터 내 하마방은 09년 개설 •취업중인 이주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화~토/오전 9시~오후7시 미취학 아동에게 바른 한국어 쓰기, 놀이, 공연, 미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살레시오 다문화 교육센터	2010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보육시설 •월~금/전일제로 아이들의 통학부터 취침까지 관리 •주말을 이용해 미술치료 등 어머니와 함께하는 활동지원

② 추진체계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12가지 사업은 모두 구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0〉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1

과	보건소	국제지원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다문화이해증진 (다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중앙정부				
시				
구	보건소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수행기관				

〈표 101〉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국제지원과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증진 (외국출신주민 한문화 체험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 (생활가이드북 제작)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세계문화 체험 일일교실)
중앙정부				
시				
구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수행기관				

〈표 102〉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3

과	국제지원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다문화 이해증진	다문화 가족 워크숍	한국문화 이해증진(한국 전통문화 체험)
중앙정부 시				
구	국제지원과 구비 100%	가정복지과 구비 100%	가정복지과 구비 100%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20) 용산구

용산구는 16.7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98%를 차지한다. 외국출신주민과 관련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개가 있으며, 예산은 0.2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8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 용산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6,691	4.98%	구 5	4.63 (23구 중) 2위

① 운영체계

용산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국어·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 행복 찾기 프로그램의 두 가지 사업을 실행 중이다.

전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적인 자녀양육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용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후자 역시 용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한다.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는 외국출신주민의 서울생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내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생활불편 상담 및 정보제공, 한국어와 문화체험, 외국출신주민 자원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확대, 각종 축제 등을 담당한다.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는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을 담당한다.

〈표 104〉 용산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적응 향상을 위한 다문화 교육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주 과정으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초급, 심화) •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세~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적인 자녀양육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자녀양육역량강화 • 용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 문화,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 • 수혜인원 : 총 4,000명
자치 행정과	외국출신주민 서울생활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 외국출신주민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체험 • 외국출신주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커뮤니티 확대구성
용문동 주민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상급 3개 반으로 구성하여 한국어교실 운영 • 다문화가정 멘토링 운영 • 현장체험 답사

〈표 105〉 용산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용산 나눔의 집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문화교실, 컴퓨터교실, 상담(임금체불, 산재, 출입국) • 의료지원(긴급의료, 출산지원) • 귀환프로그램(외노협 귀환컨서시움과 결합하여 추진중)
용산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② 추진체계

〈표 106〉 용산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다문화가족 적응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젝트
중앙정부			
시		서울시 시비 50%	
구	용산구 구비 100%	용산구 구비 50%	용산구 구비 100%
수행기관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

〈표 107〉 용산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2

	외국출신주민 서울생활 지원센터 운영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용문동 주민센터)
중앙정부		
시	서울시 시비 100%	
구	용산구	용산구 구비 100%
수행기관		

(21) 은평구

은평구는 6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0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4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46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4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8〉 은평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6,920	2.07%	구 4	0.46 (23구 중) 14위

① 운영체계

은평구 대조동 주민생활지원팀은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이주여성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자치과 자치사업팀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불광1동, 대조동, 역촌동의 3개 동의 주민자치회관에서 주 2회 외국출신주민 대상의 무료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은평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와 녹번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를 위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다.

〈표 109〉 은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조동 주민생활 지원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확대(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사업 추진리더 육성을 위한 강좌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 프로그램(결혼이주여성이 강사가 되어 자국문화를 교육)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교육과정 진행 •한국문화 체험교실, 지구촌 시민축제 등 운영
보건 지도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중 우울증 환자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를 위한 집단 미술치료 실시
주민 자치과 자치 사업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광1동, 대조동, 역촌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주 2회 총 300회(450시간) 무료 한국어강좌 실시(초·중급 2개 반) •문화체험(지역문화, 세시풍속, 생활예절)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기회 부여
가정 복지과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에 필요한 항공권 및 체제비 지원 •대상 : '10년 8월(자녀방학기간) 중 1주일 간 20여명 •친정방문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및 가족구성원에게 처가 혹은 외가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기여

또한 가정복지과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항공권 및 체제비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표 110〉 은평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은평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6	•결혼이민자여성 자조모임, 직업소양교육, 무료 이·미용 서비스, 가정통합교육 '우리가족 일일나들이' 등 일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은평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8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대상 한글, 컴퓨터, 기초정보교육(취업준비 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 및 교육,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결혼이주여성에게 각종 교육, 가족통합 프로그램(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어머니 아버지 학교 등), 통역가 양성교육

또한 관내 민관협력기관 역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추진체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구비로 자체 조달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은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대조동 주민생활지원팀	보건지도과	주민생활과 자치사업팀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중앙정부 시				
구	은평구 구비 100%	은평구 구비 100%	은평구 구비 100%	은평구 구비 100%
수행기관	↓ 대조동 주민자치위원회			

(22) 중구

중구는 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11%를 차지한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관련 구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예산은 13.9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2〉 중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0,425	3.11%	구 7	13.90 (23구 중) 1위

① 운영체계

중구청에는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구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은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건강검진을, 보건소 지역보건과는 결혼이민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문화체험 캠프를 추진한다.

〈표 113〉 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종교기관 및 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무료 건강검진 실시(경동교회, 정동교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흉부 X-선 촬영, 체위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보건소 지역보건과	결혼이민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과 직원간 맞춤형 1:1 건강 멘토링 운영 •다문화가정 임신부 집중 건강관리 : 등록 후 산전·산후 관리, 임신부교실, 수유클리닉 이용 •영유아 건강관리 :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기 맛사지 •영양플러스 사업(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급)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연 1회 국내 문화체험 캠프 주관 •'10년 탐방장소 : 안동 하회마을 •수혜인원 : 약 80명
주민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주2회, 요리교육 주1회 •문화체험, 부부교육 각각 연 2회 실시
행정 관리국 교육 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지원 •중구 초·중·고 20개교에 27명의 원어민 교사 배치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 위탁 운영) •초등학교(14명) : 광희(7명), 남산, 덕수, 신당, 청구(2명), 장충, 흥인 •중학교(6명) : 대경, 장원, 장충, 한양, 덕수, 환일 •고등학교(7명) : 성동, 장충, 환일, 계성, 이화, 성동공고, 성동글로벌경영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교사의 협동수업
주민생활 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실(기초·중급·고급), 컴퓨터, 태권도, 문화지원 •뉴스레터 등 소식지 제공, 상담(법률, 의료)
문화 관광국 교육체육과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2회) ⇒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주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 •외국출신주민 체육대회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의료서비스 실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한국어, 컴퓨터, 요리교실, 상담, 부부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사업은 결혼이주가정뿐 아니라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게도 집단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태권도교실 등의 신체발달 시간을 제공한다.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는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각 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의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차별화된 영어교육 제공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그 외 중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으로는 서울 외국출신주민 노동자센터가 있으며 각종 상담, 의료, 교육, 쉼터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114〉 중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서울외국출신주민 노동자센터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상담 및 노동상담 •의료(무료진료, 입원·수술시 긴급의료비 지원) •쉼터운영, 교육, 공동체 구성 및 지원, 문화사업

② 추진체계

〈표 115〉 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과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지원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사업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중앙정부 시			
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구 구비 10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구 구비 10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구 구비 100% </div>
수행기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 위탁운영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유락종합사회복지관 </div>	

〈표 116〉 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2

과	보건소 의약과	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결혼이민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시		↓ 서울시		
구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60%
수행기관	↓ 중구 보건소	↓ 중구 보건소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3) 중랑구

중랑구는 7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0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29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7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7〉 중랑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7,014	2.09%	구 2	0.29 (23구 중) 17위

① 운영체계

중랑구청 자치행정과는 ‘2010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내 한국어 강좌,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은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취업교육을 담당한다. 미용, 봉제, IT등 다양한 기술 훈련은 물론 외국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등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118〉 중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2010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한국어, 컴퓨터 강좌 및 한국어 문화체험교실 운영) •운영 장소 : 면목5동, 면목7동, 망우본동, 망우3동 자치회관
주민생활 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교육(미용, 봉제, IT등)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외국어 지도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코디네이터 등)

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교육과 지역 내 활동, 그리고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119〉 중랑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방문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프로그램 운영 •통번역 지원(베트남어 및 기타언어) •자조모임, 자원봉사 등 •상담(개인 및 가족, 법률상담 등)

② 추진체계

자치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0〉 중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 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프로그램	2010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시		
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중랑구</div> 구비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중랑구</div> 구비 100%
수행기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div>	

4. 2010년 하반기 개편 후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팀별 업무내용

〈표 121〉 2010 하반기 개편 후 외국출신주민 지원

<p>글로벌계획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총괄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주요업무, 인사, 시의회, 국회 •글로벌화 기본계획 등 수립 •서울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글로벌 스트리트 관리, 운영 •글로벌 존 조성, 글로벌센터 설치 •외국출신주민생활 만족도 조사, 외국출신주민 관련 통계관리 •외국출신주민정책관련 법무부 업무 협의, 법무부 업무협력사업 관리 •서울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운영 서무 및 회계관련 업무 •지시사항, 평가, BBS목표관리 •보안관리, 월간, 주간업무 •감사, 보안, 예산, 회계, 교육등 일반서무 •홈페이지 관리, 기록물 •후생복지관련, 물품관리, 문서, 급여, 수당, 기간제근로자 관리
<p>글로벌센터 운영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주요업무계획 수립, 다문화사업 업무 지원총괄 •의회 관련사항, 실국 협조사항, 민원사무 처리 •유학생 포럼 운영, 서울타운미팅 운영 •글로벌/다문화빌리지 센터 운영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지원센터(코엑스) 운영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지원, 센터 상담업무 지원 및 상담 DB 구축 관리 •센터 홈페이지 통합운영 •청소년 대상 외국문화 교육사업 •생활정보 영상물 제작, 센터 간행물 제작 총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비즈니스 창업대학 운영 •외국어 표기환경 점검반 운영 •센터 업무 계획 수립, 예산·회계총괄, 서무 •실국협조사항, 의원요구자료, 주간업무보고, 홍보 다각화사업 총괄 •외국출신주민 베희시장 운영
<p>외국출신주민 교육지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C 외국출신주민학교 신규 건립, 개포 외국출신주민학교 신규건립 추진 •DMC 서울일본인학교 운영 지원 •반포 외국출신주민학교 운영 지원, 재한 몽골학교 이전, 건립 지원 •팀 업무계획 수립 및 시의회, 국회 관련업무 •외국출신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글로벌 도시심의위원회(교육환경 분과) 운영 •기존 외국출신주민학교 운영비 지원 •외국출신주민 정책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협력
<p>사회통합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주민근로지원센터 설치, 운영 총괄 •외국출신주민정책 관련 여성가족부 협력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다문화분과) 운영 •거주 외국출신주민 홍보대사화를 위한 인사이드 서울프로모션 운영 •서울시장배 다문화가정 축구대회 운영

〈표 계속〉 2010 하반기 개편 후 외국출신주민 지원

사회통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출신주민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생활 관련 통, 번역 및 행사지원 •New Comer 외국출신주민 정착 지원 사업 •글로벌 인턴십 운영 •다문화,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실태 및 현황 관리 •외국출신주민 지원 시설물 현장 관리
-------	--

출처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http://global-economy.seoul.go.kr/>)

5. 외국출신주민 유치원 및 외국출신주민 학교 현황⁷⁹⁾

〈표 122〉 외국출신주민 유치원 및 외국출신주민 학교 현황

	학 교 명	주 소	교육과정	설치과정
1	서울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5	미국, 영국	유, 초, 중, 고
2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89-1	대만	중, 고
3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9-3	대만	초
4	서울독일학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4-13	독일	유, 초, 중
5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213	미국	유, 초, 중, 고
6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8-5	미국	유, 초, 중
7	한국켄트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광진구 구의동 619-30	미국	유, 초, 중, 고
8	지구촌기독교출신주민학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4-22	미국	유, 초, 중, 고
9	한국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5	미국	유, 초, 중, 고
1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206	미국	유, 초, 중, 고
11	서울일본인학교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3	일본	유, 초, 중
12	서울프랑스학교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8-3	프랑스	유, 초, 중, 고
13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서울 중구 명동2가 83-8	대만	유, 초
14	하비에르국제학교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1	프랑스	초, 중, 고
15	재한몽골학교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8-8	몽골	초, 중
16	아시아퍼시픽국제 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노원구 월계2동 820	미국	유, 초, 중, 고
17	레인보우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서초구 양재1동 2-32	미국	초, 중
18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	영국	유, 초
19	프란치스코외국출신주민유치원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07	미국	유
20	이씨엘씨외국출신주민유치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5-3	미국	유
21	남산국제유치원	서울 중구 신당동 366-591	미국	유

79) 2010.09. 교육과학기술부

부록 3 시민의견조사 결과

1.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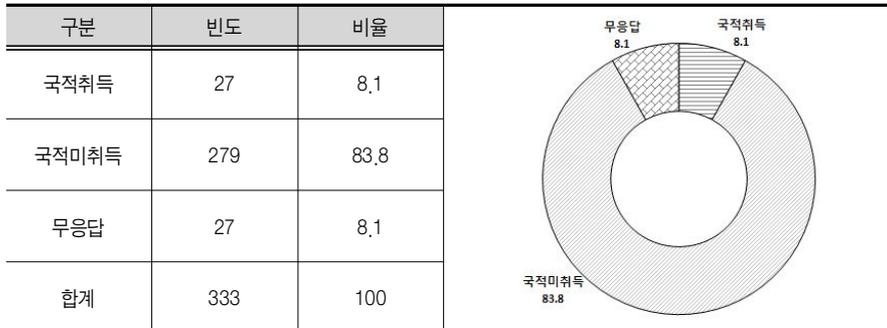
1) 일반적 사항

(1) 한국국적 취득 여부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 분포는 무응답 8.1%를 제외하고 국적 취득 8.1%, 국적 미취득 83.8%로 나타나 한국 체류 외국출신주민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123〉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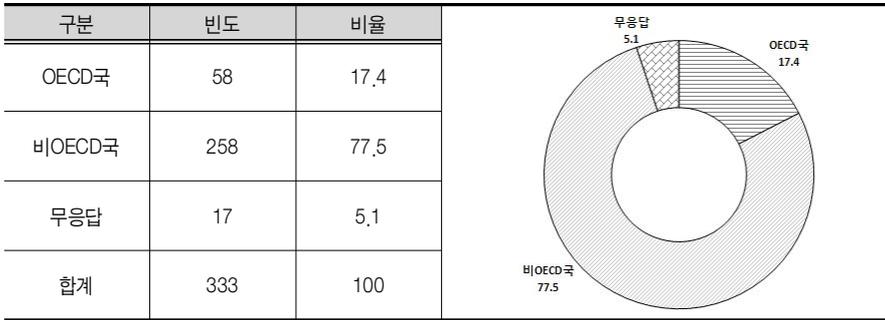
(2) 출신국 유형

응답자의 출신국 유형 분포는 먼저 OECD국과 비OECD국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이 17.4%, 비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이 7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출신국가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국적 외국출신주민(11.7%), 미국(4.8%), 베트남(15.1%), 대만(12.7%), 일본(4.4%), 몽골(13.6%), 필리핀(0.6%), 캐나다(7.0%), 우즈베키스탄(0.6%), 인도(1.0%), 태국(0.3%), 영국

(3.2%), 프랑스(7.6%), 러시아(16.5%)로 나타났다.

〈표 124〉 응답자의 출신국 유형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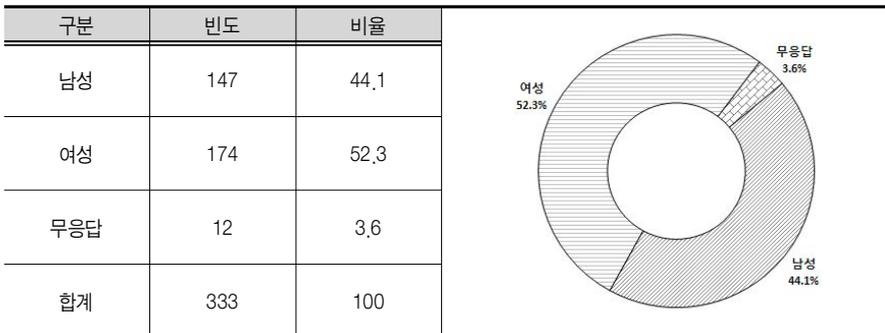


(3) 성별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4.1%, 여성이 52.3%였다.

〈표 125〉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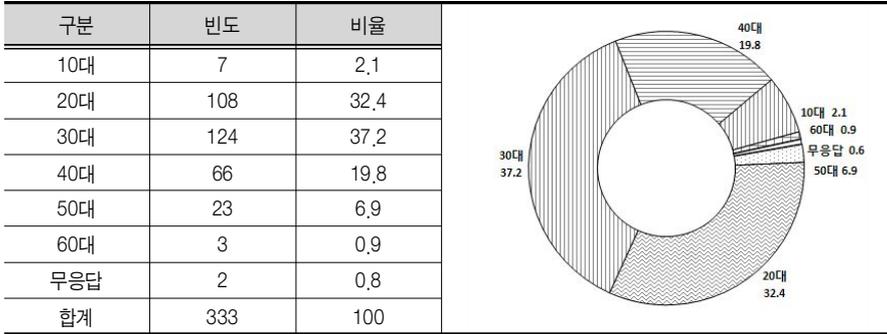
(4) 연령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만 19세 이하가 2.1%, 20세에서 29세가 32.4%, 30세에서 39세가 37.2%, 40세에서 49세가 19.8%, 50세에서 59세가 6.9%, 60세 이상이

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6〉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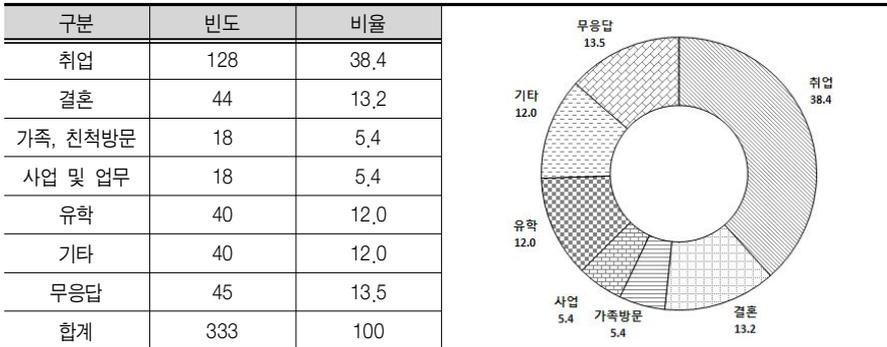


(5) 한국방문 목적

응답자의 한국방문 목적은 취업 38.4%, 결혼 13.2%, 가족·친척방문 5.4%, 사업 및 업무 5.4%, 유학 12.0%, 기타 목적 12.0%로 취업 목적의 방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7〉 응답자의 한국방문 목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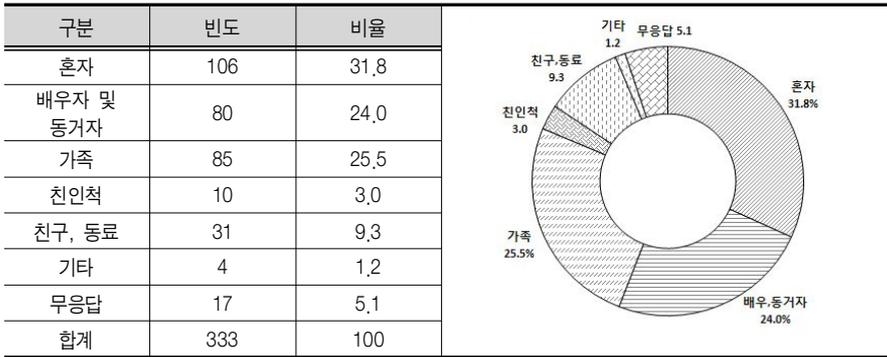


(6) 동거 유형

응답자의 동거 유형 분포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5.5%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24%가 ‘배우자 또는 동거자와 함께 사는 경우’라고 답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3.0%), ‘친구와 함께 거주’(9.3%), ‘기타’(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8〉 응답자의 동거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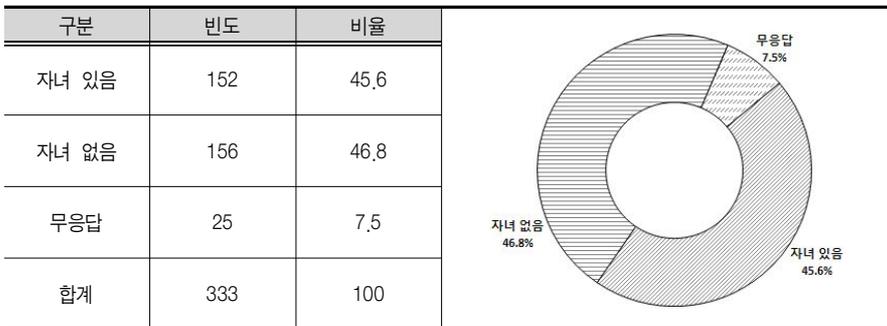


(7) 자녀유무

응답자의 자녀유무 분포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45.6%, ‘자녀가 없는 경우’가 46.8%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표 129〉 응답자의 자녀유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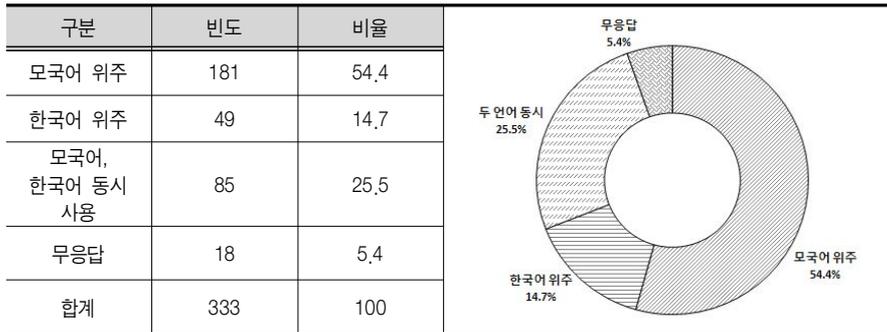


(8) 가정에서의 주 사용 언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모국어 위주로 대화’라고 답한 응답률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위주 사용’이 14.7%, ‘모국어와 한국어 사용이 반반’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2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0〉 응답자 가정에서의 주 사용 언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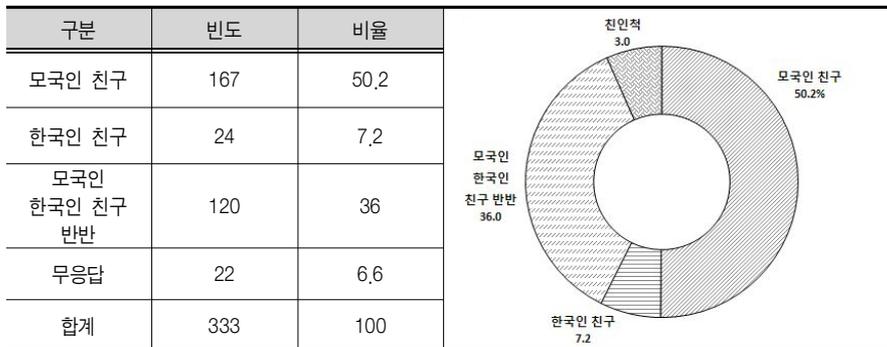


(9)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자신의 모국인 친구’라고 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

〈표 131〉 응답자의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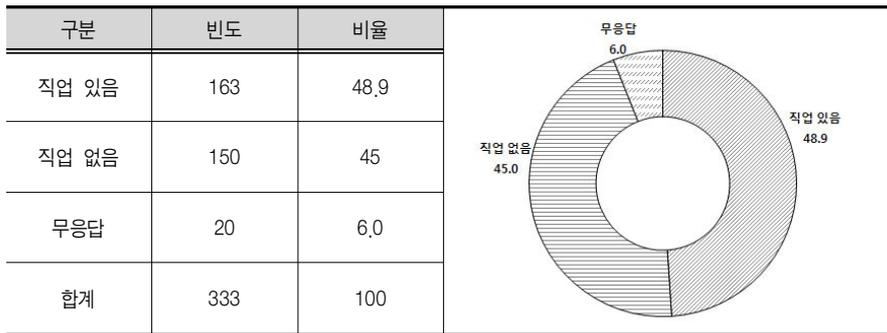
인 친구'라는 응답자가 36%, '주로 한국인 친구'라는 응답자는 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직업유무

응답자의 직업유무 분포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48.9%, '직업이 없는 경우'가 4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표 132〉 응답자의 직업유무

(단위 : 명, %)



2) 기본적인 시민 권리의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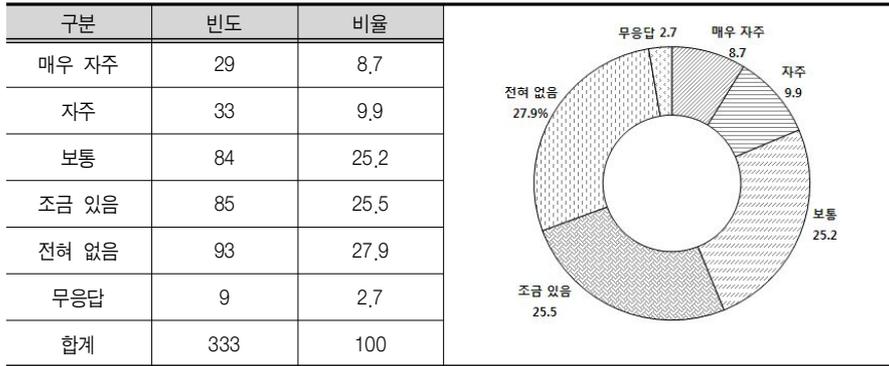
(1) 불공평한 대우 경험

<서울에 거주하면서 내국주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금 있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5%,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자주' 9.9%, '매우 자주' 8.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OECD국가 출신인 미주 및 유럽출신은 8.2%만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은 25.9%, 중국 등 동북아 출신은 20.5%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국가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3〉 응답자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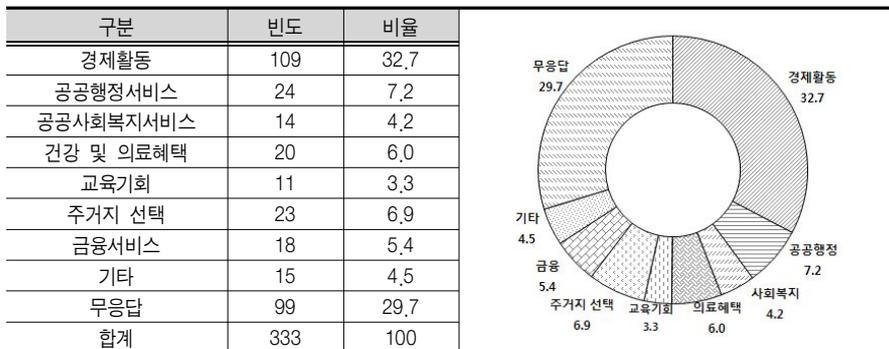


(2) 차별 경험 부분

응답자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관련 불공평한 대우’가 3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행정서비스 관련’이 7.2%, ‘주거지 선택 부분’이 6.9%, ‘건강 및 의료혜택’이 6.0%, ‘금융서비스’가 5.4%, ‘공공사회복지서비스’ 4.2%, ‘교육기회’ 3.3% 순이며, ‘기타’ 응답은 4.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 출신인 미주 및 유럽 그리고 일본 출신 시민들은 다른 것에 비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느꼈으며, 비 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 시민은 주거에 대하여, 중국 등 동북아 출신 시민들은 건강·

〈표 134〉 응답자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단위 : 명, %)



의료 분야에서 많은 차별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양한 직업분야 지원

응답자의 다양한 직업분야 지원이 자유로운지에 대한 질문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분야의 직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가 22.5%(75명)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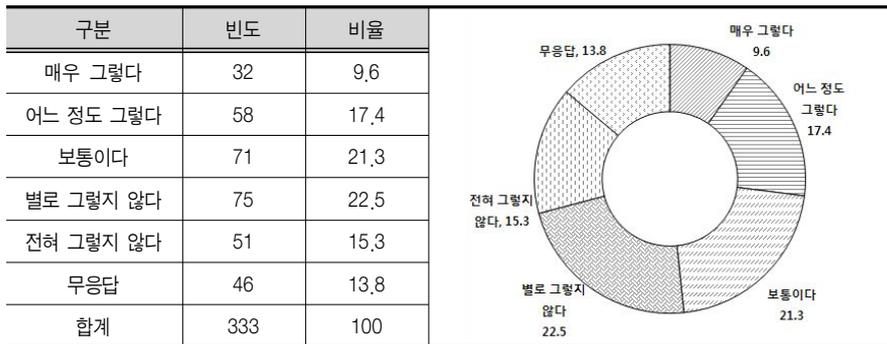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3%, ‘보통이다’가 21.3%로 외국출신주민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자유로운 다양한 직업 분야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다’는 17.4%, ‘매우 그렇다’는 9.6%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가운데 일본인의 경우는 직업 지원에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에 불과하나 비 OECD 국가출신이나 미주 및 유럽 출신들은 4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외국출신주민들이 직업 선택 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응답자의 다양한 직업분야 지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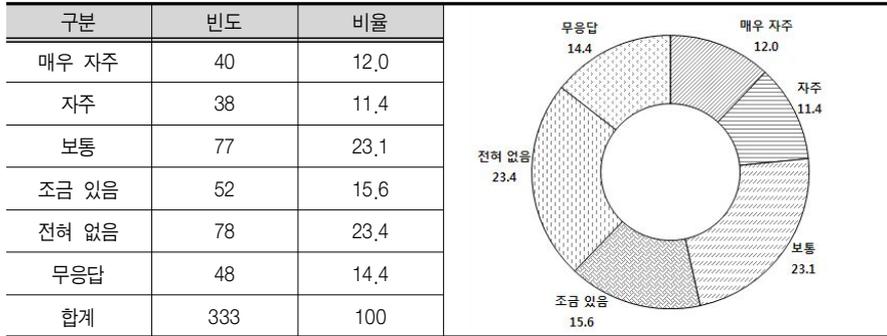
(4) 고용기회의 차별 경험

응답자의 고용기회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음’ 23.4%(78명), ‘조금

있음' 15.6%, '보통' 23.1%로 전반적으로는 차별이 심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매우 자주 경험'은 12%, '자주 경험'은 1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6〉 응답자의 고용기회 차별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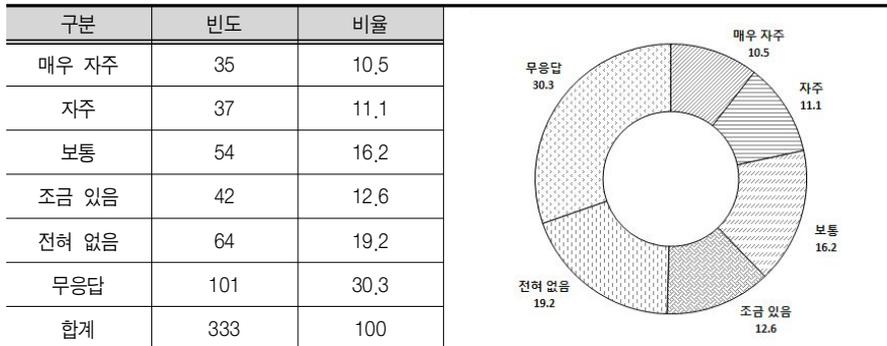


(5) 급여 및 근로조건의 차별 경험

응답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음' 19.2%(64명), '보통' 16.2%, '조금 있음' 12.6% 순으로 차별이 많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나, '매우 자주' 10.5%, '자주' 11.1% 등 부정적 응답도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7〉 응답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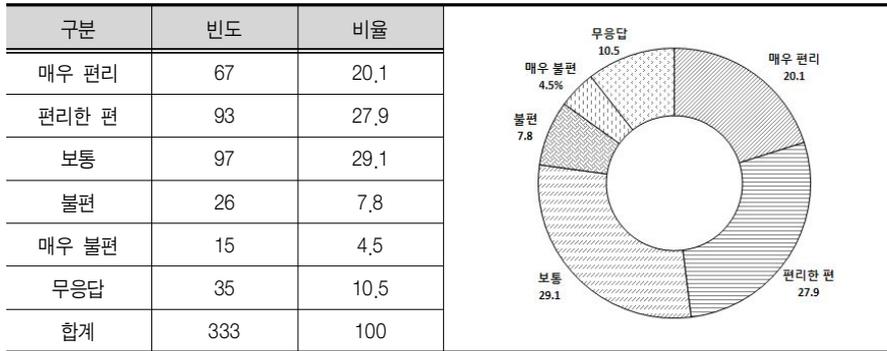


(6)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시·구청, 주민센터, 글로벌 센터 이용 등)의 편리성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 29.1%(97명), ‘편리한 편’ 27.9%, ‘매우 편리’ 20.1%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공공행정서비스를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 ‘매우 불편’은 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출신 응답자의 경우, 65.1%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일본출신주민들이 다른 국가출신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게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8〉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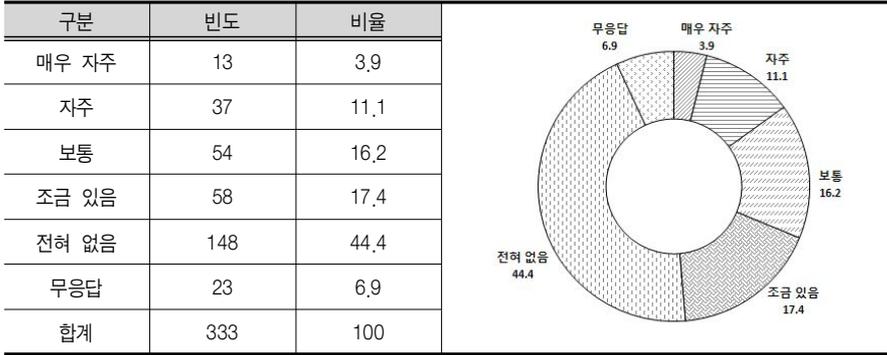


(7)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지역 보건소 및 시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라고 경험 여부를 묻자, 이와 관련하여 ‘전혀 없음’ 44.4%(148명), ‘조금 있음’ 17.4%, ‘보통’ 16.2%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별다른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11.1%, ‘매우 자주’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139〉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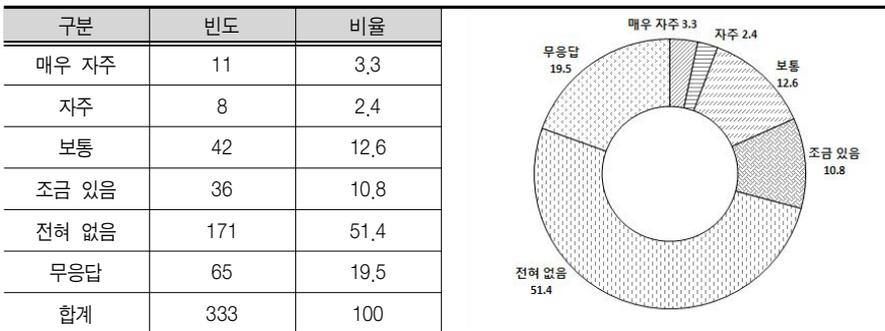
(8)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응답자의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자녀의 공교육 기회(지역의 공립학교 입학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혀 없음’ 51.4%(171명), ‘조금 있음’ 10.8%, ‘보통’ 12.6%로 대체적으로 공교육 기회 관련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자주 경험’이라는 응답은 2.4%, ‘매우 자주’라는 응답은 3.3%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동북아 지역 출신 서울시민은 20.5%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표 140〉 응답자의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응답하였으나, 유럽 및 미주 출신 주민의 경우 8.1%만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공교육에 접근 시 더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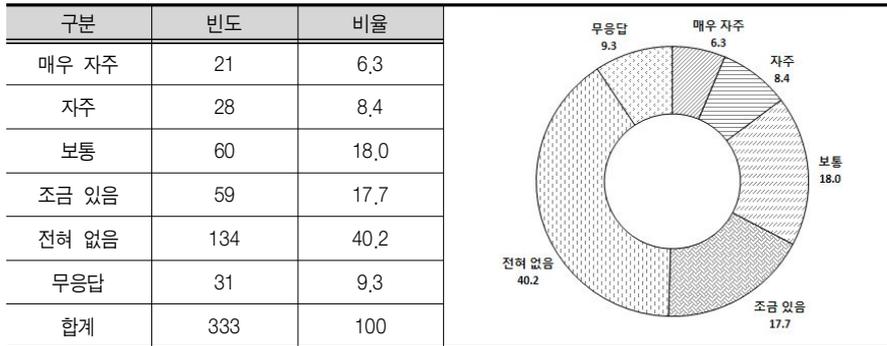
(9) 주거지 선택에서의 차별 경험

응답자의 주거지 선택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내 주거지 선택(주택매입 및 전·월세 임대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혀 없음’이 40.2%(1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18%, ‘조금 있음’ 17.7%, ‘자주’ 8.4%, ‘매우 자주’ 6.3% 순으로 비교적 거주지 선택에 있어 차별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가운데 비 OECD 국가 출신은 25 ~ 30% 정도가 주거지 선택 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유럽 및 미주 출신의 경우 14.9%만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하여 유럽 및 미주 출신 서울시민이 주거지 선택 시 차별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1〉 응답자의 주거지 선택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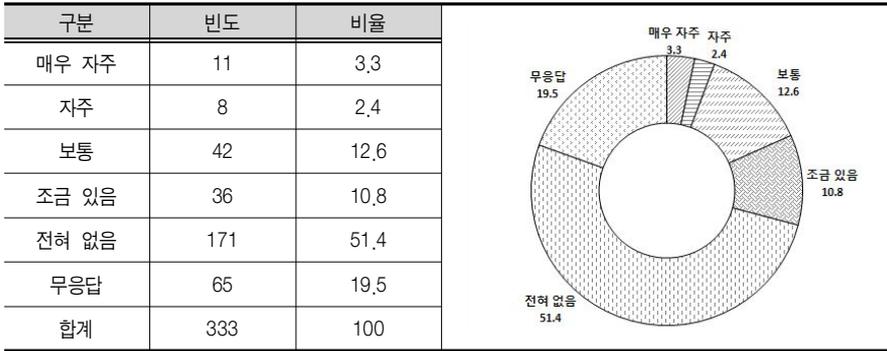
(10)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에서의 차별 경험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경찰서, 소방서 등)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

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51.4%(171명)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12.6%, ‘조금 있음’ 10.8%, ‘매우 자주’ 3.3%, ‘자주’ 응답이 2.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유럽 및 미주 출신 서울시민은 9.5%만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타 국가출신들은 15~20%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서구권 출신이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2〉 응답자의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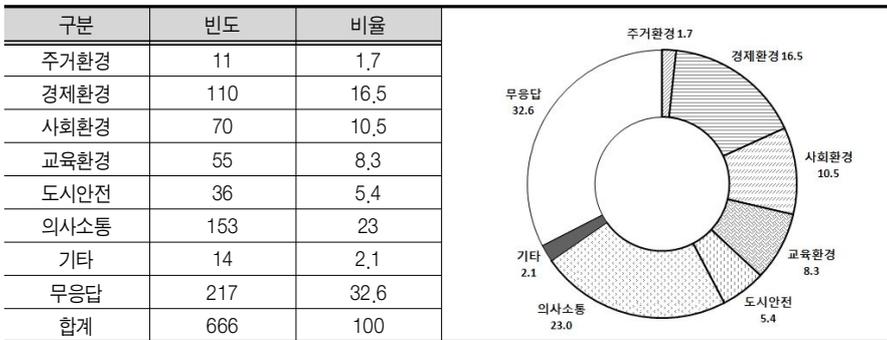


(11) 서울 거주자의 어려움(복수응답)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

〈표 143〉 응답자의 서울 거주자의 어려움

(단위 : 명, %)



문을 통해 서울 거주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소통 관련 어려움’이 23%(1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제환경(생활비용, 소득, 근로시간 등)’ 16.5%, ‘사회환경(복지, 의료시설 등)’ 10.5%,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8.3%, ‘도시안전(교통사고, 화재, 범죄 발생, 자연재해)’ 5.4%, ‘기타’ 2.1%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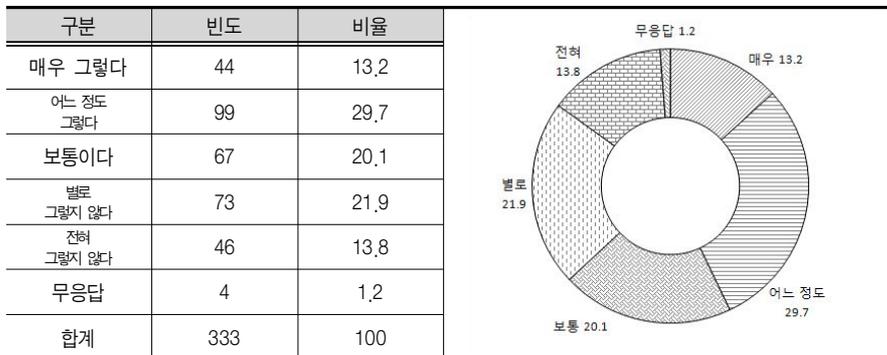
3)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1)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본인 스스로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인식은 ‘어느 정도 그렇다’가 29.7%(99명)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 21.9%, ‘보통’ 20.1%, ‘전혀 그렇지 않다’ 13.8%로 자신을 서울시민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다. 응답자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및 미주 출신 시민들은 40~60%가 자신을 서울시민이라고 느끼고 있으나, 일본인의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 응답자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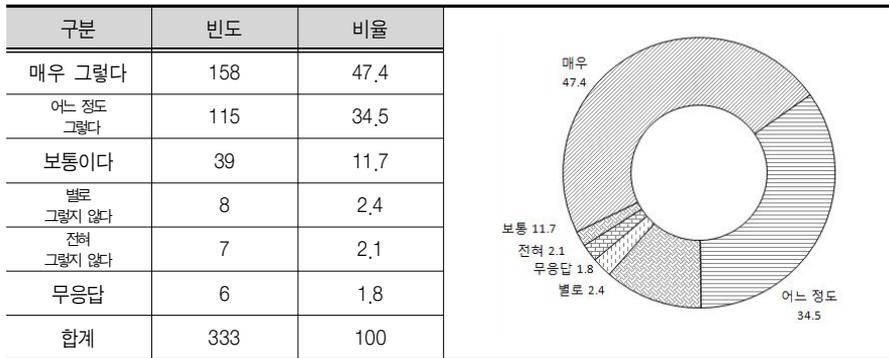
(2)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모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7.4%(1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느 정도 그렇다’가 34.5%(115명)로 그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1.7%,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와 2.1%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 자국의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OECD국가 출신은 83.9%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OECD국가 출신은 74.8%가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OECD국가 출신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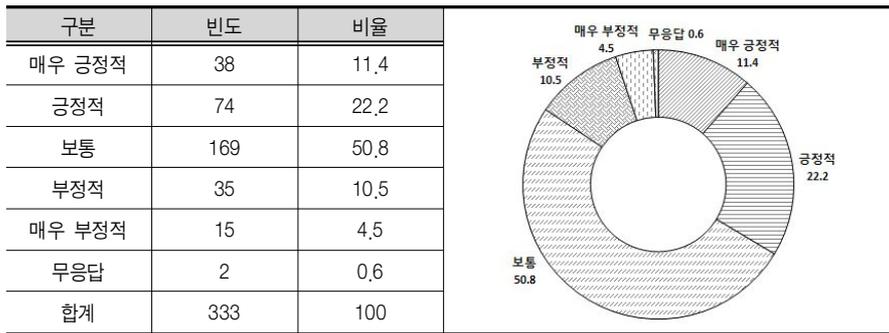
(3) 외국출신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0.8%(169명)로 절반 정도가 외국출신에 대한 별다른 부정적,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이 외국출신에 긍정적이다’는 22.2%, ‘매우 긍정적이다’는 11.4%로 전체의 33.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부정적이다’는 10.5%, ‘매우 부정적이다’는 4.5%로 부정적 응답도 15.0%나 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비 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이나 중국 출신의 경우 65~75%가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OECD국가 출신인 일본인의 경우 95%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6〉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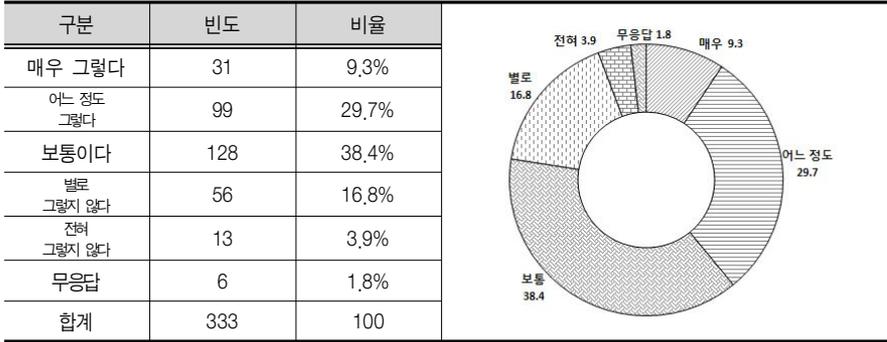


(4)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국 문화를 서울시민이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보통이다’라고 38.4%(128명)가 대답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어느 정도 존중해 준다’라는 의견이 29.7%, ‘별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16.8%로 나타났다. 이 외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9.3%,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7〉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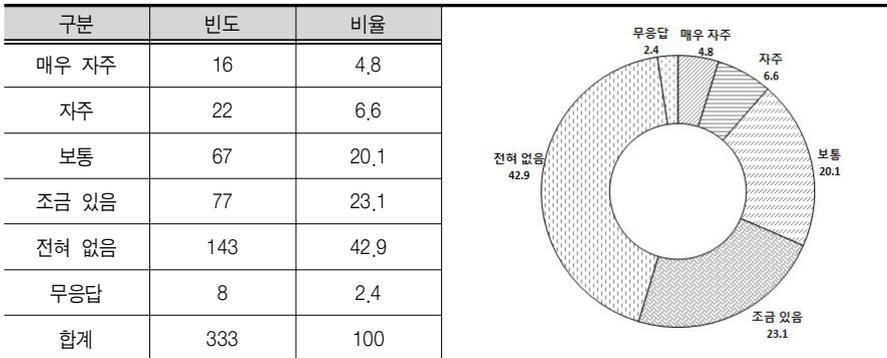


(5) 따돌림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응답자의 따돌림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가 42.9%(1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금 있음’ 23.1%, ‘보통’ 20.1%로 전반적으로 외국출신의 따돌림 또는 폭력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따돌림, 폭력을 ‘자주 경험했다’는 응답은 6.6%, ‘매우 자주 경험했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동남아 출신의 17.7%가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럽 및 미주출신의 경우 5.4%만이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서울시민이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8〉 응답자의 따돌림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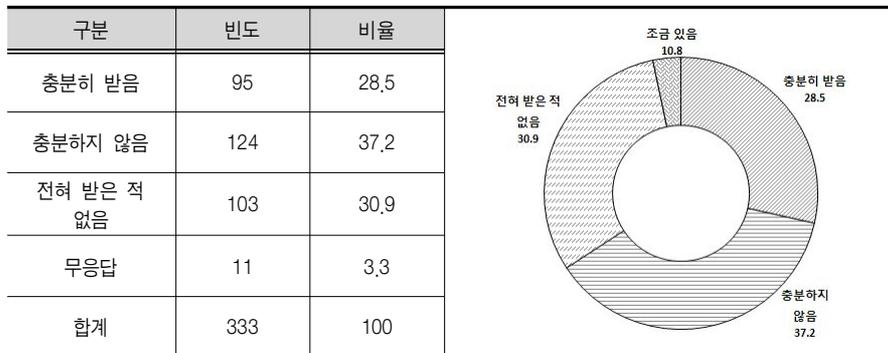
4) 자기개발과 자율성

(1)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한국어 교육 등) 또는 훈련 경험을 파악하고자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서울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한국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28.5%였다. 한편,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3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유럽 및 미주출신은 36.5%, 동남아국가 출신은 27.4%가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중국 출신의 경우 6%만 훈련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9〉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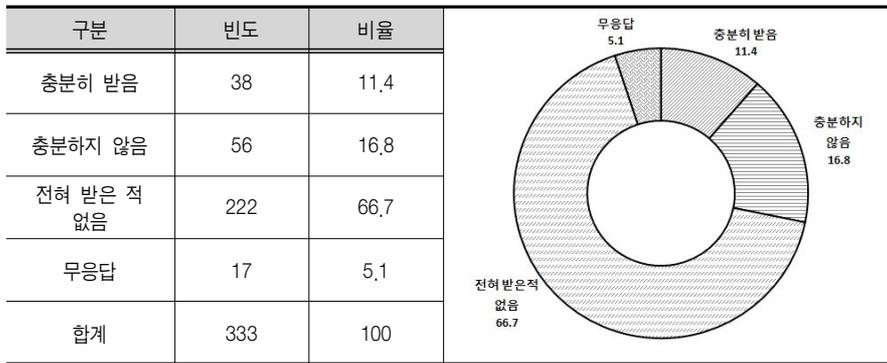
(2)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에 대한 응답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66.7%(222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받았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16.8%,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11.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OECD국가 출신인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0.3%가, 중국

이나 동남아 국가 출신은 5~10%가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7.5%나 되었는데, 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기보다는 두 나라의 경제구조가 비슷해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0〉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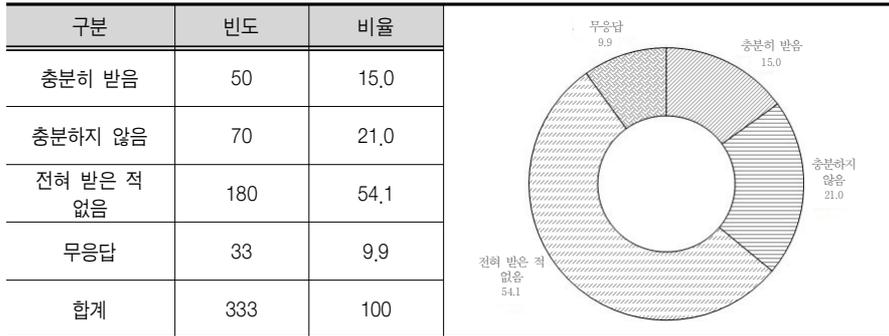


(3)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과 관련하여 <현재 고용된, 혹은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 하였다. 그 결과, ‘전혀 받은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1%(18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받았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21.0%,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15.0%로 밝혀졌다. 교육 및 훈련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일본인은 2.5%, 중국출신은 9.1%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아국가 출신은 19.4%, 유럽 및 미주출신은 24.3%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화권 출신자들에게는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응훈련을 도와주지만, 같은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출신에게는 비교적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1〉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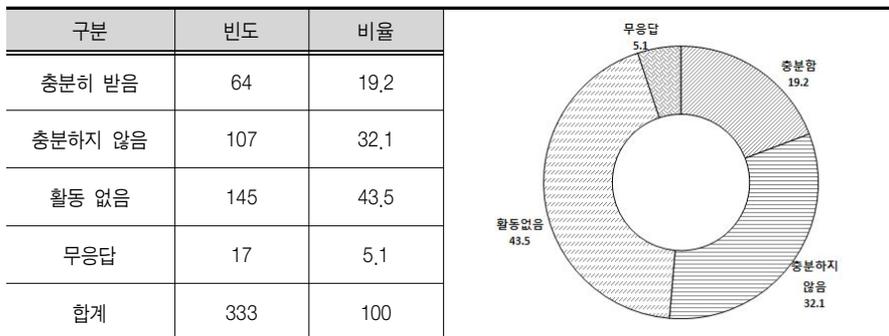


(4)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응답은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3.5%(145명)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활동을 하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3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1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동남아국가 출신은 27.4%,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5.7%가 모국과 관련된 문화 및 종교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13.6%, 2.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단위 : 명, %)



5) 참여와 헌신

(1)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응답자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과 빈도에 대해서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을 조금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1%(77명)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조금 한다’는 응답이 14.1%(47명)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 모임 활동, 정치 참여 활동,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 각각 38.4%, 64.0%, 38.4%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153〉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자주	자주	보통	조금 있음	전혀 없음	무응답	합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빈도	33	40	55	77	68	60	333
	비율	9,9	12,0	16,5	23,1	20,4	18,0	100
지역주민 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빈도	14	11	43	73	128	64	333
	비율	4,2	3,3	12,9	21,9	38,4	19,2	100
사회봉사활동	빈도	16	20	45	47	139	66	333
	비율	4,8	6,0	13,5	14,1	41,7	19,8	100
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빈도	5	5	17	19	213	74	333
	비율	1,5	1,5	5,1	5,7	64,0	22,2	100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	30	23	42	45	128	65	333
	비율	9,0	6,9	12,6	13,5	38,4	19,5	100

(2)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 의사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에 대한 미래 참여 의사가 79.1%(1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의사는 31.7%로 가장 낮았다. 미래 참여의사는 사회봉사활동 63.9%, 지역주민 모임 59.8%,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56.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154〉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 의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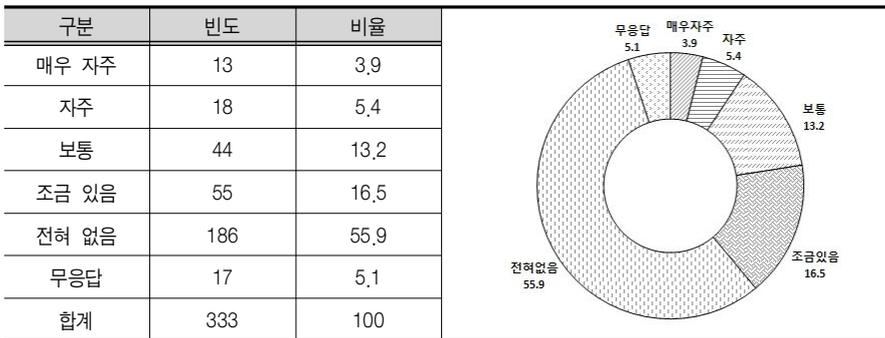
구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지역주민 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사회봉사활동		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82	79.1	128	59.8	145	63.9	70	31.7	126	56.8
아니오	48	20.9	86	40.2	82	36.1	151	68.3	96	43.2
합계	230	100	214	100	227	100	221	100	222	100

(3)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5.9%(186명)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있다’ 16.5%, ‘보통’ 13.2%, ‘자주’ 5.4%, ‘매우 자주’ 3.9%로 공공기관을 통한 의견 제시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외국출신주민은 일본인으로 전체의 15%가 매우 자주 의견을 제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국출신주민은 6.8%만이 의견을 자주 제시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5〉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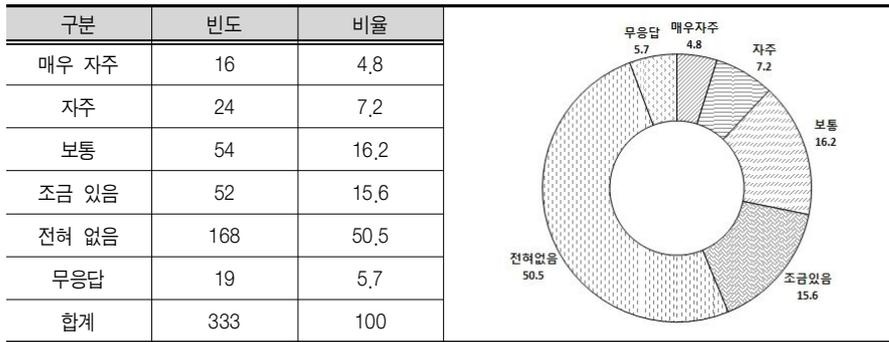
(4)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는 관련 활동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5%(1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있다’ 15.6%, ‘보통’ 16.2%, ‘자주’ 7.2%, ‘매우 자주’ 4.8%로 내국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인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3.0%, 일본 출신은 12.5%가 단체 및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국가 출신은 6.5%, 중국출신은 5.7%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6〉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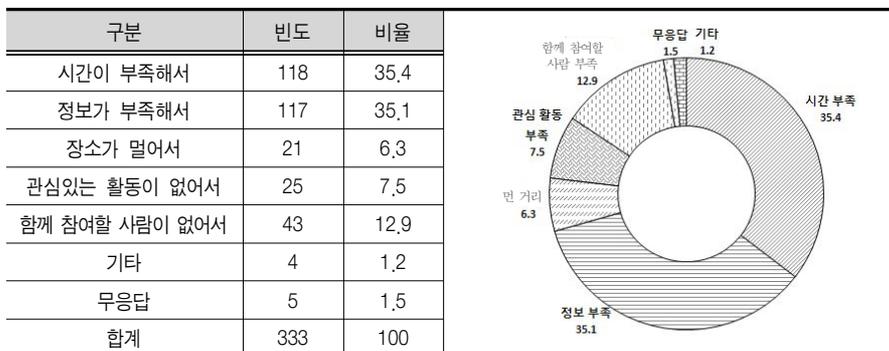


(5)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

응답자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은 ‘시간이 부족해서’(35.4%, 118명)와

〈표 157〉 응답자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

(단위 : 명, %)



‘정보가 부족해서’(35.1%, 117명)가 가장 높았으며, 이 외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가 12.9%, ‘관심있는 활동이 없어서’가 7.5%, ‘장소가 멀어서’가 6.3%, ‘기타’가 1.2%였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 출신인 일본인은 정보 부족이 31.8%, 미주 및 유럽인들은 정보부족과 시간부족이 32.4%로 나타났으며, 비 OECD국가 출신은 동남아국가출신이나 중국출신주민은 시간부족이 36~38%로 나타나 출신국가에 따라 장애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 출신주민의 경우 장소부족이 12.9%로 다른 외국출신주민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여 이들을 위한 공간과 장소의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서울 거주 내국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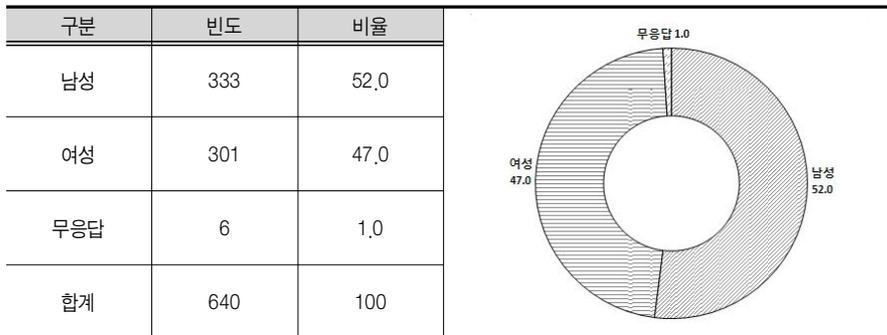
1) 일반적 특성

(1) 성별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33명(52%), 여성이 301명(4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158〉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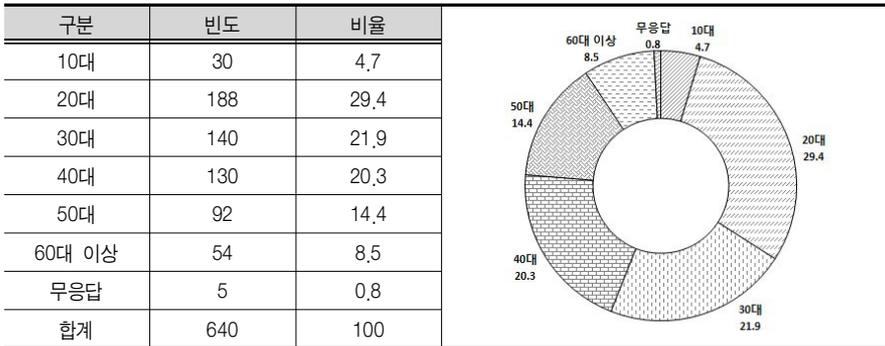


(2) 연령

설문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30대, 40대가 각각 21.9%, 20.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10대가 4.7%, 50대가 14.4%, 60대 이상이 8.5%로 나타났다.

〈표 159〉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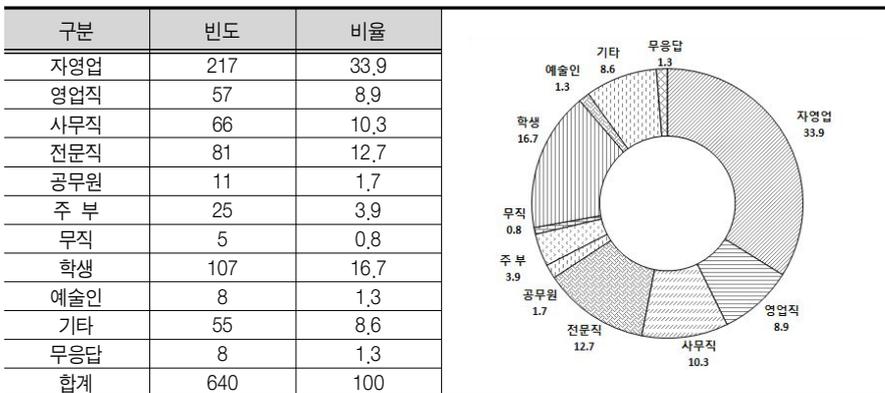


(3) 직업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생’인 경우가 전체의 16.7%, ‘전문직’이 12.7%, ‘사무직’이

〈표 160〉 응답자의 직업

(단위 : 명, %)



10.3%, ‘영업직’이 8.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특성상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내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서 비율의 분포적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즉, 지역별 인구구성에는 동일한 수의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나 직업별 변수에 있어서는 구분하지 않고 임의표집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경험

(1)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외국출신주민을 자주 만나거나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 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라는 대답이 27.7%,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라는 대답이 15.0%,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척 한다’라는 대답이 13.8%로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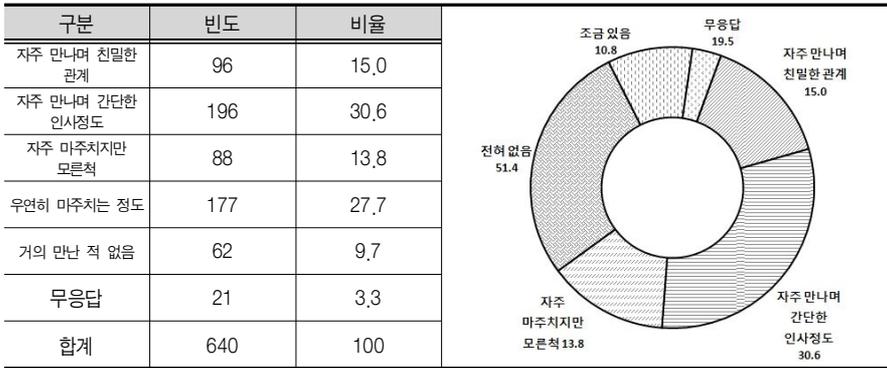
연령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출신주민과 자주 만나고 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전체 응답 중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40.0%,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자주 만나며 인사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만나며 친밀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40대에서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는 10대와 20대에서 높지만 거리감이 없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세대별 접촉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외국출신주민과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자주 만나며 인사 정도 하는 사이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직(21.3%,25.0%), 자영업(17.0%,42.7%), 영업직(14.3%,32.1%) 등에서 비교적 외국출신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61〉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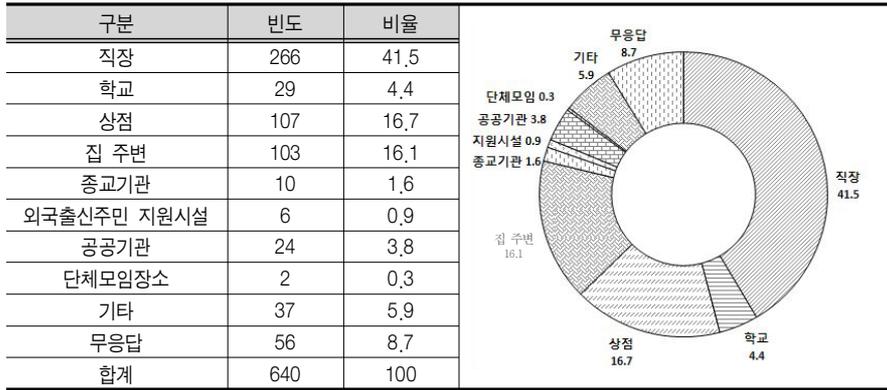
(2) 외국출신주민 접촉 주요 장소

<주로 어느 곳에서 외국출신주민을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직장’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상점’(16.7%), ‘집 주변’(16.1%)이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이 거주 지역이기도 하지만, 외국출신주민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에, 거주지 외에 직장이나 상거래 활동을 하는 상점 등에서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난다는 응답결과가 나온 데 이어서 이태원(35.0%), 연남동(25.8%), 가리봉(29.7%), 방배동(25.0%), 성북(22.2%), 이촌(22.2%), 독산(24.3%), 동대문(22.5%) 지역이 ‘집 주변’에서 평균치보다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이 외국출신주민 거주밀집지역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표 162〉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장소

(단위 : 명, %)



(3) 외국출신주민의 주요 출신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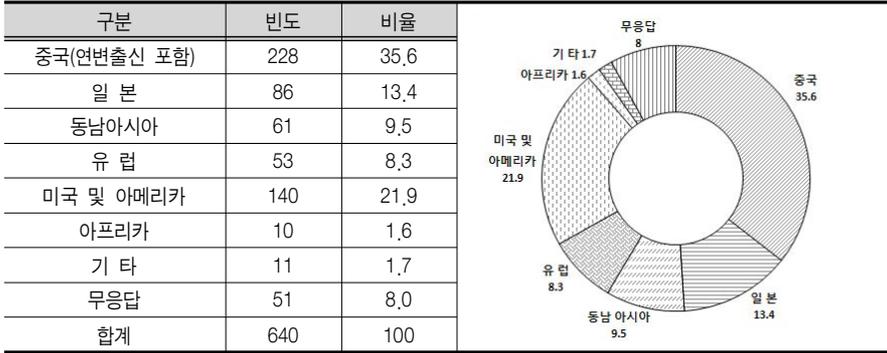
<만난 외국출신주민이 주로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라고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변지역 출신을 포함한 범위로서 ‘중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및 아메리카라고 답한 경우가 21.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일본’(13.4%), ‘동남아시아’(9.5%), ‘유럽’(8.3%)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만나는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에 차이를 결과적으로 보여주었다. 먼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리봉(70.3%), 자양동(83.8%), 독산(83.8%), 대림(92.1%) 등에서 ‘중국인’을 가장 많이 접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태원(47.5%)과 역삼동(34.4%), 한남동(59.0%)의 경우에 ‘미국 및 아메리카’ 출신 외국출신주민을 많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는 ‘미국 및 아메리카’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을 주로 만난다는 응답이 각각 51.9%,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이후에서는 ‘중국’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거주 외국출신주민 중 ‘중국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63〉 응답자의 접촉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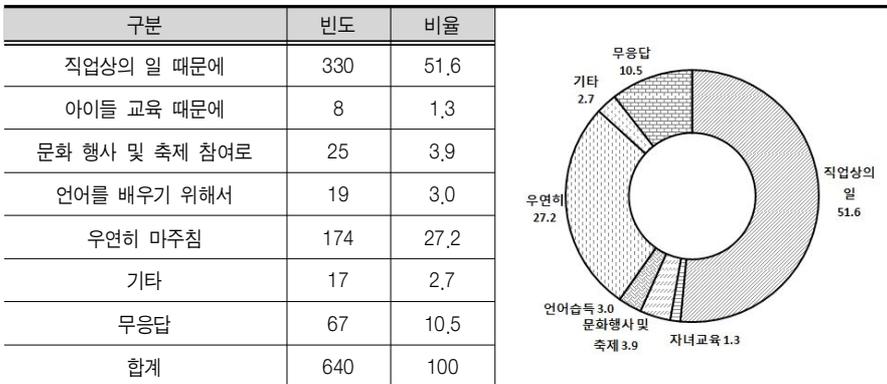
(4)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유

<주로 어떤 이유로 외국출신주민을 만났습니까>라고 묻자, 51.6%가 ‘직업상의 일 때문에’라고 답하여 최근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과의 업무교류가 늘어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27.2%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답하여 특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외국출신주민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 변수에 있어서는 10대가 1순위(61.5%)로 ‘우연히 마주쳤다’라고 꼽은

〈표 164〉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유

(단위 : 명, %)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직업상의 일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우세했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10대에서는 19.2%(2순위)가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라고 대답하여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출신주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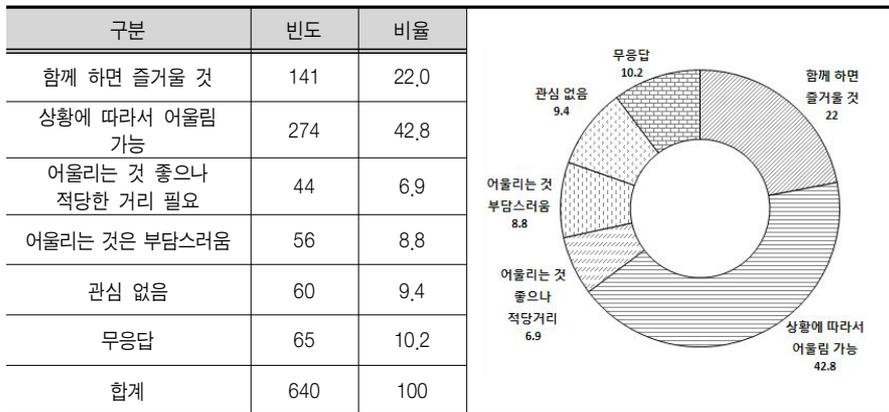
(5)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이전 반응에 대해서는 42.8%가 ‘상황에 따라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보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 다음 순위로 22.0%가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64.8%를 차지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외국출신주민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도 외국출신주민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상 외국출신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165〉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단위 : 명, %)



지역별로도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지역은 ‘이태원, 가리봉, 자양동, 역삼동, 방배동, 동대문’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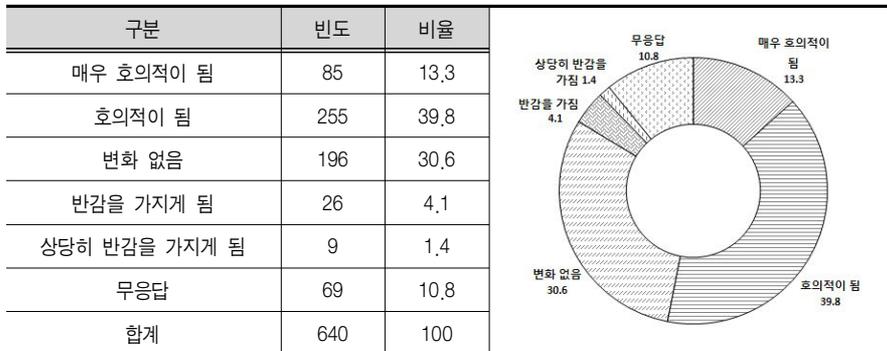
(6)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이후 ‘호의적이 되었다’는 대답이 전체의 39.8%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호의적이 되었다’는 대답도 13.3%로 나타나 ‘호의적’으로 변한 경우가 반 이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접촉 이전의 반응을 보면 호감도가 높았으므로 긍정적인 의견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7.3%,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3.7%로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출신주민에 대해서도 위의 응답에 대해 각각 6.8%, 1.7%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과 접촉 이후 다른 국가 출신(일본-3.6%, 미국 및 아메리카-5%, 나머지-0.0%)에 비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66〉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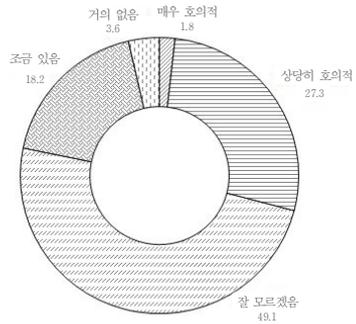
(7) 외국출신주민 접촉이 없는 경우

조사 결과, 55명 중 가장 많은 수인 27명(49.1%)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27.3%가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답한 반면,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18.2%로 나타나, 응답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표 167〉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이 없는 경우 반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호의적	1	1.8
상당히 호의적	15	27.3
잘 모르겠음	27	49.1
그다지 호감 가지 않음	10	18.2
매우 호감 가지 않음	2	3.6
합계	55	100



3)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 가치관, 태도

(1) 수용에 관한 인식

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41.1%가 ‘보통이다’고 답하였고, 이어 27.2%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대담해 응답자 스스로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68〉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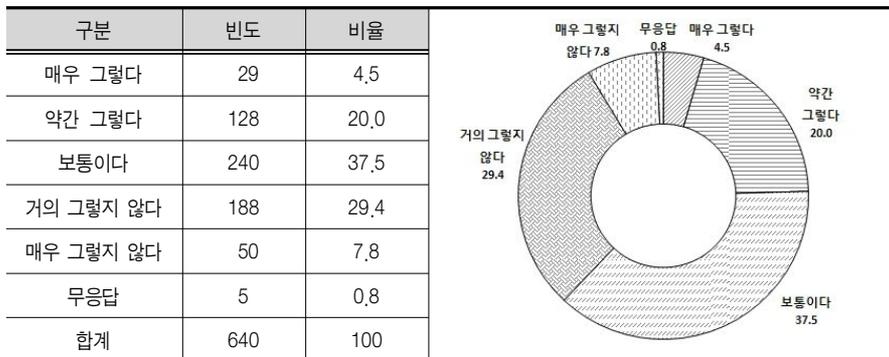


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는 데에는 37.5%가 '보통이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9.4%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앞선 질문에서 선입견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만큼의 시민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결과이다.

〈표 169〉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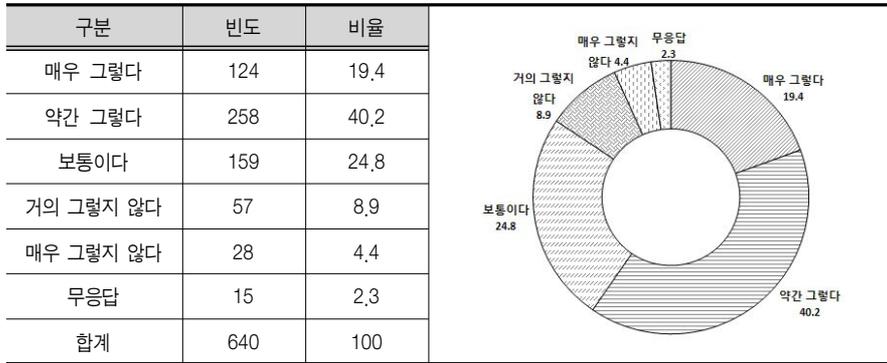
(2) 노동·경제에 관한 인식

가. 외국출신주민으로 인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출신주민으로 인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고 40.2%가 답하고, ‘보통이다’라고 24.8%가 대답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 인력의 활용이 국내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단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표 170〉 외국출신주민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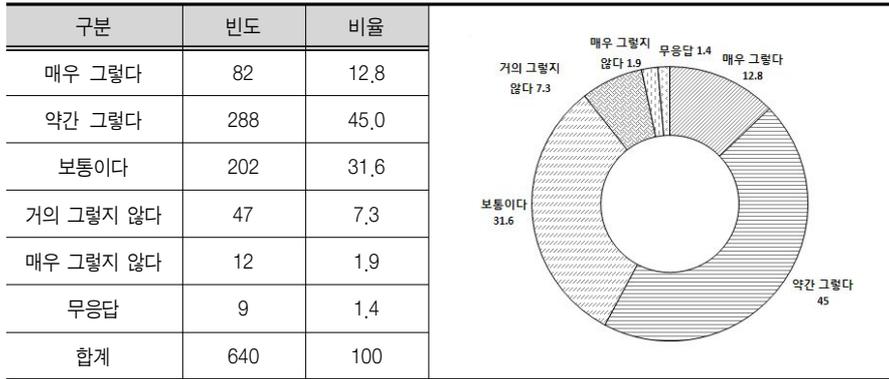
(단위 : 명, %)



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의 경제활동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가 45.0%, ‘보통이다’가 31.6%를 차지하는 사실로 미루어, 경제 발전에 있어 외국출신주민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71〉 국내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경제활동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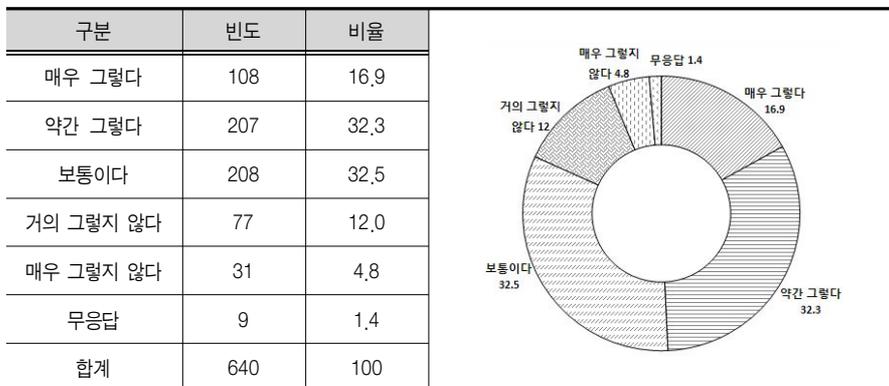
(3) 문화에 관한 인식

가.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약간 그렇다’가 32.3%, ‘보통이다’가 32.5%, ‘매우 그렇다’가 16.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개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72〉 전통문화 고수보다 다양한 문화 수용이 중요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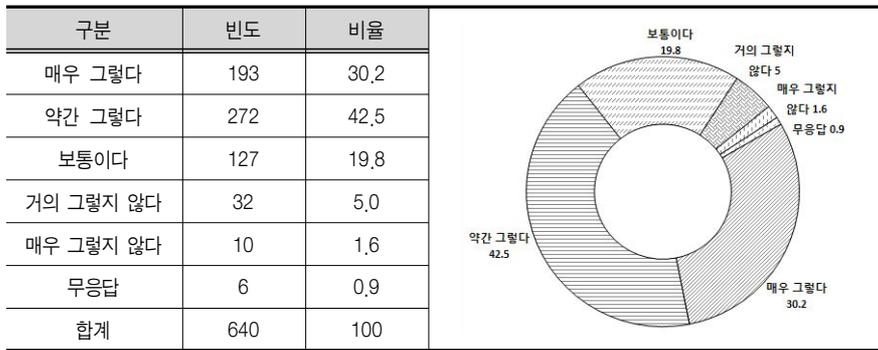


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진다.

응답 결과, ‘약간 그렇다’가 42.5%, 매우 그렇다가 30.2%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사회가 성숙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표 173〉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데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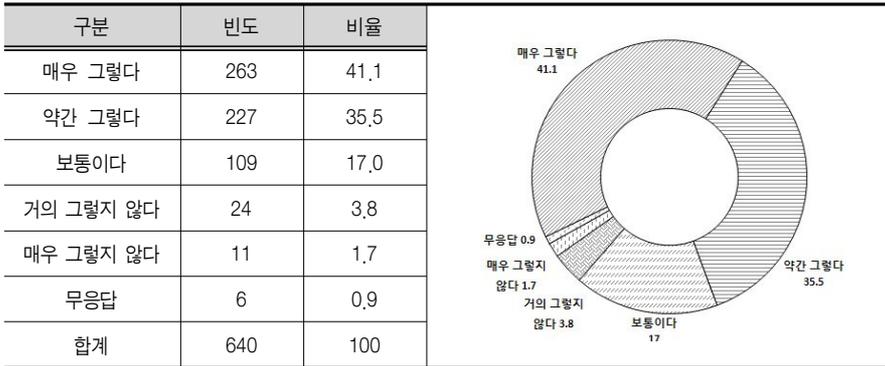


(4) 교육에 관한 인식

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은 교육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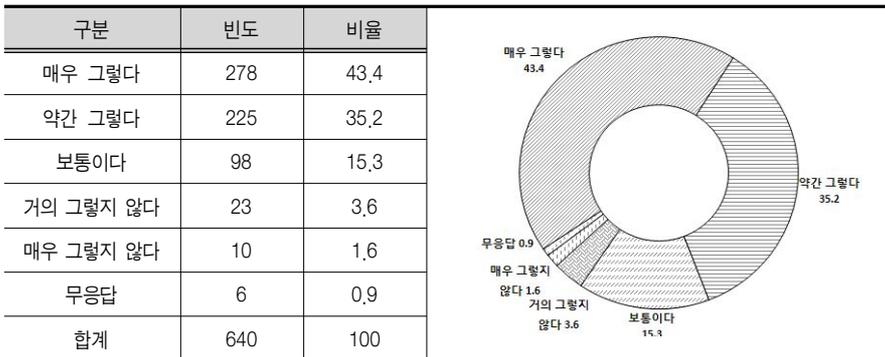
응답 결과, 41.1%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인 35.5%가 ‘약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들의 권리가 한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 174〉 외국출신주민도 교육 등에 있어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나.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가 43.4%, ‘그렇다’가 35.2%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 내 다문화 이해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 175〉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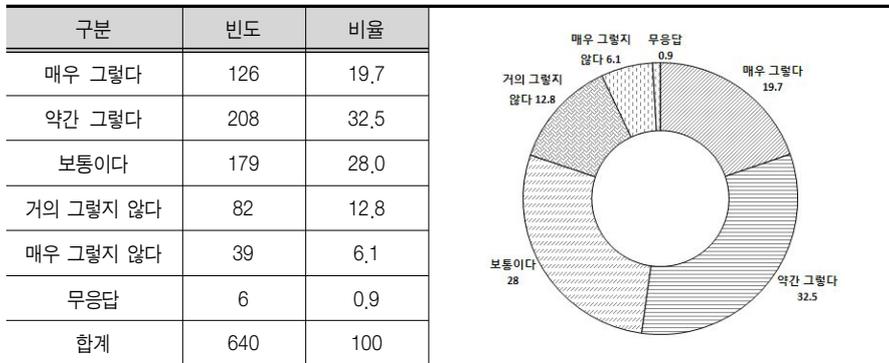


(5) 평등에 관한 인식

가.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다.

<가>의 주장에 대하여, ‘약간 그렇다’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8.0%를 차지하였다. 또한,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6.1%에 불과한 반면에, ‘매우 그렇다’는 19.7%를 차지하여,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의 내·외국출신주민 사회통합에 있어 외국출신주민들의 공적 영역 진출 등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근거로 작용된다.

<표 176>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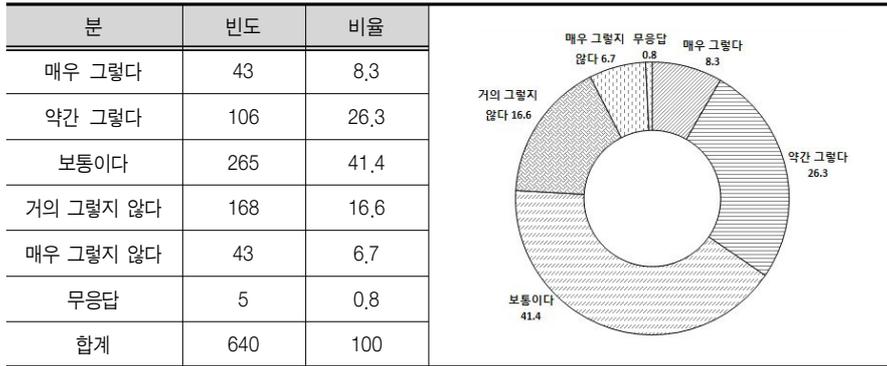


나. 특례입학, 고용할당 등 사회 전반에서 외국출신주민 할당제를 두어야 한다.

설문 결과, 41.4%가 ‘보통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6.3%가 ‘약간 그렇다’고 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해서 ‘다른’ 존재라기보다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출신주민 할당제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내국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함의가 있다.

〈표 177〉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출신주민 할당제를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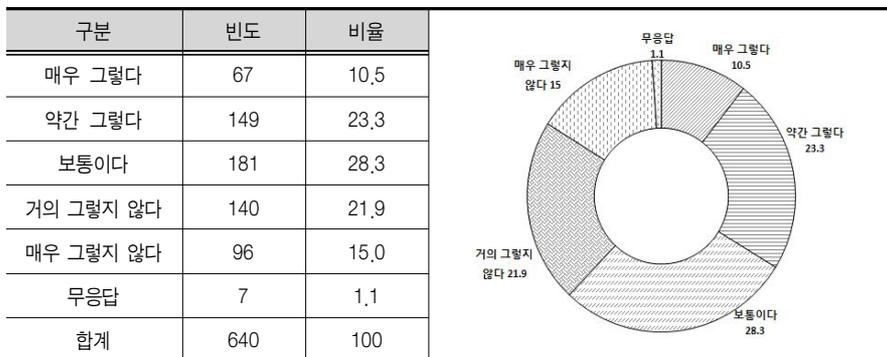
(6) 사회 참여

가. 외국출신주민도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응답자 중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는 응답은 23.3%를 나타내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의 행사를 외국출신주민에게도 허용하자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78〉 사회참여 : 외국출신주민의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 가능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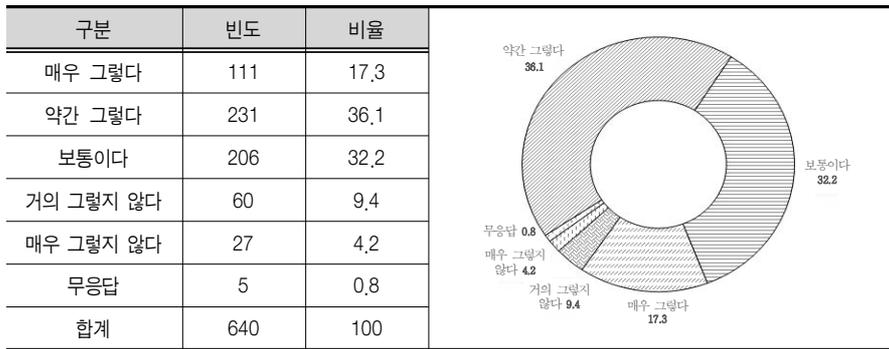
(단위 : 명, %)



나. 외국출신주민의 증가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설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36.1%가 ‘약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32.2%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17.3%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인구 구성에 있어서 외국출신주민 비율의 증가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응답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79〉 외국출신주민 증가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성장에 중요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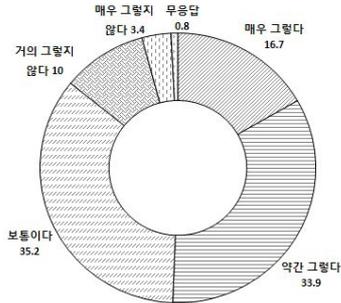


다. 외국출신주민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35.2%가 ‘보통이다’고 답하였으며, ‘약간 그렇다’는 의견이 33.9%로 드러났다. 또한,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16.7%를 차지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를 드높이는 데 외국출신주민들의 사회 참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80〉 외국출신주민의 사회참여를 통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07	16.7
약간 그렇다	217	33.9
보통이다	225	35.2
거의 그렇지 않다	64	10.0
매우 그렇지 않다	22	3.4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9)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 사회통합과 관련된 시민들의 가치관 및 의식을 묻고자 했다면 다음의 여덟 가지 문항은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주민인 한국인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다. 각각의 세부문항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1) ‘한국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4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약간 동의한다’가 26.3%를 나타내어 외국출신주민이 한국에서 방문목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한다’가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27.7%, ‘보통이다’가 26.7%를 차지한 반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1.7%,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5.3%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민의 대부분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은 35.2%가 ‘약간 동의한다’고 받아들였으며, 그 뒤를 이어 32%가 ‘매우 동의한다’, 23.1%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앞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장소로 직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은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이며, 이와 비슷한 34.4%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 집 주변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자주 만나듯 나의 가까운 이웃으로 외국출신주민이 있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22.7%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율인 35.2%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약간 동의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34.4%로 높게 나타나 자녀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6) ‘나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은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과 별개로, 나와 직접적인 친구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36.7%를 차지함에 따라, 이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7)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9.8%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20.6%가 ‘약간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가 20.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3.8%를 차지하였다. 앞서 친구관계와 달리 ‘동의하지 않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데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동의한다’가 19.1%를 보였다. 한편,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9.5%,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가 17.7%를 차지했다. 이는 앞의 질문과 결과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자녀의 배

우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덜 허용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할 것이다.

〈표 181〉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	적극적 동의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한국에 방문하는 것	빈도	2	13	127	168	316	14	640
	비율	0,3	2,0	19,8	26,3	49,4	2,2	100
한국 국민이 되는 것	빈도	11	34	171	232	177	15	640
	비율	1,7	5,3	26,7	36,3	27,7	2,3	100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빈도	13	31	148	225	205	18	640
	비율	2,3	4,8	23,1	35,2	32,0	2,5	100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빈도	10	21	146	226	220	17	640
	비율	1,6	3,3	22,8	35,3	34,4	2,7	100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빈도	12	23	145	220	225	15	640
	비율	1,9	3,6	22,7	34,4	35,2	2,3	100
나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빈도	8	31	141	209	235	16	640
	비율	1,3	4,8	22,0	32,7	36,7	2,5	100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빈도	88	131	191	132	82	16	640
	비율	13,8	20,5	29,8	20,6	12,8	2,5	100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빈도	125	113	182	122	76	22	640
	비율	19,5	17,7	28,4	19,1	11,9	3,4	100

4)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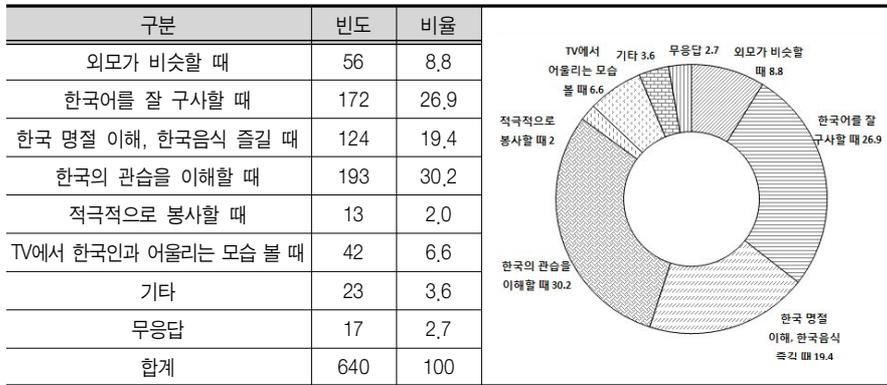
(1)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느끼는 경우

‘한국의 관습 등을 잘 이해할 때(한국의 예절이나 노인 공경 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0.2%로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외국출신주민들 입장에서 낯설고 어려워할 만한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26.9%를 차지했다.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원주민인 한국인이 소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적 소통이므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출신 주민에게 호감을 느끼며,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수록 더 동질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한국의 명절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 등을 즐길 때’(19.4%),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8.8%), ‘텔레비전에서 한국인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6.6%), ‘양로원 및 고아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2.0)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다양한 답변 모두,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회적 거리감을 줄어듦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더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82〉 한국인과 외국출신주민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단위 : 명, %)



이 질문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직업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대부분은, ‘한국의 관습을 이해할 때’ 동질적이라고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 구사할 때’라고 34.8%가 대답하여 언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10대들은 ‘한국 명절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을 즐길 때’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나, 기성세대일수록 소통의 가장 기본

요소인 한국어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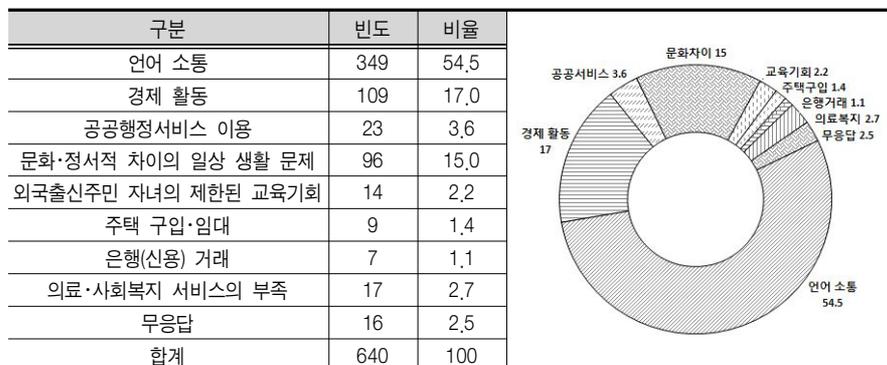
직업별로는 자영업(34.4%), 사무직(39.7%), 전문직(28.2%), 예술인(37.5%), 무직(60.0%)에서 각각 ‘한국의 관습을 이해할 때’를 1순위로 선택했다. 공무원과 학생의 경우 각각 27.3%, 33.6%가 ‘한국 명절 이해, 한국음식 즐길 때’라고 응답하여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는 외국출신주민을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질문 결과, ‘언어문제 등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대답이 54.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물었던 질문에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느꼈다던 답변과 연관되는데,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 소통 능력이라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취업 기회의 제한 및 근로조건 불평등과 같은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이 17.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역시 타국에서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평등하지 못한 노동조건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정서적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표 183〉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단위 : 명, %)



라는 응답이 15.0%를 차지했다. 낯선 이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의 현실을 잘 헤아리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 밖에, ‘시청·구청·동사무소와 같은 공공행정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의견도 3.6%를 차지했다.

외국출신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직업과 지역으로 대부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별히 ‘직업’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는 다르게 ‘경제활동’(27.3%)이나 ‘문화적·정서적 차이의 일상 생활문제’(27.3%)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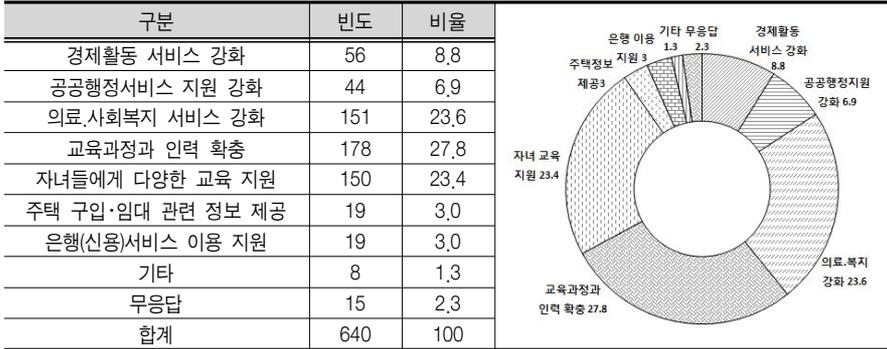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는 각각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1순위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3)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해부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3.4%가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성인 뿐 아니라,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 2세대가 한국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학업성취 부족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이 교육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적인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은 현실과 연계된 해결책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를 차지하였다.

〈표 184〉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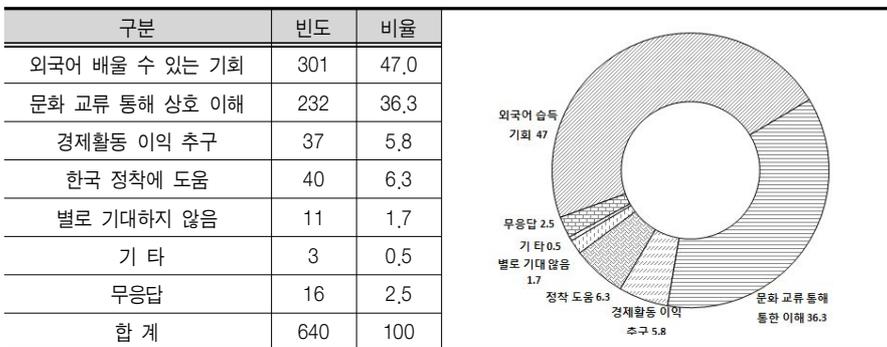


(4)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

<외국출신주민과 생활하고자 한다면,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7.0%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출신주민과의 문화적 교류에 단연 외국어가 일차적 자원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문화 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응답도 36.3%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185〉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

(단위 : 명, %)



연령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는 1순위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반면, 50대부터는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주요한 기대효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30대에서는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46.0%)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43.8%)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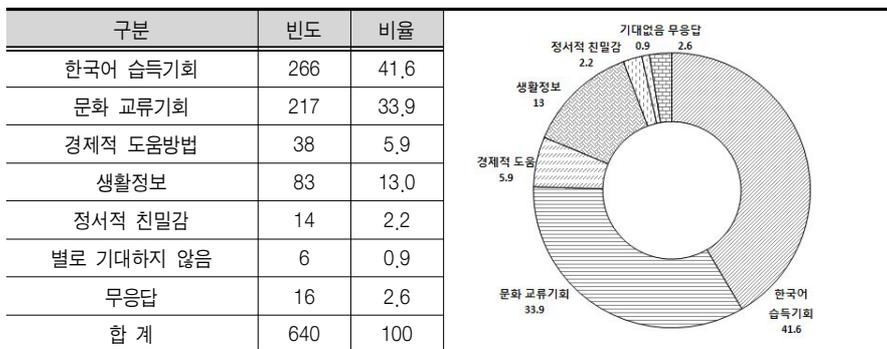
(5)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습득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문화교류기회의 제공’(33.9%)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생활 정보의 제공’이라는 응답도 13.0%를 나타냈다. 이는 무엇보다 내국인으로서 낯선 이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질문의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직업과 지역으로 분석되는데, 그 결과는 전체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결과에서 ‘대림’지역의 전체 응답자 중 21.1%가 ‘경제적 도움 방법 제공’이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86〉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

(단위 : 명, %)



5) 사회적 문제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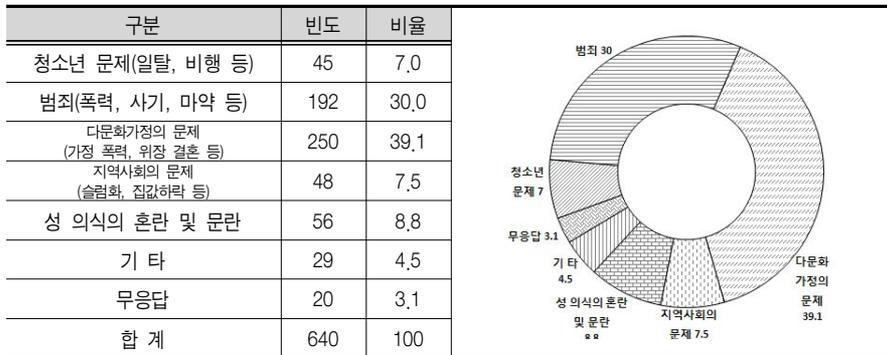
(1)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겨주지나 직장 내에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정폭력, 위장결혼)’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폭력, 사기, 마약 등)라는 답도 30.0%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질문이므로, 시민들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1순위로 뽑은 것은 비슷하다. 다만, 가리봉(50.0%), 동대문(55.0%), 대림(46.2%)의 경우에는 ‘범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태원(18.4%)과 역삼(16.2%)에서는 ‘성의식의 혼란 및 문란’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내국인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7〉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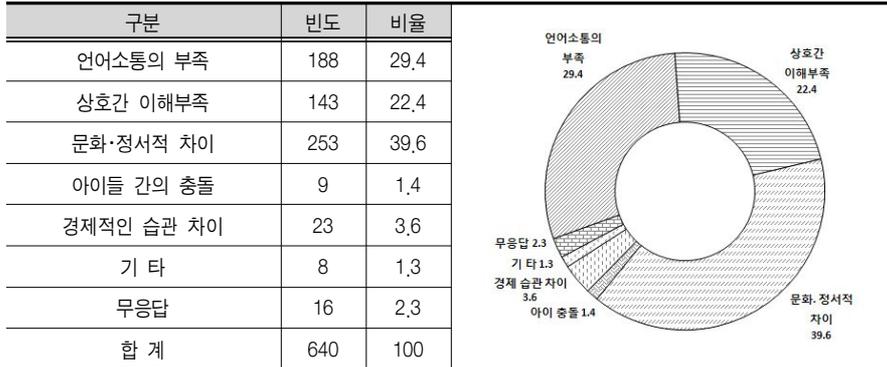
(2) 사회갈등 발생 원인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접하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라는 대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언어 소통의 부족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가 29.4%였다. 또한, ‘상호간 이해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웃 간의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라는 대답도 2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소통과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체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10대의 경우에는 ‘언어 소통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3%로 가장 높았다.

〈표 188〉 지역 내에서 외국출신주민과 갈등 원인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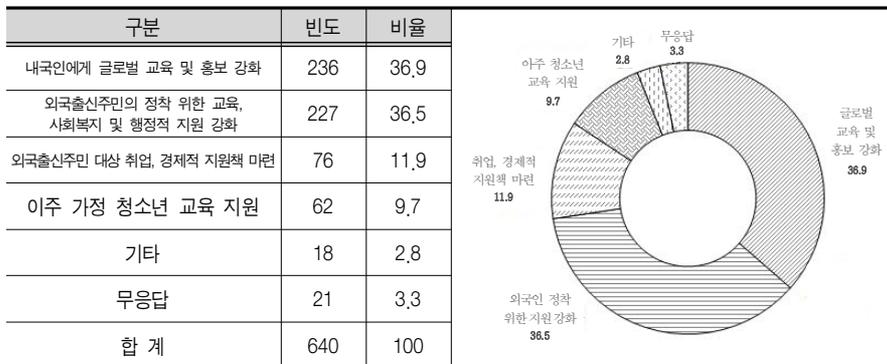
(3) 사회 통합 조건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는 서울시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조건을 마련하는데 시민들의 있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국인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36.9%)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으로서 한국인 스스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한 준비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응답은 ‘외국출신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로 36.5%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11.9%), ‘외국출신주민 가정의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9.7%) 등의 의견도 포함되었다.

〈표 189〉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한 정책적인 조건

(단위 : 명, %)



3. 인터뷰

■ 이주노동자 인터뷰

○베트남출신 남성(29세, 봉제업 근무, 한국 5년 거주)

—모국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

“베트남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유럽에 온 사람들보다 낮게 본다.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물어봐서 베트남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돈 벌러 왔구나, 공장이 어디냐, 무슨 일 하나 등 내가 느끼기에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물어보는 것 같다.”

—비싼 임대료가 서울생활의 가장 큰 문제

“서울은 방값이 특히 비싸다. 현재 사는 곳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인데 나에게서는 너무 비싼 금액이다. 게다가 요즘은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일감도 많이 떨어지고 월급도 많이 안 나와서 더욱 힘들어졌다.”

—별다른 사교모임 및 사회적 활동 없음

“특정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복지관에서 한국어수업을 받는다. 예전에 교회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야근하는 게 힘들어 가지 않는다.”

—서울생활엔 대체적으로 만족

“서울은 교통도 편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 좋은 것 같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관심과 불법체류단속 완화 필요

“외국출신주민에 관심을 가져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법체류단속을 자주 안했으면 좋겠다. 또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비자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국출신 여성(32세, 서비스업 근무, 한국 5년 거주)

- 정착 초기 언어문제로 어려웠지만, 특별한 차별 경험 없음
 -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해 생활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특별한 어려움이나 차별을 못 느낀다.”
- 서울환경에는 만족하나 직장 외 사교모임 없음
 - “서울은 깨끗하고, 주위에 공원도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이다. 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료도 다이고, 특별한 사교모임은 없다.”
- 잡은 불법체류자 단속 불만
 - “몇 년 동안 같이 일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단속으로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잘 안했으면 좋겠다.”

○베트남출신 남성(36세, 제조업 근무, 한국 6년 거주)

-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차별 경험
 - “직장에 있는 한국사람 중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일도 잘 못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외국사람 중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미리 외국출신주민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웃사람과의 관계 불편
 - “외국출신주민이라고 조금 다르게 보는 이웃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 일정수준의 평등한 급여 필요
 - “한국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싶다.”
- 일 년에 한 두번 안산에서 베트남사람 모임
 - “일 년에 한 두번씩 안산에서 베트남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다. 오랜만에 같은 모국사람과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고, 모처럼만에 술도 마신다.”

○몽골출신 여성(29세, 의류공장 근무, 한국 5년 거주)

—학비가 비싸 대학생활 중단

“나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비교적 다른 외국출신주민들에 비해 편하게 살고 있는 편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별로 없으나, 학교 학비가 워낙 비싸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 처음에는 대학교(숙명여대)에 입학해 다녔으나, 지금은 등록금이 비싸 못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학기에 몇 십 만원이면 대학교를 가는데 한국에서는 몇 백 만원이 있어야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 나처럼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교모임 및 활동 없음

“현재 일하는 곳은 오전 3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끝나 여유시간이 없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좋다. 가끔 한강, 남산, 어린이대공원 등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는 것이 전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불만

“나는 합법체류 비자가 있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우를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일하고 있는 식당 등은 단속이 많아 일하고 있다 잡혀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마치 나쁜 범죄자처럼 대해서 볼 때 너무 안쓰러웠다.”

○재중동포출신 여성(35세, 의류공장 근무, 한국 5년 거주)

—초기 언어적 어려움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음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 생활이 어려웠다. 지금은 한국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잘 대해준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주택지원 절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아예 안 되어서 힘들다. 서울시에서 외국

출신주민을 위한 주택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6살인데 어린이 집도 너무 비싸다. 다행히 아이들 보육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 그곳에 맡기고 있다.”

○ 파키스탄출신 남성(30세, 사무용품제작업 근무, 한국 8년 거주)

—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에 대한 무시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 내가 잘하고 잘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인식이나 태도는 잘 변하지 않는다.”

— 모국문화 및 종교(이슬람)에 대한 몰이해

“이슬람종교와 문화는 세계 주요 문화 중 하나인데, 한국인들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이슬람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가 문화적 습관이며 이를 지키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담배 피는 시간으로 잠깐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잠깐의 기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하루 2번, 5분 정도의 시간만 내면 가능한 일인데, 일 안하고 기도한다고 사업장에서 허락해주지 않는다. 지역에도 기도방 모임이 있는데 이웃에서 왜 모이는 거냐며 이상한 태도로 물어보고 외국출신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슬람하면 모두 테러리스트와 관련해 생각하는 등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 문제가 너무 크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슬람사원을 설립해줄 정도로 세계적 종교 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해 이해해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 비자 체류기간 초과와 함께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 금지

“초기 취업비자로 들어올 때 만든 내 명의 핸드폰이 있었다. 요금도 밀린 적 없고 오랫동안 사용한 핸드폰인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비스가 끊겼다. 현재는 다른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 중이다.”

— 야간시간 응급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없음

“친구 중 한명이 밤에 너무 아파서 동대문구 대학병원에 갔더니, 20만원을 먼저 내지 않으면 진료할 수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도 10만원이었는데, 계속 진료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시립병원으로 옮겼고 거기서는 먼저 5만원을 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나 보험이 안 되는 외국출신주민들은 특히 야간에 진료 받을 곳이 없다.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야간에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원이 있으면 좋겠다.”

—해외에서는 취업 비자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업무상 또는 개인사유에 의한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운전이 필요할 때가 많으나,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사업주 동의에 의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방글라데시출신 남성(33세, 봉제업 근무, 한국거주 6년)

—한국인과의 불공평한 급여 수준

“일반급여도 다르고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이 20만원 정도 받으면 외국출신주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는다.”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교육 필요

“외국출신주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해외 선진도시들의 외국출신주민 통합 사례 관련 프로그램을 늘려 일반사람과 아이들에게 외국출신주민도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평등한 급여 필요

“한국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싶다.”

—경찰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며 의심한다.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 구입한지 2~3년 지난 물건 영수증을 달라고 한다. 외국출신주민 중에 도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한국인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증거 없이 외국출신주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고 집에까지 구두를 신

고 들어왔다. 나는 한국인과 결혼해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조회해 보고 불법체류자이면 바로 출국조치 시키려고 한 것 같다. 잘못도 없었는데 너무 놀랐고, 경찰에 대한 분노심이 생기게 된 경험이었다.”

—비OECD국 외국출신주민 남성과 한국인 여성 결혼커플에 대한 비하적 태도

“나는 한국 여성과 결혼했는데, 주변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무언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나 같은 외국출신 남성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백인 외국출신주민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나는 이웃이 시끄러워도 참는 편인데, (이슬람) 기도 모임으로 외국출신주민들이 조금만 모여도 시끄럽다 찾아오고, 이슬람 음식을 하면 냄새 난다고 한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배척 또는 무시하는 태도

“핸드폰 기계를 바꾸러 가게에 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출신주민은 안된다고 손을 젖는다. 거소증이 없으면 안된다라든지 어떤 서비스는 안된다라든지 설명해줄 수도 있는데, 보자마자 무조건 외국출신주민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 사업장에서도 이름이 아닌 ‘야’ 또는 ‘이 새끼’ 라는 호칭을 부르기도 하며, 외국출신주민이니까 마구 부러먹어도 된다는 말을 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한다.”

○중국출신 남성(40세, 봉제업 근무, 한국 14년 반 거주)

—불법체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외국출신주민 지원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 합법체류자만 가능한 것이다. 나는 정책 요구 사항이 별로 없다. 포기상태이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은행상품 및 핸드폰 서비스 개통 불편 심화

“예전에는 여권만 가져가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소증

이 있어야만 가능해져 더욱 불편해졌다.”

-타 문화권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차별 및 불공평한 대우

“나는 중국에서 와서 비교적 외모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나라라 심한 차별은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문화권에서 온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확실히 많은 것 같다.”

○필리핀출신 남성(38세, 엔진정비업 근무, 한국 10년 거주)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 받을까봐 항상 불안

“아직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외국출신주민 부모를 두었다고 놀림 받을까봐 항상 불안하다. 주위에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차별, 따돌림이 있다고 많이 들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춘기가 오는 시기라서 더 걱정이 된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일반인 또는 아이들의 인식이 나쁘지 않다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것 같다.”

■ 결혼이민자 인터뷰

○태국 출신(26세, 한국 1년 8개월 거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장 불편, 외부의 특별한 도움 받은 적 없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로 가족들이 도와 주었다.”

-2년마다 비자 연장하는 것 불편

“이혼 후(남편 귀화신청 안된 상태) 2년 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현재의 비자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혼하고 싶다.”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

“특별히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 없고,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어 한국어 습득이 어려웠다.”

○우즈베키스탄 출신(24세, 한국 2개월 거주)

–한국에서 결혼 후 정착한 사촌언니 도움을 주로 받음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주로 한국에서 결혼한 사촌언니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한국 정착 후 사촌언니 외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은 거의 만난 적 없다. 남편 가족 또는 남편 친구들과 함께 종종 어울린다.”

○베트남 출신(29세, 한국 3년 10개월 거주)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으나 대화할 사람이 없음

“남편은 매일 늦게 귀가해서, 한국말로 대화할 상대가 없다. 한국어교육 선생님 집으로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

–시댁가족들의 모국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

“고모 등 시댁 가족들이 베트남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가 있다. 베트남 사람은 돈만 안다는 말 등을 내 앞에서 할 때도 있다”

○베트남 출신(21세, 한국 6개월 거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 얻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수업과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자주 만나는 모임 또는 사교활동 없음

“베트남 친구를 만나러 성남, 안산까지 놀러갈 때가 있으며, 한국친구는 없다. 동사무소의 한국음식 강좌에서 만난 필리핀, 몽골, 일본 친구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시댁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일 외에 특별한 외부활동은 없다. 가족들이 혼자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싫어한다.”

○베트남 출신(25세, 한국 2년 9개월 거주)

–한국이주 후 베트남 명절 등 문화적 관습 지킨 적 없음

“가끔 베트남 음식을 요리할 때는 있으나, 베트남에서 지키는 명절 및 문화적 관습은 지킨 적이 없다.”

–한국귀화 신청 원하나 안되고 있음

“현재 아이가 셋 있으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남편이 귀화신청을 해주길 원하나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어교육 방문 선생님 필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 센터를 방문하기 힘들다.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데, 한국어교육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

–학부모 모임 및 행사 불참

“학교 운동회, 어머니 모임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들(결혼 전 남편 쪽 자녀)의 경우, 시어머니가 챙겨주고 계신다.”

–가족들의 모국출신에 대한 경시 태도

“시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에 대해 조금 나쁘게 보는 태도가 느껴진다.”

○베트남 출신(33세, 한국 3년 거주)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혜택 필요

“나는 정부장학금으로 온 국비유학생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아이들을 낳았다. 외국출신주민 자녀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 지원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중국 출신(30세, 한국 3년 거주)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학교차원의 배려 필요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학급 친구들의 따돌림 또는 무시하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다. 학교차원에서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몽골 출신(37세, 한국 7년 거주)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오해 및 편견

“현수막에 걸려있는 국제결혼 광고, TV나 미디어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자주 받게 된다.”

—다문화가족 바우처 제도 분야 확대 실시 필요

“현재 다문화가족 바우처 제도는 가족캠프 등 특정 활동 영역에만 사용 가능하며, 바빠서 가지 못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학습지 구입 지원 등 좀 더 실용적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문화, 외국출신주민과의 차별성 외 보편성 측면 교육도 필요

“학교의 다문화교육도 외국출신주민과의 차별성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외국출신주민도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내용 및 강사 자질의 문제점

“중학교 다문화교육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몽골 학교의 낙후된 교실 모습,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고, 내 나라(몽골)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스리랑카 출신(35세, 한국 10년 거주)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강사의 문화적 이해 부족

“한국인이 강의하는 다문화이해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본 내용과 사진으로 강의하는 등 그 나라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리랑카 문화는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라고 소개하는 등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일환인 다문화강사 계약 연장 필요

“결혼이민자 중에도 배우고 자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다. 현재 1년 계약인 다문화강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사회에서 배제된 느낌

“외국출신주민으로 사는 것이 장애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동떨어져 지내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같은 물건을 살 때도 비싸게 구입할 때가 많다.”

-외국출신주민지원기관(단체) 서비스의 주체자로서 활동 필요

“외국출신주민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외국출신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또한 외국출신주민이 한국사람, 서울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다문화라는 말에 묶여 외국출신주민들만 따로 모아놓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차별적 처사이다.”

○중국 출신(31세, 한국 9년 거주)

-외국출신주민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한국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다자녀 보육에 대한 지원이 외국출신주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 유학생 인터뷰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초기 정착시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기관은 나중에 알고 보면 많으나, 초기에는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 모국출신 아동 및 청소년 교육문제 개선 방안

“이중 언어 강사와 유네스코에서 시행하는 자기나라 문화 이해 프로그램(미지센터)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모국 출신 뿐 아니라 전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단체 및 이용 경험

“서울시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홍보가 더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서울생활의 어려운 점

“과도하게 개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관심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담스럽다.”

“대부분 한국어 간판(안내표지)이 어려운 한국말로 표기되어 있어 읽기 불편하다.”

“같은 외국출신주민이라도 백인에 비해, 아시아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핸드폰 개통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외국출신주민 사회통합 저해요인

“한국인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다른 시선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에 대해 더 개방적 태도로 어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 낯설겠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면 좋겠다.”

■ 외국출신주민밀집지역 내국주민 인터뷰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살아가는데 대한 생각, 어려운 점】

○거주 지역 환경 관리의 어려움

“외국출신주민들의 경우 이사 가기 전까지 쓴 해당 월의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전기세 외에도 이런 공과금이 상당하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까먹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못 잡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인들은 위생에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다. 방안에서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주방은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는 이유로 주방 벽에 때가 많이 있고 매우 지저분해서 불쾌하다.”

○심야시간 소란, 질서 문란, 유흥 즐김

“외국출신주민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곳이 교육환경이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 한국인 세입자가 불만을 가지고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고성방가하는데 지역토박이들이 이사를 할 정도로 이제는 중국인들 세상이 되었다. 아이들 교육에 불리하다고 부모들이 싫어한다.”

“중국인들끼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과도 시비가 붙으면 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나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중국인들이 대립동으로 몰려든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주로 음식점, 유흥업소, 알선업체, 여행사-이 많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여성 집대부도 있다.”

“매일 밤 경찰들이 상점이 준비한 거리에 잠복근무를 하고, 거리에 순찰차
가 서 있다. 중국인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안심이 들면서도,
밤에 차이나타운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생긴다. 밤에는 거의 한국인
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심한다.”

○범죄 발생 빈번. 치안 어려움

“경찰은 이태원이 밤에 소란스러운 것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금요
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슬람 사원 올라가는 길에서 차를 통제할 뿐이다.”

“3~4년 전에 살인 사건이 크게 났었는데, 그 이후로 주변 집값이 하락했다.
중국인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내·외국출신주민 간 충돌이 빈번하다. 특히, 환승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상권의 소비자일뿐 아니라, 영업자로도 활약

“시장 및 근처 상권의 소비자가 주로 중국인이다. 최근에는 중국인 상인들
이 점차 늘어나, 내국인 상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근처 중국집은 대부분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가격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져 내국인은 장사하기 어렵고, 한국 떡거리 자
체도 없어지는 추세이다.”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아지자,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
아 한국 상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다.”

【본인이 느끼는 지역에서의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인 간 관계】

○이웃으로서의 관계

“특히, 유엔빌리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부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외

국 생활 경험이 많은 편이라 외국출신주민과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이 지역 외국출신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교양있는 사람들이라 지역 내에서 큰 갈등은 거의 없다.”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형성

“주민들 간에 갈등은 적은 편이고, 원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외국출신 주민들끼리 어울리는 성향이 강해서 내국인들과는 일정정도만 유지할 뿐이고 친밀한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내·외국출신주민 구분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친절하고 호의적인 외국출신주민들에게는 정이 간다. 재개발이 되어도 여전히 외국출신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유대관계 맺을 기회 부족

“마주치기는 하지만, 특별히 상호 관계를 맺을 기회가 부족하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관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술 마시면서 외국출신주민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화가 달라서인지 나이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외국 아이들이 한국아이들보다 덩치가 커서 밀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자제를 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문제가 생기던 놀이터에는 이제 가지 않는다.”

○특정 인종, 국적에 대한 편견

“선진국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에게는 호기심을 갖지만, 아닌 경우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 같다.”

“아랍인의 경우 위화감이 좀 들긴 하지만, 그 외의 외국출신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이다.”

“외국출신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제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다. 특히, 가나, 가봉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로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규범을 잘 지키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개념도 없다.”

“흑인은 무조건 피하게 된다.”

“혼자 사는 외국출신주민의 경우 외로움을 술로 달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외국출신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외국출신주민 들끼리 모여 노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게 적발당한 이후에는 음성화되어 허술한 지하방에서 노름을 하고, 이러한 하우스(HOUSE)를 운영하려는 외국출신주민들도 있다.”

○사회적 거리감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인은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지 않는다. 특히, 내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 밤길에는 잘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 참여 경험 및 희망여부】

“공동의 문화 행사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 수준이 낮아 어울리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는다.”

“공동의 행사-문화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내·외국민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외국출신주민들이 자기네 나라끼리만 하는데, 과거처럼 넓은 범위의 한마당 축제가 필요하다. 인근지역의 외국출신주민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 대사관을 중심으로 내·외국출신주민 문화교류 행사가 종종 있다. 그런데, 초대받는 내국인들은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외국출신주민 대상 공공기관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절실

“공공기관에 외국출신주민을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통역 같은..”

“외국출신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 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1:1로 연결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배려는 필요, 그러나 지나친 호혜는 금물

“내국인들이 외국출신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열광한다. 무조건 베풀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인 외국출신주민들은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서 ‘난 몰라요.’라고만 하고, 받는 것만 좋아라 한다.”

【외국출신주민-내국인이 갈등 없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기 위한 방안】

○외국출신주민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 없음

“서로 잘 하면 그만이다. (···) 한국인도 외국 나가 싶듯이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에 들어오는 거다. 서로 다룰 것이 없지 않은가.”

○ 상호 간 언어 교육 필요

“언어소통이 가능하다면,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는데 수월할 것이다.”

“일본어를 한다면 대화하고 싶은데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약점이
다. 이웃 일본인에게 일어를 배운다면 유용할 것 같다.”

“내·외국출신주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이 수월하여야 하는데 지
금으로서는 언어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필요

“미국의 ‘adults school’과 같은 제도가 있다면 외국출신 서울 시민들이 한국
에서 생활하는데 적응이 수월할 것이다(한 팀당 내국인 3 : 외국출신주민 7
희망).”

“공공질서가 없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주차도 막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술 먹고 막 대할까봐 겁도 난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
지,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국내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
벌에 교육도 해야 한다.”

○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교육 필요

“우리 지역에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해주
는 민간 기관도 있고,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이 많아진다면 도움이 클 것이다. 직업교육 같은...”

“외국출신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적응에 유용한 교육(생활상 지
켜야 할 법규나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을 했으면 좋겠다.”

■ 서울 글로벌·빌리지 센터장 간담회

○외국출신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점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국출신주민이 서울시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초기 정착기에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도 어렵고 생활 정보를 얻고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약점이 있다.”

“빌리지 센터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민간단체든 외국출신주민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많이 생겨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센터(지역)별 서비스 대상 파악 어려움

“거주지를 옮겨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아예 모르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많다. 지원프로그램이 있어도 대상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기관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수에 비해 협소한 공간

“수요자 욕구에 맞게 시간대와 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주말과 같이 특별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 때에는 센터장 사무실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간을 이용하다시피 한다”

○일정 수준의 빌리지 센터 업무에 대한 동일한 지침 필요

“센터마다 서비스를 활용하는 외국출신주민의 출신 국가가 달라, 센터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 동일한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각 빌리지 센터마다 너무 상이하다. 업무에 대해서도 혼동이 되고 고민 될 때가 많다. 지역별 특성도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빌리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상위기관인 시에서 동일한 방침 하달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업무 평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와 같은 상담실적 등 단순 비교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사료에 대한 일괄적 방침이 없어 강사료 지급에 혼란이 생기며, 예산이 감소해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워졌다.”

○센터의 자율성 보장 필요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원칙에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행사 관련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다.”

○내국인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설 필요

“실제 내국주민들이 빌리지 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내·외국 출신 서울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외국출신 서울시민 자원봉사자 인력풀 활용

“외국출신주민 자원봉사자 인력풀은 많은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현재 자원봉사 인력 유형은 행사지원, (언어 등)프로그램 지원, 사회봉사, 사무보조 등이 있으며, 내국인 자원봉사자는 행사가 있을 시에만, 메일 등을 통해 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라 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내국인 자원봉사자를 필요할 때만 급하게 조달하는 것보다는 내국인 프로그램이 센터에 있어, 내국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역 특성상 비교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원봉사 지원자가 많으나 센터 여건상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 **빌리지 센터는 문화교류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특성 부여**

“한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특히 좋으며, 올해 상반기는 선거법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 없어 문화교류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인력이 적어 구청 직원 한분은 서로 다른 지역을 오고가며 일하는 상황이며, 서울시 파견 인턴도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외국출신주민도 많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인력이 적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센터에는 한국에서 2, 3년 체류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외국출신주민 이용자가 많은데, 이들이 내국주민과 교류를 많이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 **조직 내 인력(서울시/구청, 외국출신주민/내국인 직원) 등 조직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한 마찰 발생**

“업무상 협력해야하는 조직 간에 문화가 달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다. 또,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내·외국출신 서울시민이 함께 근무하는 환경인데, 조직문화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지역 커뮤니티와 빌리지 센터와의 관계 활성화**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는 결국 커뮤니티 확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접근성 면에서는 더 좋지만, 맨파워 부분에서 떨어지고 공간적 제약도 있다. 따라서 빌리지가 맨파워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와 협조해 인력 및 공간을 지원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빌리지 센터를 추가로 많이 설립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와의 협조만 원활하면 전체적으로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 글로벌·빌리지 센터 직원 인터뷰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및 서울시에 대한 건의 사항

“지역특성상 외국출신주민 인구가 다른 외국출신주민 밀집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고,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등이 길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리 학원의 한국전통 요리교실 등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실 요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전통요리교실에서 요구하는 최소 참여자 수가 많아 직접 선생님을 모시고 센터 내에서 요리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개수대, 요리기구 등)이 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빌리지 센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참가비를 각 빌리지 센터마다 책정하여 참가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수업 재료비를 전액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센터마다 상황에 따라 참가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참가비에 민감한 이용자가 많은 센터의 경우, 참가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참가비가 심하게 차이 날 경우 여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센터 이용 외국출신주민들의 실제 만족도 수준

“공연, 여행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인 서래 빌리지 센터의 경우,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수집하는 관련 잡지나 정보뿐 아니라 여행과 관련한 지도 및 여행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어 문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문화 체험의 경우, 표면적인 문화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체험을 위해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이 서래 빌리지 센터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지 공예, 전통 매듭, 사군자 수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업무량의 적정도, 인력충원 필요 욕구**

“지속적으로 서울시 행정 인턴으로 센터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되기를 바란다.”

○ **센터장 및 내부 직원 간의 어려움**

“외국어 지원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구청 직원과 센터장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각 센터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센터장의 역할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업무 분장의 필요성).”

○ **현재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조 및 관계 정도**

“이미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이주민 네트워크와 센터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직은 이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주민 공동체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실적으로 외국출신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이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의 프로그램 이용 증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추진방향**

“다양한 국적의 외국출신주민들이 직접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항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센터에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할 것이다. 센터 자체 내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개월에 1회씩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내국주민들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출신주민들도 한국인에게 받은 애정과 관심을 소외된 한국인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출신주민들이 센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센터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바로 앞에서도 위치를 묻는 전화가 올 정도이다. 따라서 센터의 위치를 잘 알릴 수 있는 외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센터 운영 시에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재료비나 참가비, 강사비 등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인데 센터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가 없어 임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외국출신주민대상 설문지

조사원 작성	일시	기관	담당 조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시가 외국출신 서울시민의 동등한 권리 향유와 사회통합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일부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답변은 통계처리 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관련 문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석기 연구위원 02)2149-1037
 최진영 연구원 02)2149-1151, 010-2366-4048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하여 주세요.

1. 기본적 시민권리의 평등

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내국인 서울시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2. 귀하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아래의 항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① 경제활동(취업, 직업선택, 급여와 근로조건 등) ② 공공행정서비스(시·구·정 동사무소이용 등) ③ 공공사회복지서비스 ④ 건강진료 및 의료 혜택 ⑤ 교육기회(학교 입학 등) ⑥ 주거지 선택(주택임대 및 매입, 쾌적한 주거 환경 등) ⑦ 금융서비스(계좌, 신용카드, 금융상품 신청 등) ⑧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2순위() 3순위()

3.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분야의 직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어느 정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3-1.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 고용의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서울에 거주하면서 과거 직업이 있었거나, 현재 있으신 분만 응답>

3-2. 귀하는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급여수준이나 작업환경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4. 귀하는 서울의 공공행정서비스(시청, 구청, 주민센터, 글로벌센터 등) 이용이 편리하십니까?

- ①매우 편리() ②편리한 편() ③보통() ④불편() ⑤매우 불편()

5.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공공 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지역 보건소 및 시지정 의료기관)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6.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자녀의 공교육 기회(지역의 공립학교 입학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7.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내 주거지 선택(주택매입 및 전·월세 임대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8.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경찰서·소방서 등)에서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9.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아래의 항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①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1순위() 2순위() 3순위()
② 경제환경(생활비용, 소득, 근로시간 등)	
③ 사회환경(복지, 의료시설 등)	
④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⑤ 도시안전(교통사고, 화재, 범죄발생, 자연재해 등)	
⑥ 의사소통	
⑦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 귀하는 본인 스스로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자신의 모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외국출신 주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 귀하는 자신의 모국 문화를 서울시민이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외국출신인 이유로 부당하게 따돌림 또는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보통() ④ 조금 있음() ⑤ 전혀 없음()

3. 자기개발과 자율성

- 귀하는 외국인으로서는 서울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한국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① 충분히 받음() ② 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③ 전혀 받은 적 없음()

2. 귀하는 고용 및 창업 등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충분히 받음()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③전혀 받은 적 없음()
3. 귀하는 현재 고용된, 혹은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충분히 받음()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③전혀 받은 적 없음()
4.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모국의 문화 및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충분히 받음()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③전혀 받은 적 없음()

4. 참여와 혁신

1. 귀하의 다음 사회활동들에 대한 현재 참여 정도와 앞으로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분 야	현재 참여 정도					미래 참여 의사	
	매우 자주	자주	보통	조금 있음	전혀 없음	예	아니오
1)외국인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지역주민 모임(반사회, 학부모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3)사회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4)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5)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귀하는 서울시 및 지역의 정책 참여를 위한 공공기관(시청, 구청, 주민센터, 글로벌센터 등)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시를 하고 계십니까?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3. 귀하는 현재 모국인 외 서울 시민 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십니까?
 ①매우 자주() ②자주() ③보통() ④조금 있음() ⑤전혀 없음()
4. 귀하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시간이 부족해서() ②정보가 부족해서() ③활동 장소가 멀어서()
 ④관심있는 활동이 없어서() ⑤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⑥기타(_____)

5. 일반적 사항

1. 귀하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십니까?
 ①예(국적을 취득한 기간: _____년 _____개월) ②아니오

2. 귀하의 한국 이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중국(한국계 중국인)() ②중국(한국계 외)() ③미국() ④대만() ⑤일본()
- ⑥베트남() ⑦몽골() ⑧필리핀() ⑨캐나다()
- ⑩우즈베키스탄() ⑪인도() ⑫태국() ⑬영국() ⑭프랑스()
- ⑮러시아() ⑯기타(직접기입: _____)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자() ②여자()

4.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①만19세 이하() ②만 20~29세() ③만 30세~39세() ④만 40세~49세()
- ⑤만 50세~59세() ⑥만 60세 이상()

5. 귀하가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취업() ②결혼() ③가족, 친척방문() ④사업 또는 업무() ⑤유학()
- ⑥기타(_____)

6.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혼자() ②배우자/동거자() ③가족() ④친인척() ⑤친구, 동료() ⑥기타

7. 귀하는 현재 배우자(동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입니까?

- ①자녀 있음(_____명) ②자녀 없음()

8. 귀하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모국어 위주() ②한국어 위주() ③모국어와 한국어 사용이 반반()

9. 귀하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 ①모국인 친구() ②한국인 친구() ③모국인과 한국인 친구 반반()

10. 귀하는 현재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11. 귀하가 한국에서 거주한 총 체류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12. 당신의 서울 내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표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내국주민대상 설문지

조사원 작성	일시	기관	담당 조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시가 외국출신 서울시민의 동등한 권리 향유와 사회통합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일부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답변은 통계처리 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예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관련 문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석기 연구위원 02)2149-1037
 김철민 연구원 02)2149-1151, 017-311-7780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하여 주세요.

I.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1. 귀하께서는 외국인을 자주 만나거나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이다.
- ②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한다.
- ③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 척 한다.
- ④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이다.
- ⑤ 거의 만난 적이 없다. → 2번 문제로 넘어가주세요

▶ 1-1. 귀하께서는 주로 어느 곳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직장
- ② 학교
- ③ 상점
- ④ 집 주변
- ⑤ 종교기관
- ⑥ 외국인 지원시설
- ⑦ 공공기관
- ⑧ 단체모임장소(친목회, 동호회 등)
- ⑨ 기타_____

1-2. 귀하께서 만난 외국인은 주로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만난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중국(연변출신 포함)
- ② 일본
- ③ 동남아시아
- ④ 유럽
- ⑤ 미국 및 아메리카
- ⑥ 아프리카
- ⑦ 기타_____

1-3.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이유로 외국인을 만났습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직업상의 일 때문에 ② 아이들 교육 때문에 ③ 문화 행사 및 축제 참여로
④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⑤ 우연히 마주쳤다 ⑥ 기타 _____

1-4. 귀하께서는 외국인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② 상황에 따라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③ 같이 어울리는 것은 좋으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같이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⑤ 관심이 없었다

1-5. 귀하께서 외국인들과 알게 된 이후로 외국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호의적이 되었다
② 호의적이 되었다
③ 변화 없다
④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⑤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 1-5번까지 답해 주셨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

→ 1번 문제에서 「⑤ 거의 만난 적이 없다」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 귀하께서 외국인을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호의적이다 ② 상당히 호의적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⑤ 상당히 호감이 가지 않는다.

Ⅱ.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 가치관, 태도

다음은 귀하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용에 관련 인식	1.1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동 경제	2.1 외국인으로 인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	1.3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4.1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교육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문화 사회에 걸 맞는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평등	5.1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특례입학, 고용할당 등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할당제를 두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참여	6.1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외국인의 증가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외국인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② 동사무소 등 주거지 인근의 공공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③ 외국인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④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해부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 ⑤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절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 ⑦ 은행 계좌, 신용카드 발급 등 사회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⑧ 기타 _____

4. 귀하께서 외국인과 생활하고자 한다면,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 ②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③ 상거래 등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 ④ 안정되게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생활 정착에 도움주기
- ⑤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 ⑥ 기타 _____

5. 귀하께서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한국어 습득기회 제공
- ② 문화 교류기회 제공
- ③ 경제적 도움 방법 제공
- ④ 생활 정보의 제공
- ⑤ 타향살이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친밀감 제공
- ⑥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 ⑦ 기타 _____

2. 귀하께서는 외국인 및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데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	적극적 동의
2.1 한국에 방문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2 한국 국민이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4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5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7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Ⅲ. 일상생활

1. 귀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및 이주민과 만났을 때, 어떤 점에서 한국인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위____ 2 순위____)

- ①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
- ②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 때
- ③ 한국의 명절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 등을 즐길 때
- ④ 한국의 관습 등을 잘 이해할 때 (한국의 예절이나 노인 공경 등)
- ⑤ 양로원 및 고아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 ⑥ 텔레비전에서 한국인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 ⑦ 기타_____

2. 귀하께서 보시기에 외국인과 이주민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생활 속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위____ 2 순위____)

- ① 언어문제 등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 ② 취업 기회의 제한 및 근로조건의 불평등 같은 경제활동상의 어려움
- ③ 시청·구청·동사무소 같은 공공 행정 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
- ④ 문화·경서적 차이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예: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 ⑤ 외국인 자녀들의 제한된 교육 기회
- ⑥ 주택의 구입 및 임대에서의 어려움
- ⑦ 은행 계좌,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
- ③ 외국인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 ⑧ 기타_____

IV. 사회적 문제와 갈등

1. 귀하가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지역 내에 외국인 및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 문제 (청소년 일탈, 비행 등)
- ② 범죄 (폭력, 사기, 마약 등)
- ③ 다문화 가정의 문제 (가정폭력, 위장 결혼)
- ④ 지역사회의 문제 (슬럼화, 집값하락, 교육문제)
- ⑤ 성 의식의 혼란 및 문란
- ⑥ 기타 _____

2. 귀하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 및 이주민과 접하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어 소통의 부족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
- ② 상호 간 이해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웃 간의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 ③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
- ④ 아이들 간의 충돌로 인하여
- ⑤ 금전 거래 등 경제적인 습관 차이로 인하여
- ⑥ 기타 _____

3. 귀하께서는 외국인 및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인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②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 ③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 ④ 외국인 출신 가정의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교육 체도를 마련한다
- ⑤ 기타 _____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